

건축사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pril 1991

톤

건축의
정판 금강 마
흡음력이 뛰
다.
이톤은
하게 연출함

강한 디자인
되고 격조높은 디자인
고 있어 용도와 기능에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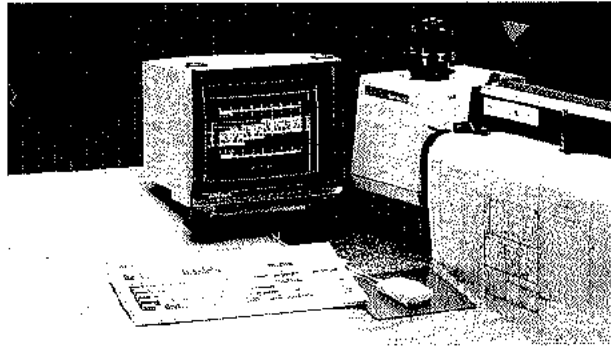
수한 시공성
천정재의 1/3 무게로
시스템으로 시공과 보
합니다

정판
이톤
NE

4
APRIL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전문회사로 출발한 건캐드시스템은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안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건축 CAD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설계업무를 부탁하고 싶은데...

귀사의 설계업무를 건캐드시스템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할인판매

건축 CAD지원용 소프트웨어인 CAD POWER Ver 4.0개발에 따른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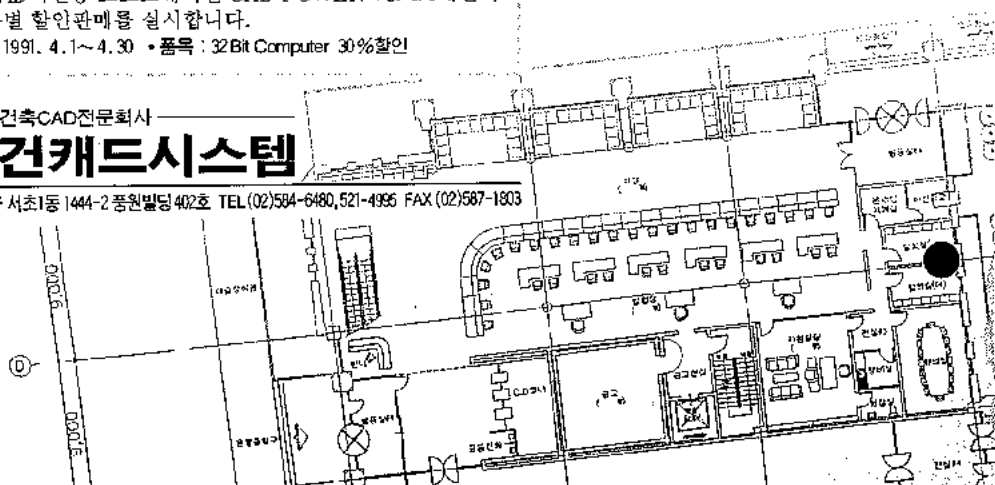
• 기간 : 1991. 4.1 ~ 4.30 • 품목 : 32Bit Computer 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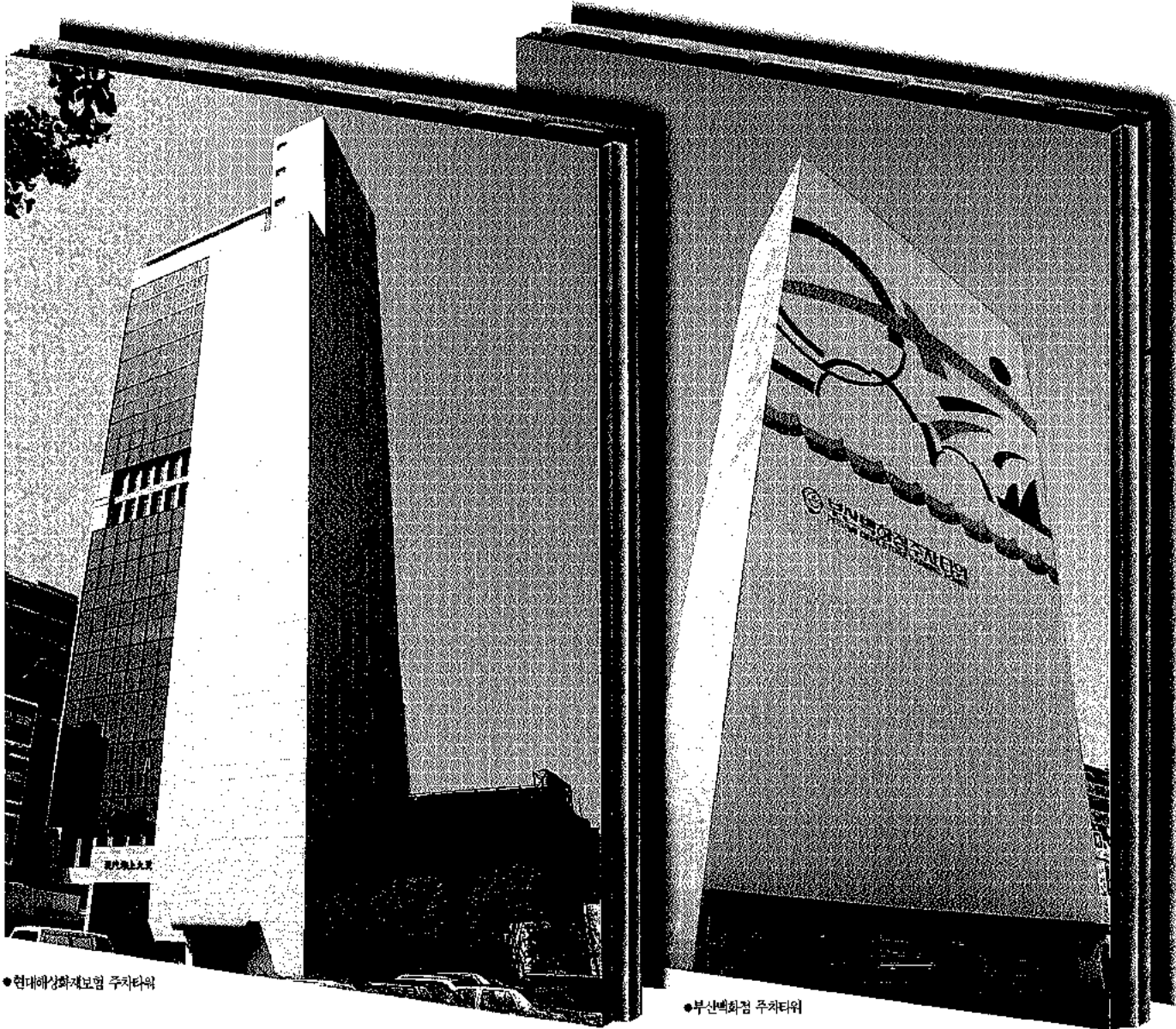


건축CAD전문회사

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동원빌딩 402호 TEL (02)584-6480, 521-4985 FAX (02)587-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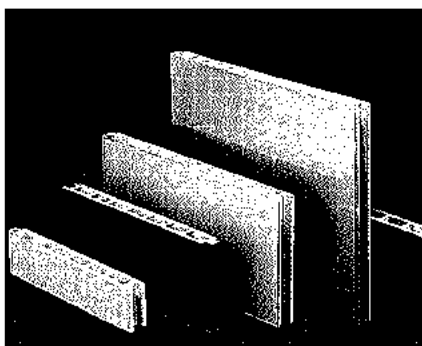




●현대애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움,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486출발

486 Turnkey system configuration

- 썬파워 486
 - i80486-25MHz
 - MAIN MEMORY: 8MB
 - 5.25" FDD
 - 200MB HDD
 - 14" MONITOR
 - PC-MOUSE
- DISPLAY
 - NEC XL 20" Color Monitor
 - 1024 × 768 × 256
 - COBRA-PLUS-3BI-HS with VMI
- ARRIS
 - BD & D + AD & D + M & D + 한글
- 3rd Party
- Xenix & DOS

썬파워 486은 i80486을 탑재한
현존하는 최고의 PC입니다.

Land Mark Test시 112MHz의 속도를 나타내며
Co-Processor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386 System
보다 3배~5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극복
- 화면 MENU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
등으로 완벽한 음영 CHECK기능 보유 (일조권)
- 건축 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입·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등 SYMBOL지원
- 1,600만 컬러제공 및 신속한 컬러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확보

2,300만원 ➡ 1,895만원

OPTION

- H/W
 - Memory
 - 3.5Inch FDD
 - 5.25Inch FDD
- PLOTTER
 - F-920ER(Ao, Roll)
 - F-920E(Ao)
 - ip-530EL(Ao)
 - ip-530E(Ai)
 - ip-210(Ai)
- DISPLAY
 - 2A(800 × 600, 14")
 - 3D(1024 × 768, 14")
 - 4D(1024 × 768, 16")
 - 5D(1280 × 1024, 20")
- TABLE
 - TB-8830

3rd Party의 특징

국내 유명건축사무소인 (주)우일건축 (주)정림건축의 협조로 그동안 설계
사무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
철근, 보, 슬라브 기둥, 철골접합 등을 함께 공급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etail Library

일반상세, 실내미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설기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 450개

- 한글 단 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정기능, 칸매우기 기능, 공간채우기 기능등

- 구조일람표

철근-보, 기둥, 슬라브와 철골접합상세등

F-920ER은 연필사용이 가능한 MUTOH PLOTTER의 최신기종으로 Ao Size의
날장 사용은 물론 Roll Type의 연속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긴도면이나
여러장의 도면을 쉽게 Plotting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시험회부설 CAD교육 연구
소에서 교육을 이수하 신분들
께는 시스템구매시 교육비 전액
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License 확인사항
VIX와 DOS구매시에는 License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물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서 공급하는 3rd Party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처에 프로그램등록이 되어 있는
 무단복제시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 처벌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OPEN
'90.12.3

■ 대한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1층
 운영: 서통 AI사업부 교육팀
 문의: 521-7296,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11

Page 교육안내 참조

■ TURN-KEY SYSTEM 의 특징

HARD WARE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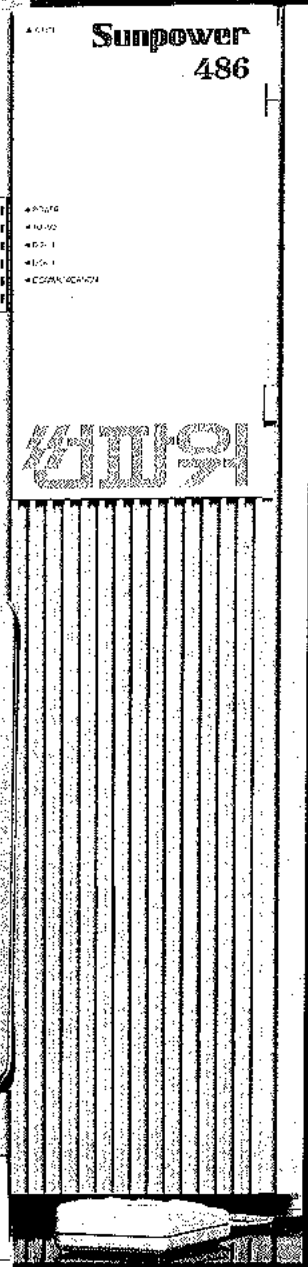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엄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
 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그래픽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범 DRAFT전용의 2D-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효율성·다양한 기술개발등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 지원분야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범 DRAFT전용 S/W, AutoCAD,
 VERSACAD, MICROCAD, Micro
 Station D/A(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등의 각종 계산용 S/W
 +기획설계 W/P(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등 문서작성용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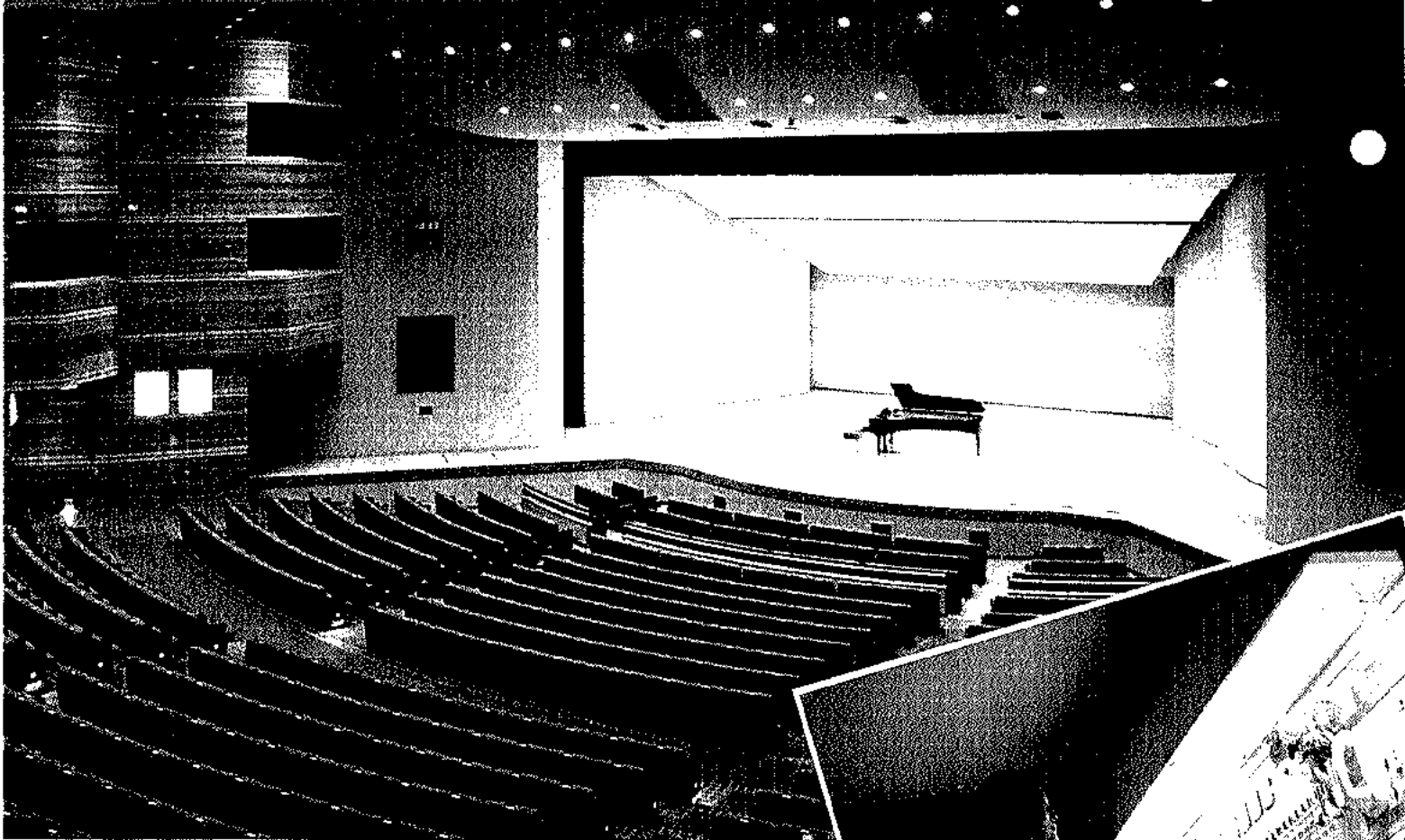
서통 AI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선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5140-386 (代) Fax: (02)545-0296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 서울 • 교육장, 진시장, A/S 센터: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 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1층
 부산 • 교육장, 진시장, A/S 센터: 중구 대창동 32-1 성림빌딩 대창캐드스
 TEL.: 464-6450
 대구 • 교육장, 진시장, A/S 센터: 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421-2856

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워커빌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기념관 ● 흥천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몽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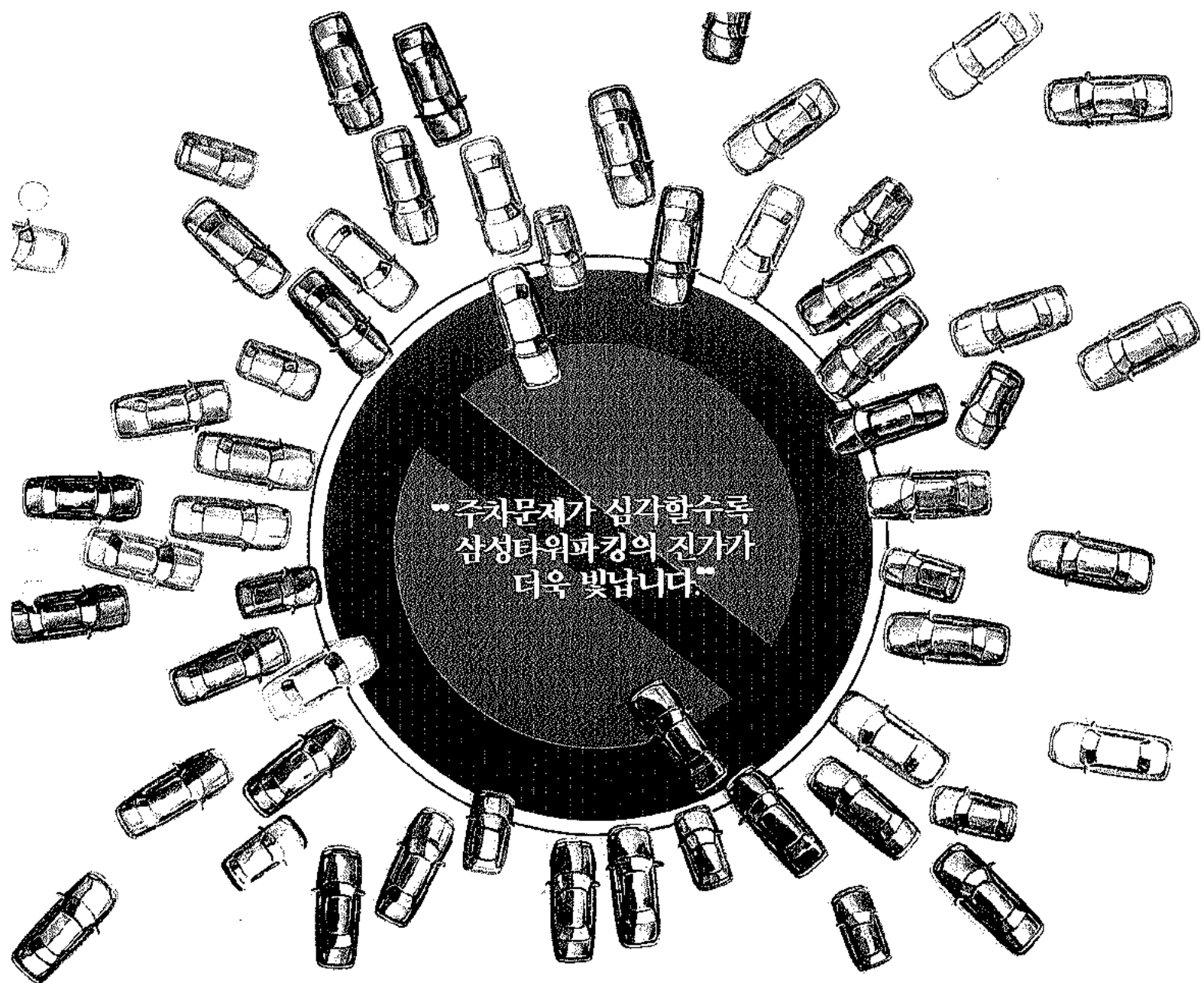
주요생산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坡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턱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중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수직순환방식 :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 (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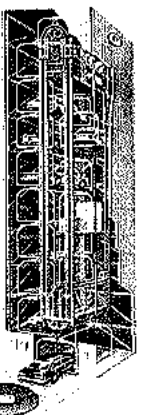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턱테이블내장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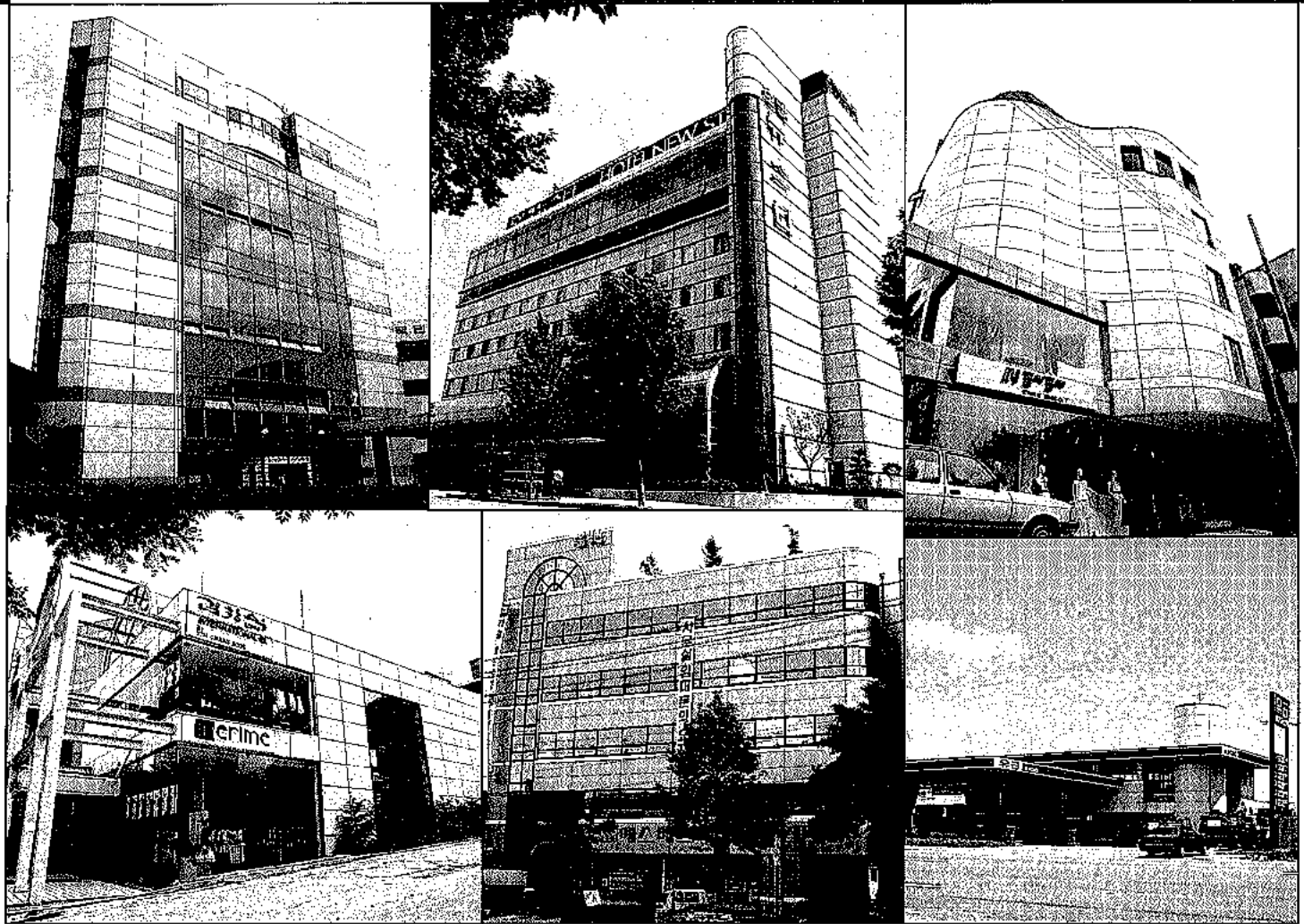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2대를 주차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흥성의 꿈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창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

— ARCHITECTS (아키텍스) /

아키텍스란?

알루미늄판, 아연도철판, 동합판 등 각종 금속판(0.1mm~0.5mm)을 양면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께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줄으로써 금속합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차음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합판의 건축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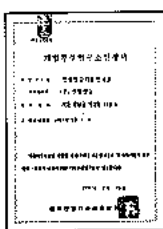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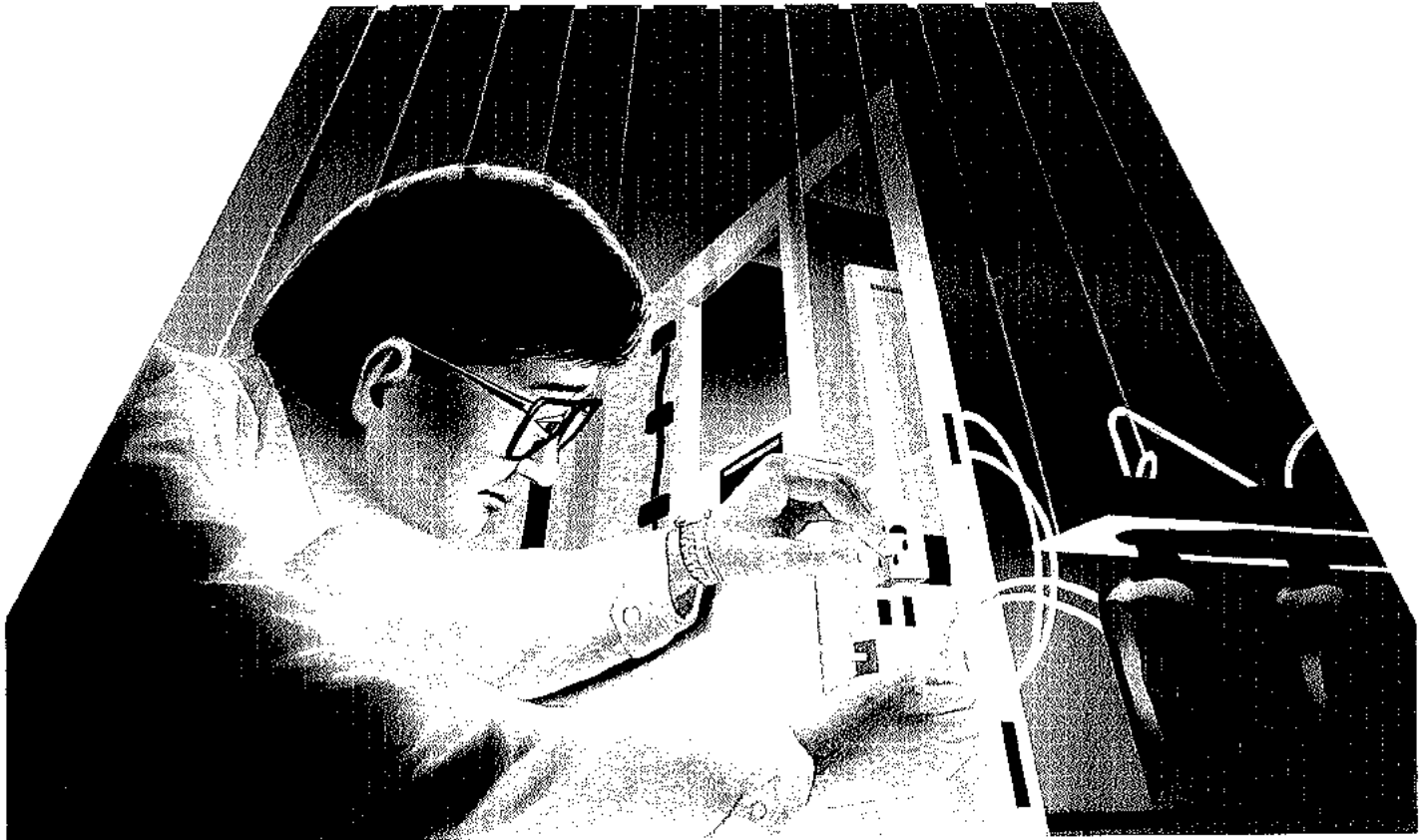
홍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화회관 1층 TEL. (02) 562-1264, 568-3474 ~ 6, FAX. (02) 566-0856



첨단 건축자재의 개발을 위해
파넬업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연합인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911001호

**보다 효율적인 건축을 위해, 보다 완벽한 공간
창조를 위해, 연합인슈는 늘 앞서갑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1983년 설립 이래, 줄곧
파넬업계를 선도해온 연합인슈 —
연합인슈는 업계 최초의 KS마크 획득과 기업공개에 이어
또다시 파넬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소재의 개발과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 첨단건축문화를
열어가는 연합인슈 기술연구소 —
보다 효율적인 건축을 위해, 보다 완벽한 공간창조를 위해,
연합인슈는 늘 앞서갑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02) 745-0687, (0336) 32-4635-6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부산사무소: TEL: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TEL: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TEL: (062) 524-9779, 527-7144



가장 막강한 건축전용 CAD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건축설계에 직결한 CAD를 찾지못해 고민하십니까?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막강한 건축 전용 CAD 시스템입니다.

■ 더이상 반복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 ARRIS는 도면작성시 반복되는 창문, 문, 벽체, 화장실, 계단 등을 쉽게 작성하도록 해줍니다.
- ARRIS는 사람, 자동차, 나무 등 디자인에 필요한 심볼들을 제공합니다.
- ARRIS는 평면작업이후 자동으로 입면도를 작성하도록 해줍니다.
- ARRIS는 PLOTTING하면서 동시에 다른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MULTI-USER, MULTI-TASK 용 CAD 시스템입니다.
- ARRIS는 프로그램의 SOURCE CODE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의 ALTERNATIVE 를 제공합니다.

- ARRIS는 강력한 수정 EDITING 기능이 있어 도면 변경 및 대안설계가 용이합니다.
- 완벽한 3-D와 풍부한 COLOR 1,670 만가지 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외부 투시도 및 조감도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무수히 많은 대안을 창출합니다.
- 각 시간대 별로의 그림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일조권 검토가 용이합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ARRIS 전문회사입니다.

■ ARRIS만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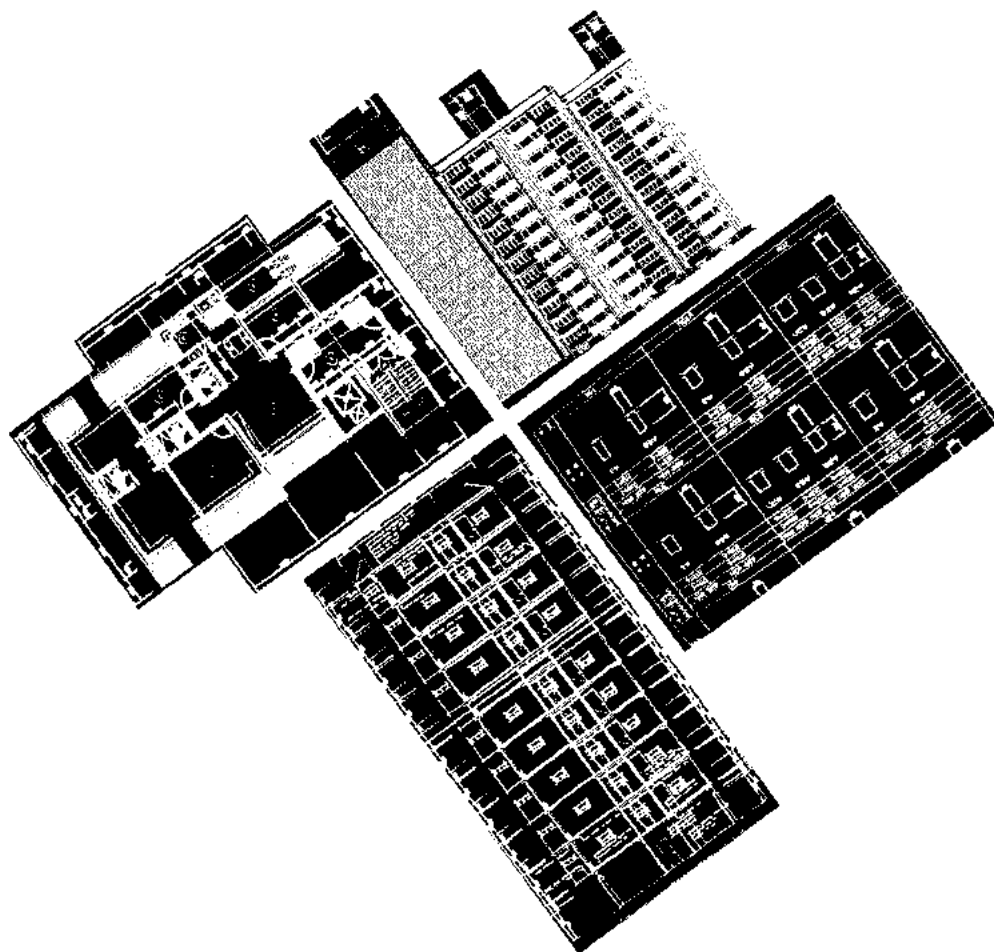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1988 년 ARRIS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ARRIS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ARRIS 전문회사입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의 기술수준은 ARRIS개발사인 미국 SIGMA DESIGN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 ARRIS사용중에 겪는 각종 어려움을 건축을 전공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국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더욱 사용하기 편한 ARRIS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ARRIS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ARRIS에 의한 설계도면용역도 취급합니다.
건축설계도면, 투시도,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 ARRIS에 숙달된 사용자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LEVEL의 ARRIS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교육 및 전문가 초청교육, 세미나도 실시합니다.

■ 고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구매방법은 고객의 선택이지 저희의 선택이 아닙니다.
-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선택할 때에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합니다.
- 고객의 사용 용도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RRIS MODULE 및 3RD PARTY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도록 추천하여 드립니다.
-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로 즉시 ARRI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CAD 시스템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할부, 리스 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WORKSTATION에서 ARRIS를 운용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PC의 경우보다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ARRIS를 운용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막강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ARRIS에 관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ARRIS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 무료로 ARRIS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시면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F)

TEL: (02) 536-4057 ~ 9

FAX: (02) 599-4030

차례/1991년 4월호 통권 제264호

會員作品	제주 파인프라자 / 韓在源	14
	올림픽 유스호스텔 / 金錫澈	17
	INSERT / 韓仁喆	20
	대전 대흥침례교회 / 崔東奎	22
	제주 신라 리조트 / 朴昇	25
	서울대 호암생활관 / 金昌壽	28
	순천 Y씨 주택 / 韓瑬洙	30
나의 스케치	修業時節 / 黃寅秀	32
읽히며 생각하며	실상을 고백하며 / 洪文裕	34
주요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 趙仁淑	35
	한국의 전통건축(33)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40
	앙뜨완느 그롬박의 뽀와띠에 지방청사 / 朴賢燦	48
	建築構造物 스파의 長大化 / 金鍾洛+李鶴洙	54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7) / 裴元泰	72
	인텔리전트빌딩 설계에 관한 一般事項(1) / 設備分科委員會	76
설계경기	송두시민화관 현상설계경기	61
	당선작 / 라인·한도건축(송이호+안기석)案	62
	우수작 / 상지건축(김동희)案	66
	우수작 / 태양·진일·청건축(김중섭)案	69
資料	법령상식	84
	1991년 2월분 도서신고현황	86
會員動態		85
新入會員		88
協會消息		91
'91各委員會 委員名單		96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 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珪/洗文精版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b, Chun-Ski/Kang, Chul-Koo/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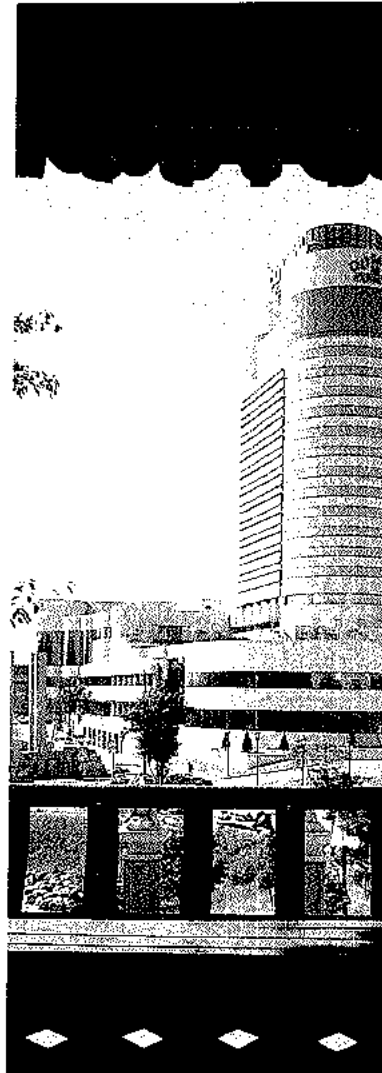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Kwangmoon Printing Co.)

建築士

金昌壽作「서울대 호암생활관」

WORKS	<i>Cheju Fine Plaza / Han, Jae-Won</i>	14
	<i>Olympic Youthhostel / Kim, Suk-Chul</i>	17
	<i>INSERT / Kim, In-Chul</i>	20
	<i>Daeheung Baptist Church / Choi, Dong-Kyu</i>	22
	<i>Cheju Shilla Resort / Park, Seung</i>	25
	<i>Hoam Existence Hall, Seoul Natl. Univ. / Kim, Chang-Soo</i>	28
	<i>Sooncheon Y's Residence / Han, Jin-Su</i>	30
SKETCH	<i>Pursuit of Knowledge Days / Whang, In-Soo</i>	32
ESSAY	<i>Declaration of Actual Circumstances / Hong, Moon-You</i>	34
REPORT	<i>Building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 Cho, In-Souk</i>	36
	<i>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i>	40
	<i>Antoine Grumbach's Hôtel de Région, Poitiers / Park, Hyun-Chan</i>	48
	<i>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ilding Structures / Kim, Jong-Rak & Lee, Hark-Soo</i>	54
	<i>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e, Won-Tae</i>	72
	<i>A Basic Study for Intelligent Building</i>	76
COMPETITION / Chungmu City Residency Hall		61
MATERIALS		84
NEWLY ADMITTED MEMBER		88
KIRA NEWS		91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심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8-56, 561-5715-8 ·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63-25, 333-6411 ·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소/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소/종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소/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90 ·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976 ·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중랑구면목동106-46, 436-0687 · 성북분소/성북구상선5가10, 923-4401 ·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광동1가(부산대페트네)(051)246-6284-7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8, (053)753-8990-5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36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254-2441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24-5, (0331)47-6129-31 · 직할분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8, (0331)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안양6동523-5, (0343)49-2698 ·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정부동182, (0351)2-1082 ·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소/고양구원당읍주교리38블럭16롯데, (0344)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송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8-5, (0361)54-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1)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 속초분소/속초시동명동466-33, (0392)333-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 (0397)12-3105 ·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00-12, (0372)43-2895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소/제천시서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33-3502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련리239-1, (0431)32-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12-2271 · 대천분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서노동588-116(전원빌딩6층), (0652)87-6007,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1, (0653)352-3796 · 군산분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59 · 남원분소/남원시하경동106-2, (0671)31-1000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진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소/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 순천분소/순천시장전동51-11(0661)3-2457 ·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52)64-7023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영인동1가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43-22, (0542)44-6029 ·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42-2(0561)3-3638 ·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12-2541 · 영주분소/영주시유천2동642-52, (0572)33-7504 · 칠촌분소/칠촌시중앙동280-3, (0581)12-2706 ·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12-43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3-47, (0551)46-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52)74-8836 ·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통영분소/통영시서호동163-18, (0557)43-3577 ·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4B-10L, (0525)2-6114 · 밀양분소/밀양시삼문동184-108, (0527)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12-7090 ·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나방리522-4, (0523)84-3050 ·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천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공동91-6(0593)33-9779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32-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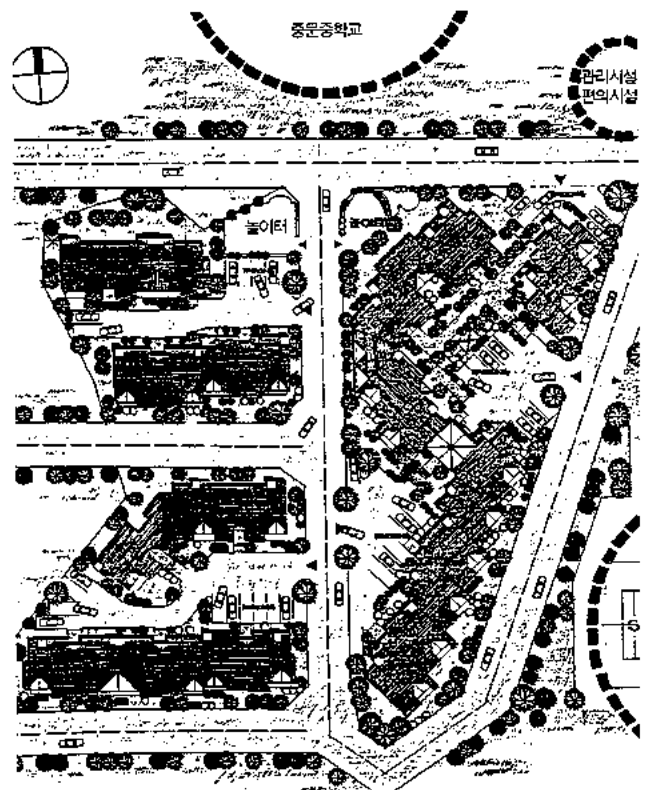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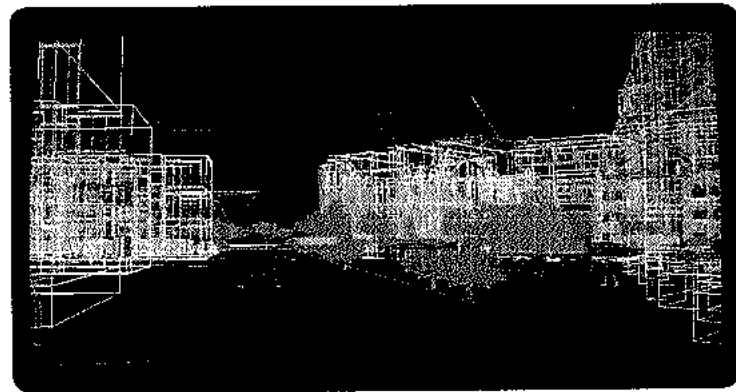
제주 파인 프라자

Cheju Fine Plaza



대지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424
지역·지구/주거지역
대지면적/8,097.9㎡
건축면적/2,933.6㎡
연면적/8,778.7㎡ 주거-8,564.3㎡
관리-214.4㎡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36.2%
용적률/100.4%
세대수/94세대



韓在源/종합건축사사무소 한·태림건축
Designed by Han, Ja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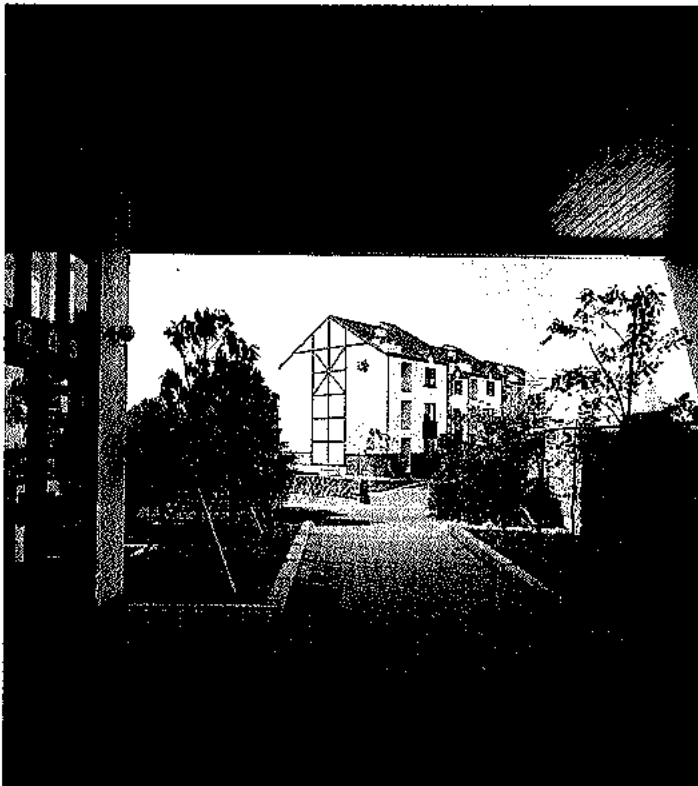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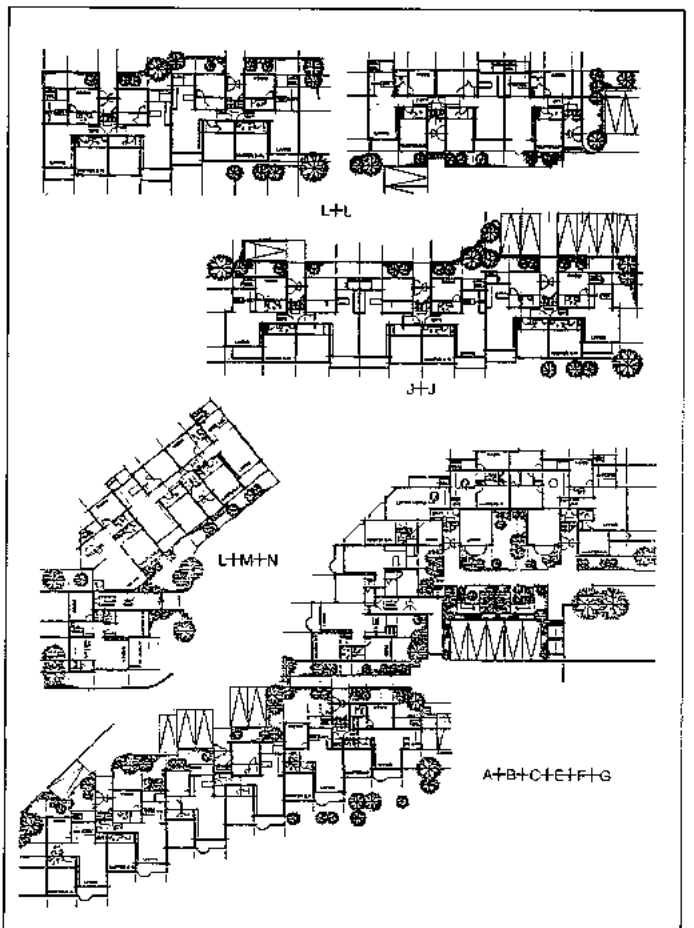
- | | | |
|------------|----------------|-----------|
| ① 전경 | ⑤ 연결통로측에서 본 정경 | ⑧ 외부상세 |
| ② CAD구조 도면 | ⑥ 북동측 전경 | ⑨ 내부가실 |
| ③ 배치도 | ⑦ 클러스터 평면 | ⑩ 중앙광장측정경 |
| ④ 단지내 통로 | ⑧ 주진입로에서 본 정경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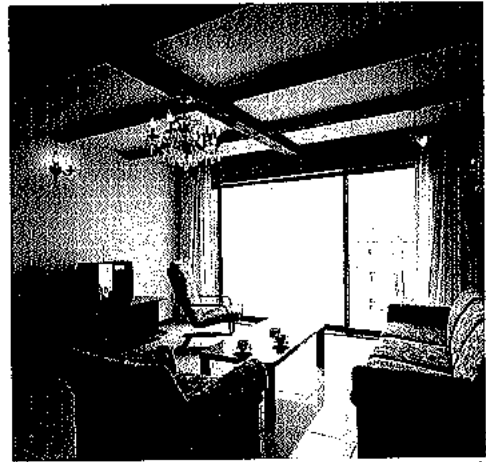
6



7



8



10



9



11

■ 설계소묘/바다가 바다 보이는 풍경

아침에 눈을 뜨면 창을 통해 저 멀리 바다가 바다 보이고 눈을 돌리면 굴밭으로 이루어진 푸른 숲이 보인다.

“길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는 벽과 회색지붕……”

“하늘과 바다가 보이는 삶의 안식처”

환경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이 집합주택을 설계할 때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였다.

휴양지나 관광지에 필적하는 이 단지에 설계하는 집합주택은 과연 어떤 분위기와 모양새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일반적인 집합주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도심 속의 토지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요구에서 출발한 형식이다. 도심지에 있어 지가 급등과 토지의 희소화에 의해 각 주거에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계획되어왔던 이 주거 형식은 최근에 약간씩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거의 고정화 되다시피한 틀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토지의 여유를 생각할 수 있는 전원이나 바닷가에 위치한 집합주택은 그 틀을 깨뜨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원이나 바닷가에서의 삶 자체가 도심지의 규격화된 틀과는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므로……, 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 이 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다. 비록, 그 형식이 집합주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집합주택도 공동체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각 주호에 변화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치에 있어 수직성을 고려한 인동 간격 위주의 배치 형식에서 탈피하여, 살내에서의 전망을 고려한 향의 배려와 공동체라는 집합주택의 형식을 설계화 시키면서 외부 공간을 둘러 쌓인 광장 형식으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클러스터 형을 기본으로 하여 배치하였다.

클러스터 형 배치의 중심 시설로서 중앙 광장 지하에 모뉴먼트 형 볼라이트로 채광된 지하의 만남의 장을 설치하여 입주자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의 만남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즉,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와 공동체로서의 삶을 촉진시키는 커뮤니티라는 집합주택의 양면적 성격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집합주택에서 이런 변화있는 배치나 평면 형식을 고집한 결과, 배치에 있어 주호의 감소, 30여개 이상의 평면형에 의한 공사비 상승, 설계 작업량의 과다 등, 건축주·시공자·건축사 모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케 했지만, 3자 모두가 새롭게 시도하는 집합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손실을 감수하였으며 설계자인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지형을 고려한 변화있는 형을 의도하면서도 개체적인 주호의 형에 있어서는 굳이 더기 없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형을 취하여 제주도라는, 국내에서는 이국적 이미지가 연상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올림픽 유스호스텔

Olympic Youthhostel



대지위치/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지역·지구/자연녹지, 운동장

대지면적/55,3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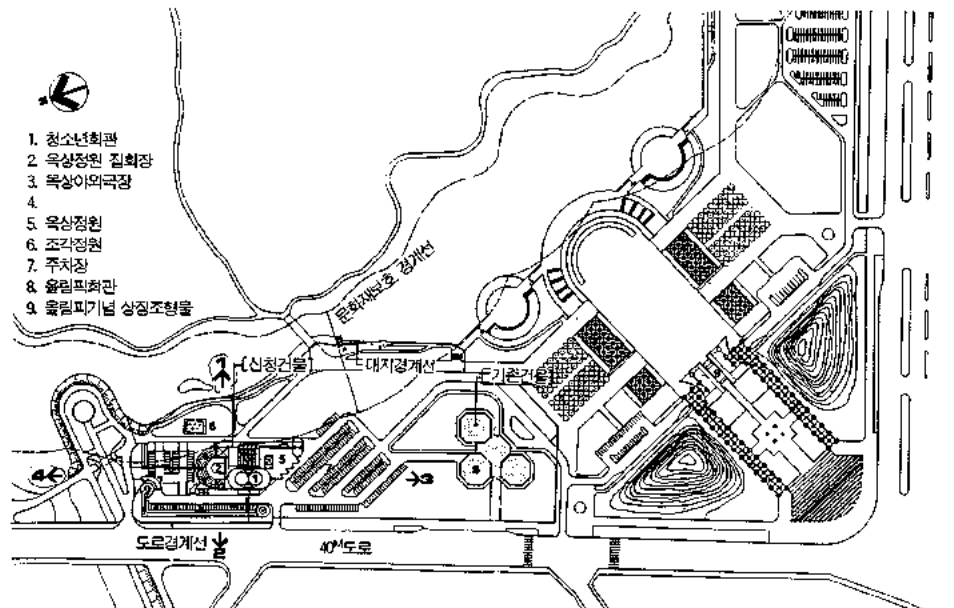
건축면적/기존(A동)-2,446.09㎡

증축부분(B동)-3,867.63㎡

건폐율/11.39%

용적률/5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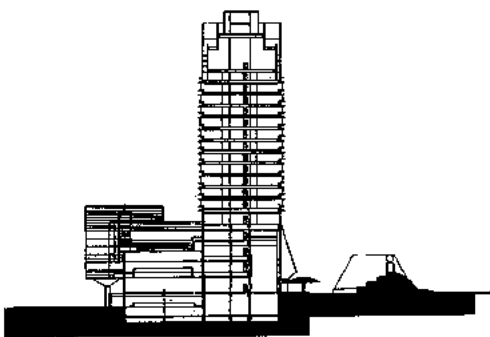
구조/철근콘크리트조



金錫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uk-Chul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단면도
- ④ 진입로측 전경
- ⑤ 1층로비
- ⑥ 기준층 평면도
- ⑦ 1층평면도
- ⑧ 동촌토성측 정자에서 본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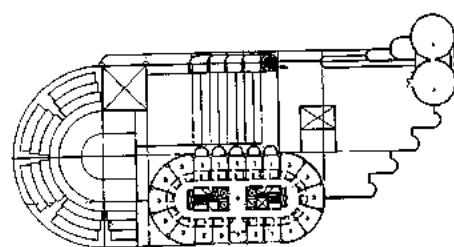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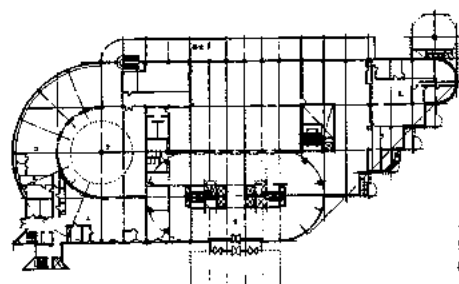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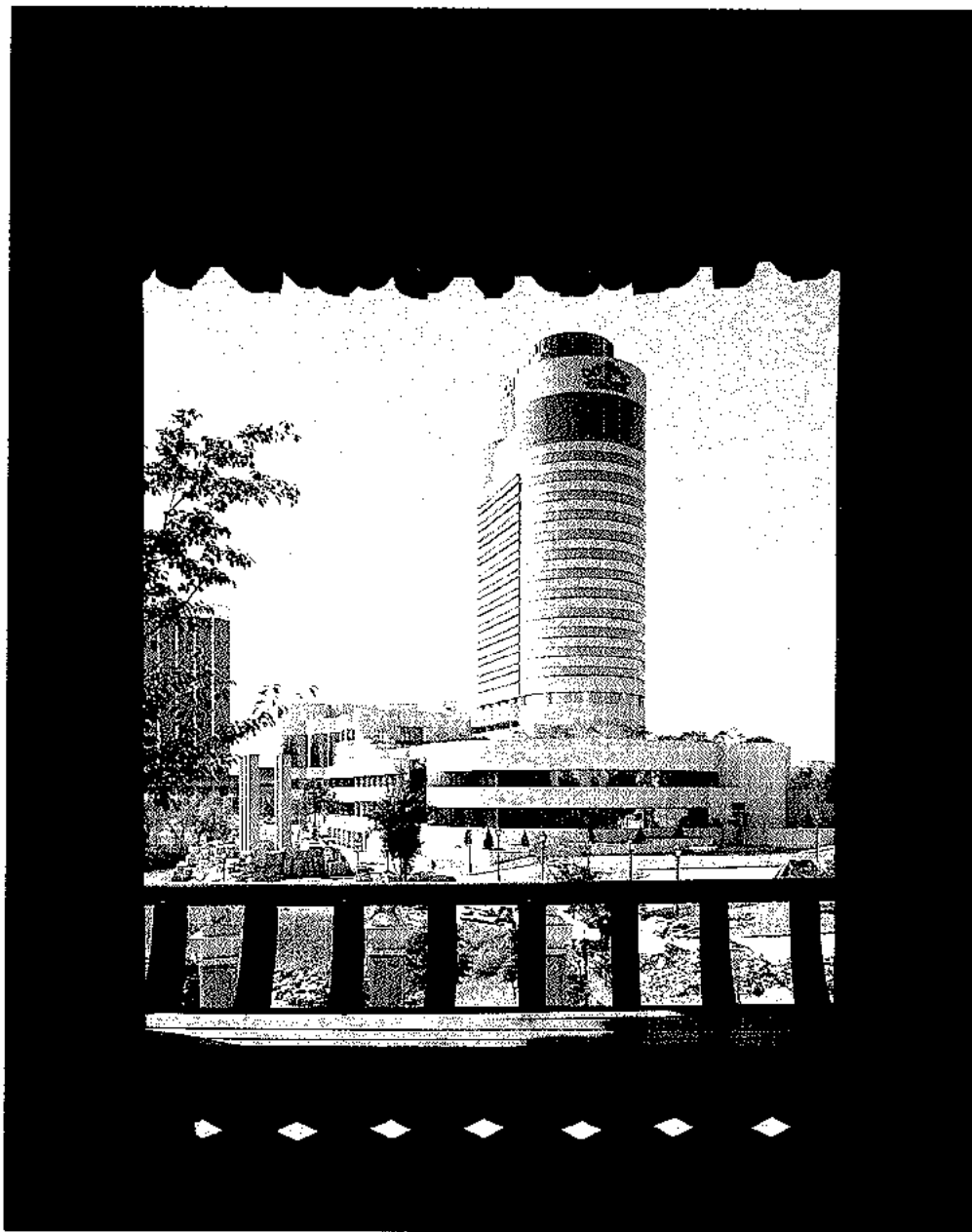
1. 2인객실
2. 4인객실(A형)
3. 4인객실(B형)
4. 홀 및 복도
5. 취사 및 세탁실
6. 화장고

⑥



1. 대회의실
2. 대식당
3. 식당
4. 주방
5. 로비
6. 백오피스

⑦



■ 설계소요

올림픽유스호스텔에 사용된 곡선은 원래 몽촌토성을 축보로 한 올림픽 공원의 것이며 다위는 수평적인 공원에 대한 수직적 요소로서의 랜드마크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의 형태적구조라 할 수 있는 곡선들은 88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몽촌토성이 가진 본래적인 것에로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위를 가운인 건축적 방법은 이 토성의 시각적 특질과 가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설정하기 위하여 저층부를 최대한 지하에 수용하고 측면이 없는 고층부의 볼륨을 최소화 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한 원리는 내부에서 외부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이라이즈의 측면개방을 통한 부채꼴 객실의 도입이다.(부채꼴 객실의 창문 길이는 같은 면적의 네모진 방보다 1.5배 더 길다) 또한 이 집의 도입부인 로비의 공간적 처리가 호텔과 다르게 객실부인 하이라이즈가 전면으로 옮겨져 있다.(호텔의 경우는 뒤로 물러나 구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처리는 유스호스텔이 갖는 특질로써 이원화된 동적 흐름의 시스템으로 로비의 출입문 및 이용을 평가절하하고 불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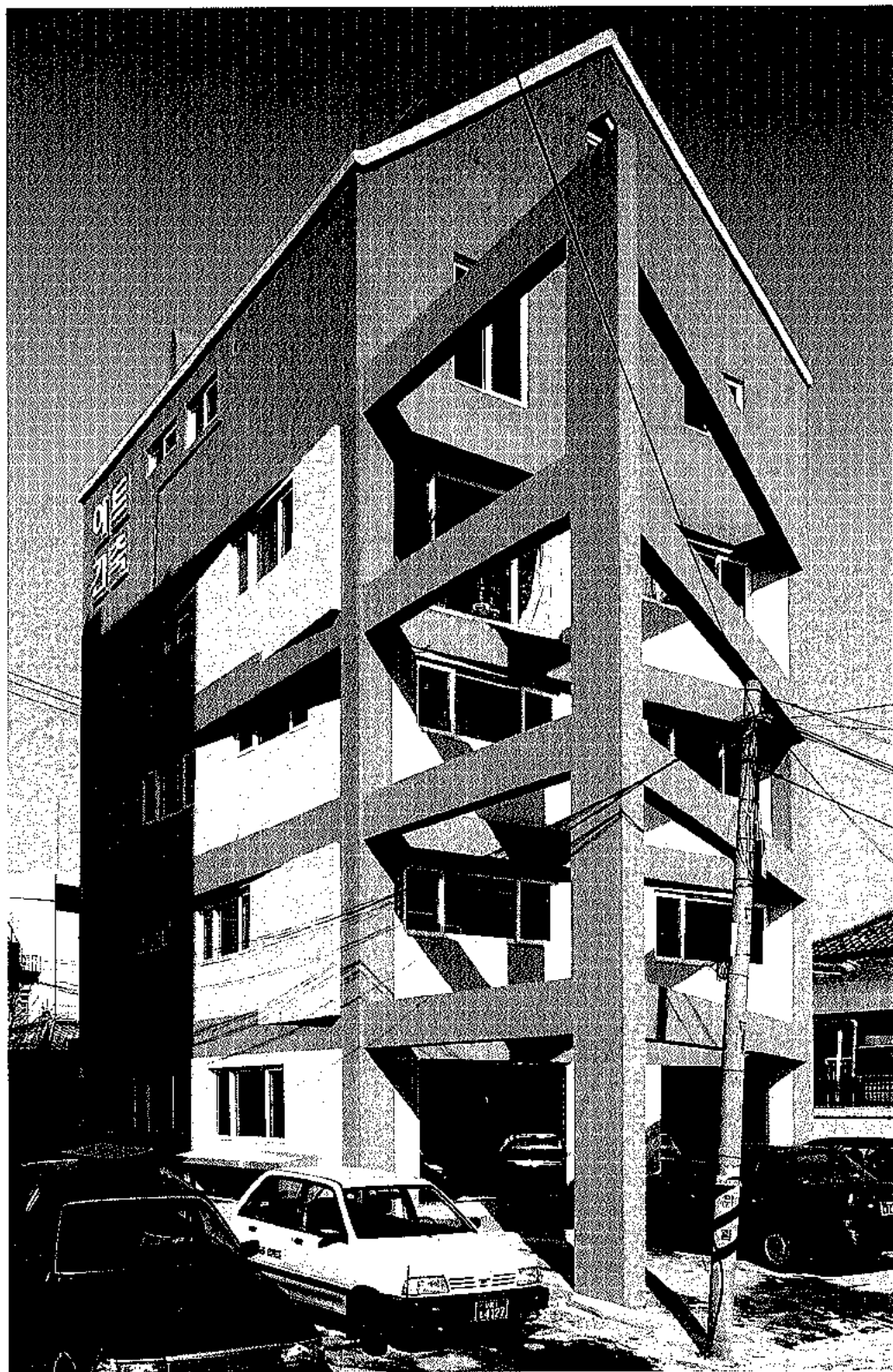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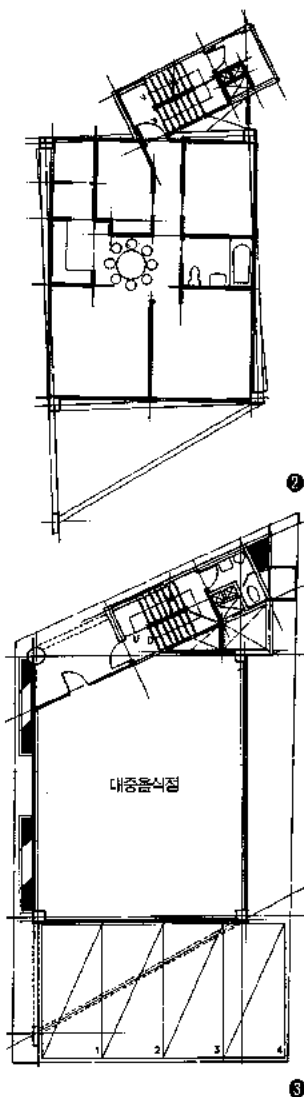
인테리어가 요구되는 로비의 장식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왜냐하면 이용객의 주류는 단체이며 이 단체이용객은 별도의 측면 출입구와 옥외주차장, 프론트 데스크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정작으로 갖는 관심은 이 집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이다. 유스호스텔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만큼 국제적인 조직망과 레귤레이션이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분야·규모 면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규모와 질도 걸맞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올림픽 유스호스텔은 이런 추세를 수용한 규모(객실257실, 1163베드)로서 스포츠 경기단, 해외 여행단 등이 이용할 것이다. 젊은이의 시설은 그 신선함과 젊음만으로도 즐겁고 활기에 찬 공간을 창출하는 인테리어적 요소이다.

이런 여러가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유스호스텔이라는 관념의 틀에서 볼 때 고급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또는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어른들이 이용하는 호텔의 즉물적인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시설은 오히려 청소년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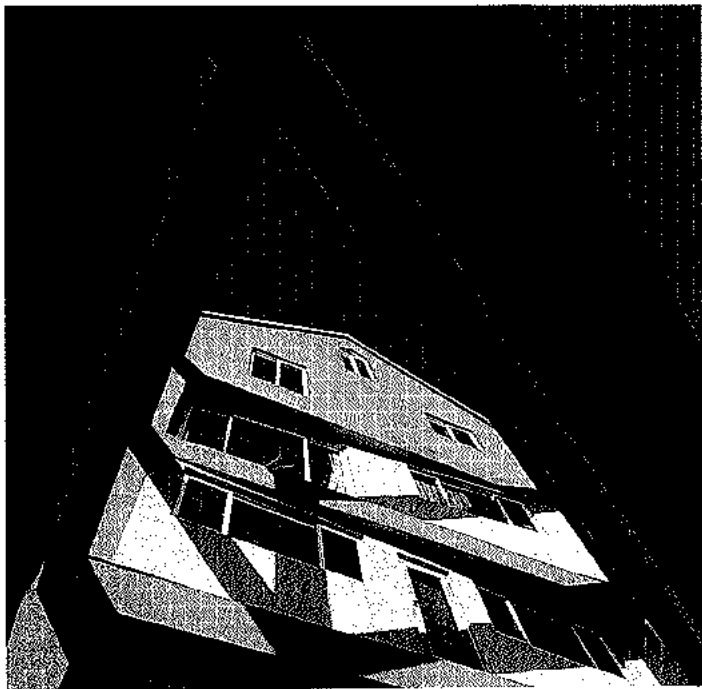
INSERT

대지위치/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8-3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229.8㎡
건축면적/114.72㎡
연면적/666.04㎡
건폐율/49.94%
용적률/23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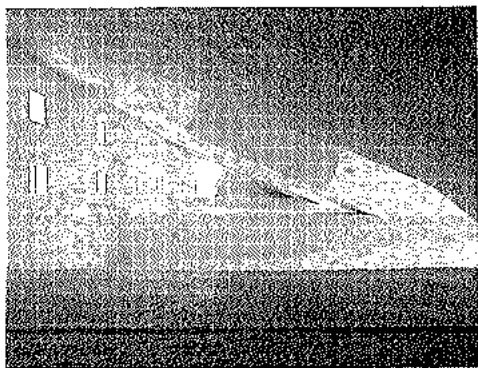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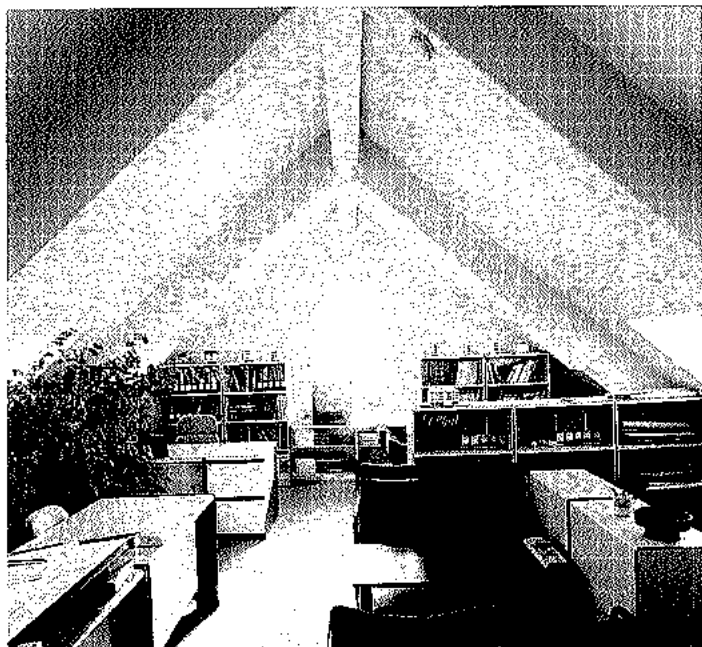
- ① 전면도로에서 본 전경
- ② 4층평면도
- ③ 1층평면도
- ④ 외벽상세
- ⑤ 올려다본 open공간
- ⑥ 사무실 전경
- ⑦ 전경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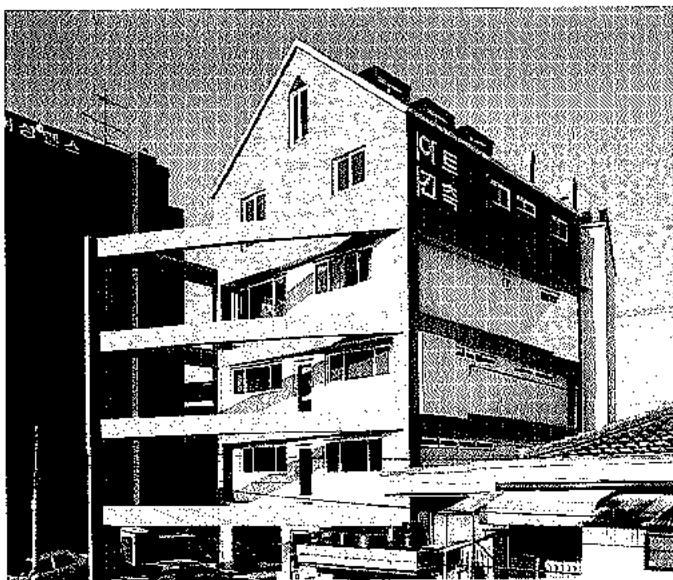
6

■설계소요

SOLSTICE에서 생각했던 틀과 공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았다. 공간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방법으로서의 레일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평면적인 격자로부터 시작되어 입체적인 격자들의 형태로 판결된다.

콘크리트의 가구조에 의해 이미 완성된 공간의 구조 속에서 벽이 이루는 공간의 구획은 자유스러울 수 있다. 구조적인 제약과 형태와의 관련에서 놓여진 공간의 형식은 기능에 충실한 순수한 모양으로 나타낸다. 바닥 천장과 사방의 벽으로 이루어진 육면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해진다. 틀속에 끼워넣어진 공간은 아무런 장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방수와 단열이 해결되는 최소의 두께만으로 이루어진 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상자는 격자홀의 각 지점과 분리된 상태로 삽입되어진다.



7

각각의 상자가 각기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삽입되어진 과정을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다.

후면에 빗대어 끼워진 수직적 상자는 서비스의 기능을 갖는다. 계단과 화장실의 공간으로서 가로 방향성에 충실한 채로 연결되어 본체와는 애매한 틈을 만든다.

처음의 생각으로는 이 사잇공간을 빛으로 채우려 했지만 주변의 여건 때문에 유리볼록을 끼워 스며드는 애처로운 광선만 있게 되었다.

전면의 채워지지 않은 삼각의 프레임과 채워진 프레임의 본체와 노출된 상자와는 의도된 연결고리를 굳이 만들려하지 않았다.

주어진 조건을 임의로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 하였다.

앞에서부터 뒤를 보거나, 뒤에서 앞을 보거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보더라도 관계가 없는, 순서와는 무관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본 것이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Daeheung Baptist Church

대지위치/대전시 중구 오류동

대지면적/4,5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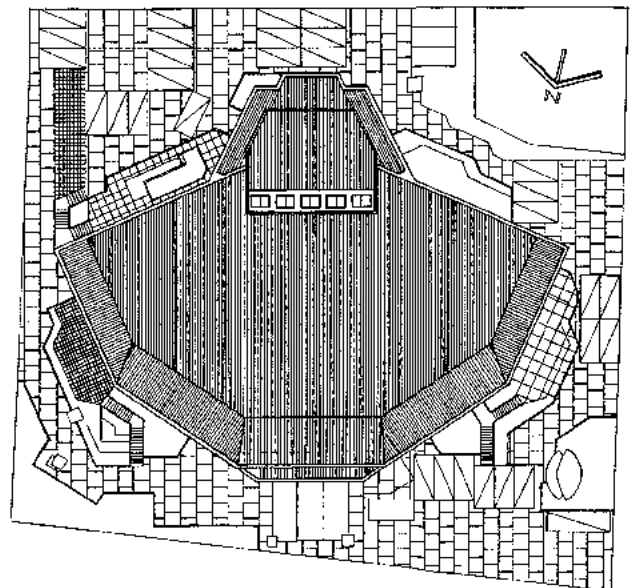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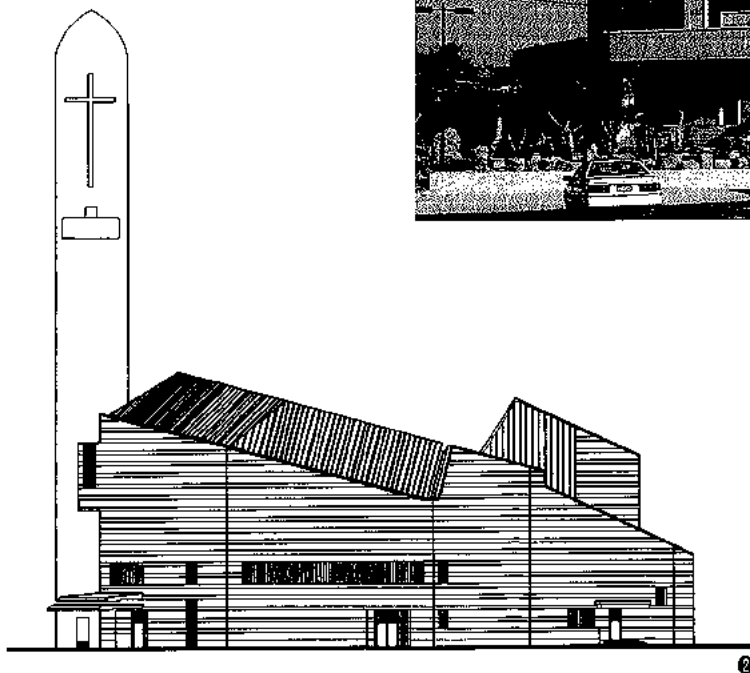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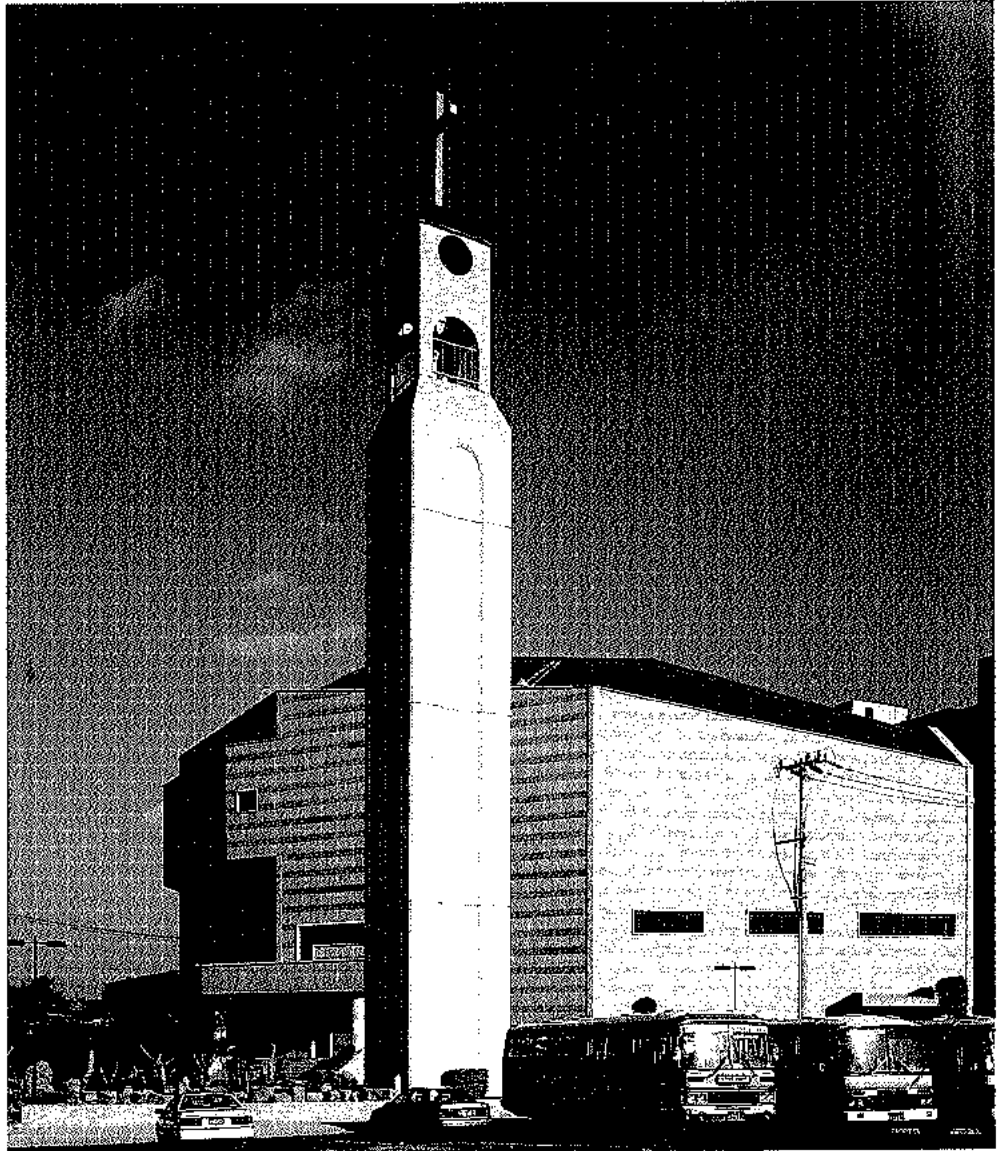
연면적/6,854.04㎡

건축면적/2,06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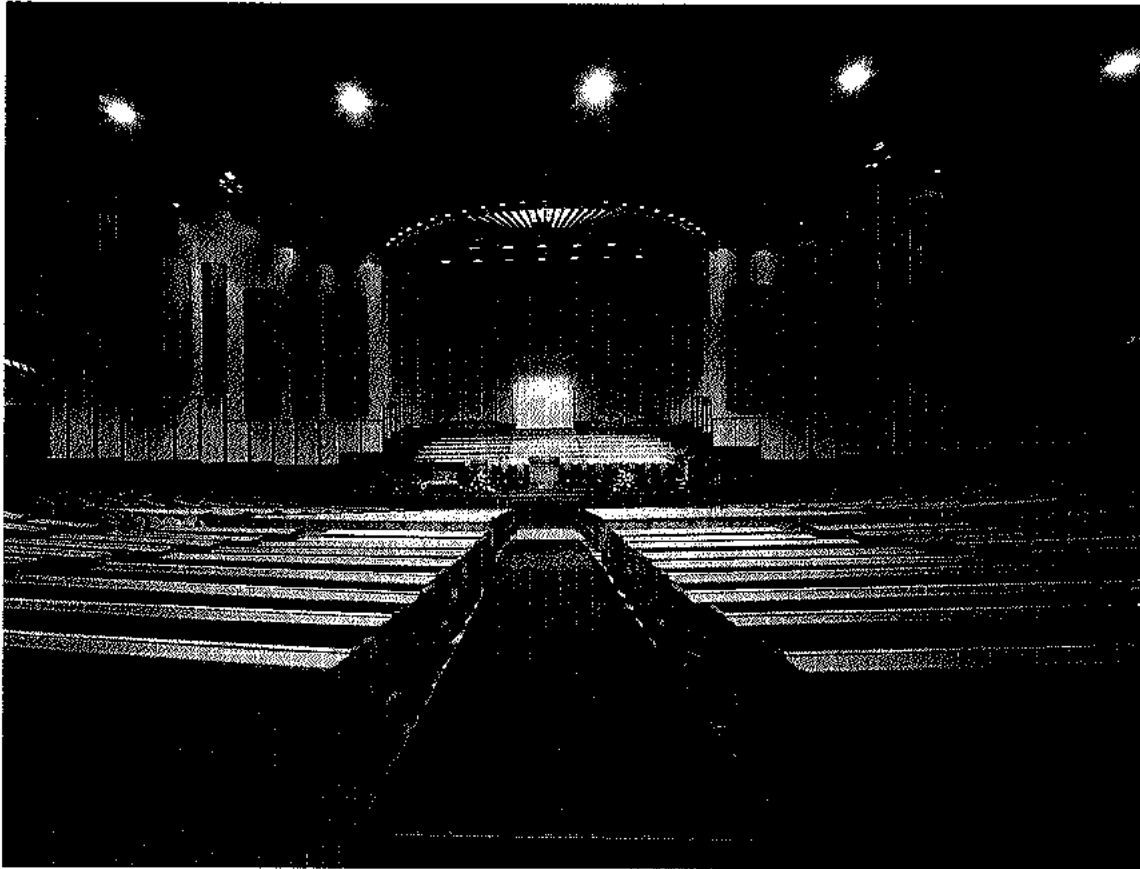
건폐율/45.5%

용적률/76.6%

주차대수/35대



崔東奎/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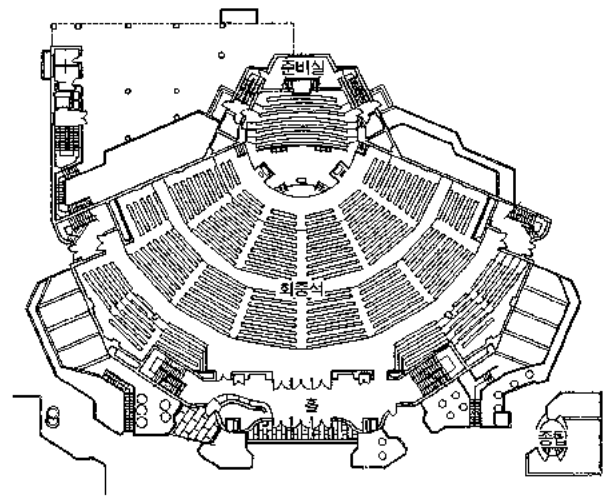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측면도
- ③ 배치도
- ④ 회중석에서본 제대정경
- ⑤ 주축입구측 정경
- ⑥ 1층평면도
- ⑦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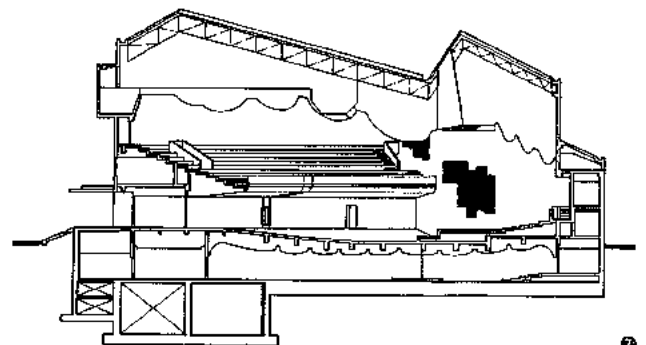
①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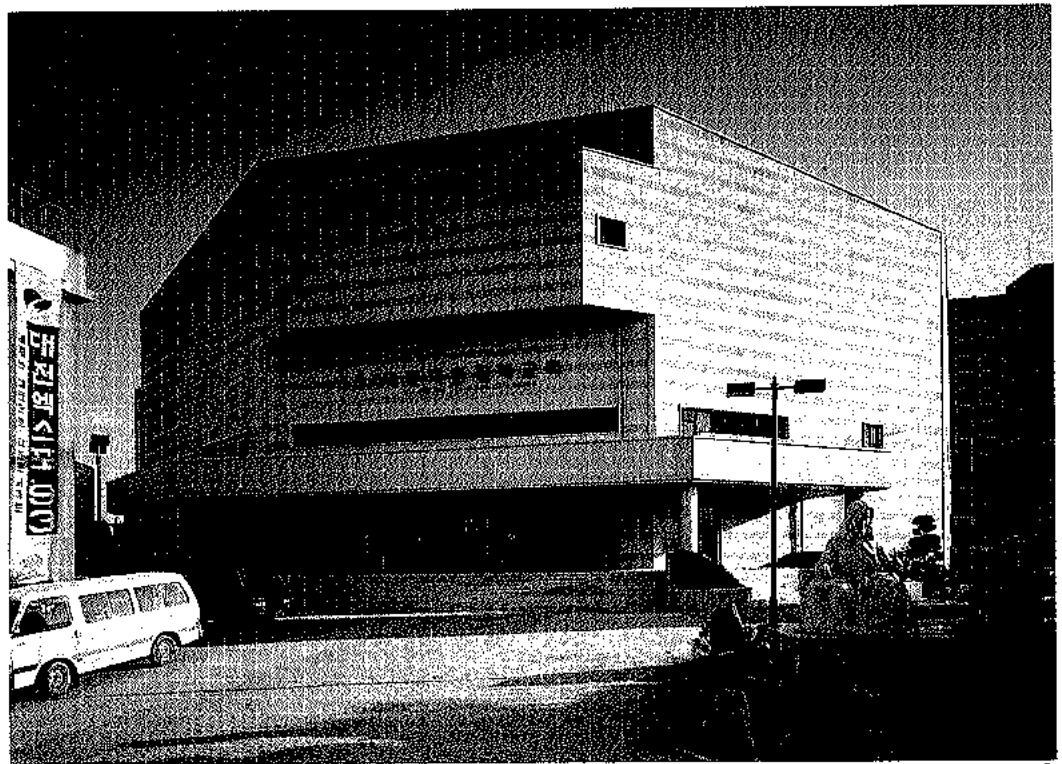


⑥



⑦

- ⑥ 정면전경
- ⑨ 내부전경
- ⑩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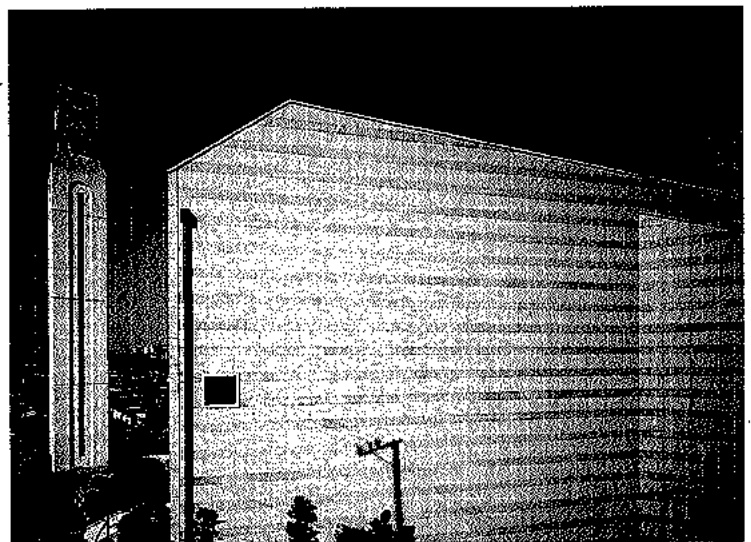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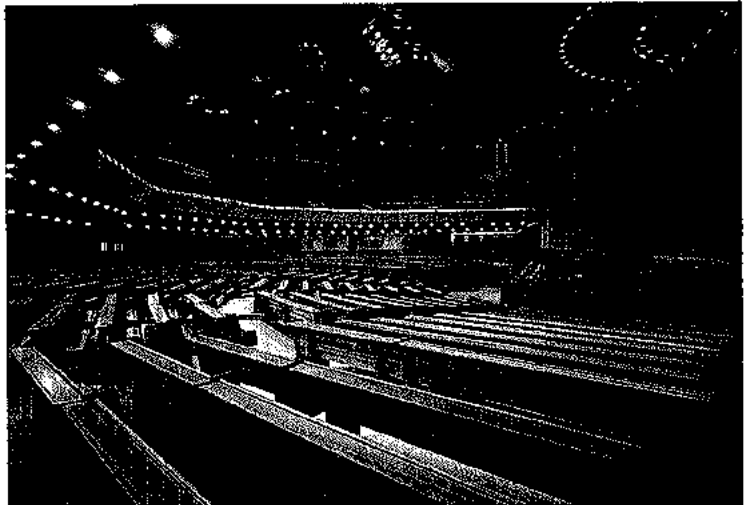
■ 설계소묘

1989년 4월에 착공된지 벌써 2년여가 되어가는 시점이며 또한 준공까지 끝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설계 개요의 형태를 빌어 말하자니 감회가 깊다. 설계 당시의 예산은 16억원이 최대였고 연면적이 1,500평정도였으니 평당 공사비는 100만원 남짓하였다. 그러나 설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건평이 2,000평으로 늘어났고 설계가 끝나 견적을 의뢰하니 3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나왔다.

당연히 교회측으로부터 예산을 무시한 형편없는 설계라고 매도를 당했고 공사비를 줄이는 작업을 수없이 했으나..... 오히려 견적에 참여한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줄일 것 같으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측은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고급의 건물을 갖게 된 것이다.

계획 당시의 고려 사항을 말하자면, 우선 3,500명이나 들어가는 대공간을 교회 예배의 용도에만 맞게 설계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었다. 만약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할 경우 건물의 용도가 문제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극, 영화, 음악회 등 각종의 집회가 가능토록 설계를 한다면 건물의 생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다행히 이러한 類의 생각이 흔쾌히 받아들여지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평면 형태는 부채꼴 형식의 방사형태를 취하므로써 설교시의 회중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지하1층은 무려 800평이나 되는 Volume인데, 이곳에 결혼식 및 각종 집회를 위한 소예배실,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친교실, 식당 등의 부속기능이 수용되었다.

결국 최근에 대전 EXPO를 위한 대전시내 4~5천명 되는 통·반장회의가 이곳에서 열렸더니,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시청과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니 최초의 설계의도가 적중한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다.



제주 신라리조트

Cheju Shilla Resort



대지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섹달동 3039-3

지역·지구/유원지

대지면적/84,546㎡

건축면적/12,941㎡

연면적/45,002㎡

규모/지상 5층, 지하 2층, 객실 330실

朴 昇/(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eung



2

■ 설계소요

근래의 리조트호텔은 가족단위 또는 단체 관광객의 장기체재에 적합한 제 시설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일반적인 시티 호텔의 단순한 숙소기능 이외에도 호텔 내에서 오랜시간을 쉬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위락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리조트호텔은 입지조건 특성상 계절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계획 시점부터 다양한 상품기획과 제 시설의 기능확대를 통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제주신라호텔은 수려한 경관속에서 조용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호텔로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제주 중부관광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계획에 앞서 장래 증축을 고려한 2만 5천여평의 부지활용을 염두에 두고 기능별로 구분된 Zonning Block을 배치하되, 평면적으로 주위경관의 다양한 전망을 고려한 각 블록의 조합, 입면적으로는 주위의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블록의 조합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동시에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어 자칫 대형건물로서의 단조로운 형태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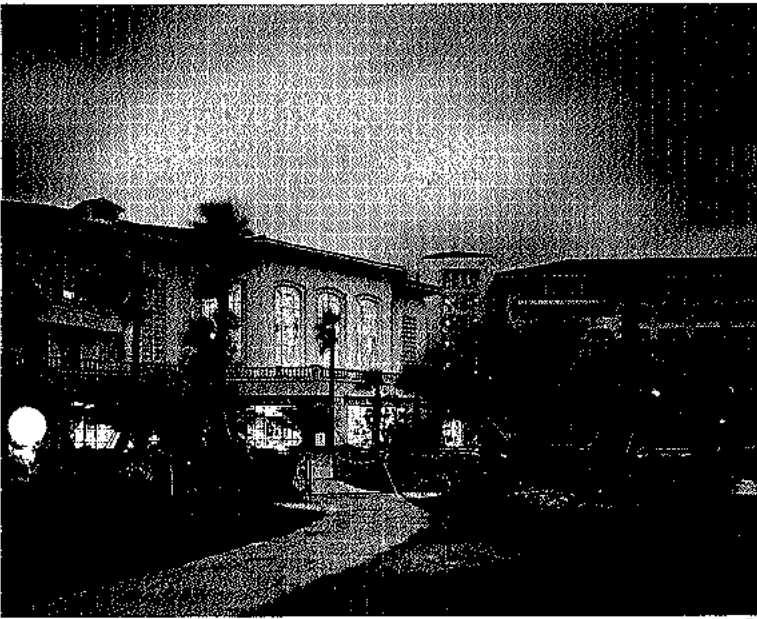
외관은 전반적인 주위환경에 조화되는 마감재료로 자연색 위주의

중간색상을 사용하고 열대식물 식재 및 제주지역 자연재료를 이용한 조경처리 등으로 리조트 호텔로의 분위기를 위한 남국풍의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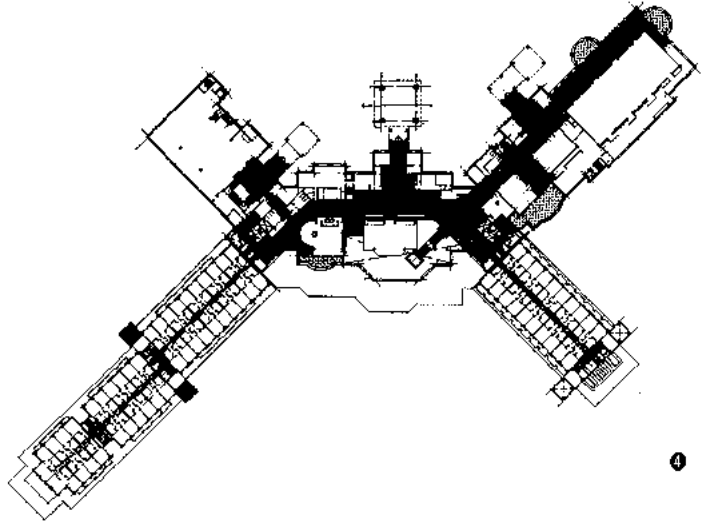
한편, 리조트 호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계획에서는 잘 정리된 몇개의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내부공간을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의도하였고 빛, 물, 나무 등의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당초 건축계획에서 추구하였던 리조트호텔의 분위기를 내부공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전개하였다.

내부공간의 마감 역시 자연소재의 재료 및 자연색에 가까운 중간색 사용으로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청초한 주거공간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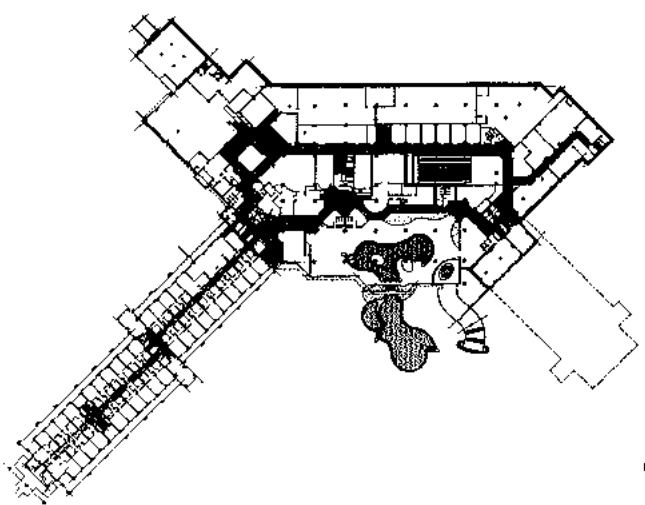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건축주의 사업계획에 따라 호텔의 성격, 수준 및 필요한 실별기능, 규모 등이 배치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어 제 시설의 독립성, 상호 연관성 등, 실별 특성이 성공적으로 계획됨으로써 건축주와 고객 및 건축가 모두의 기대수준에 상응할 수 있는 성공적인 리조트호텔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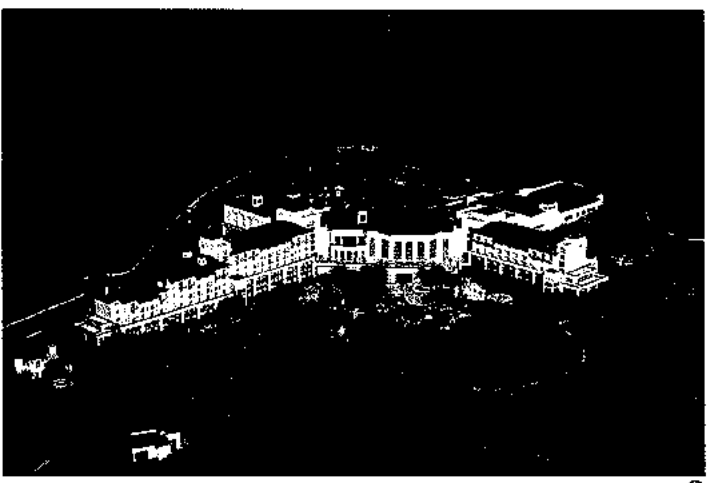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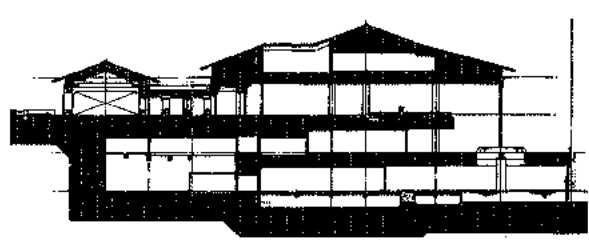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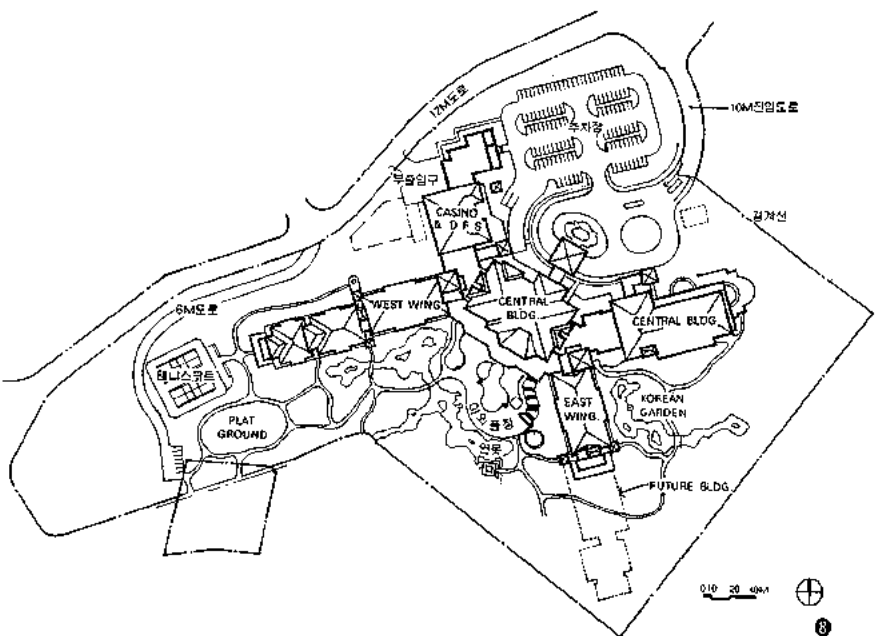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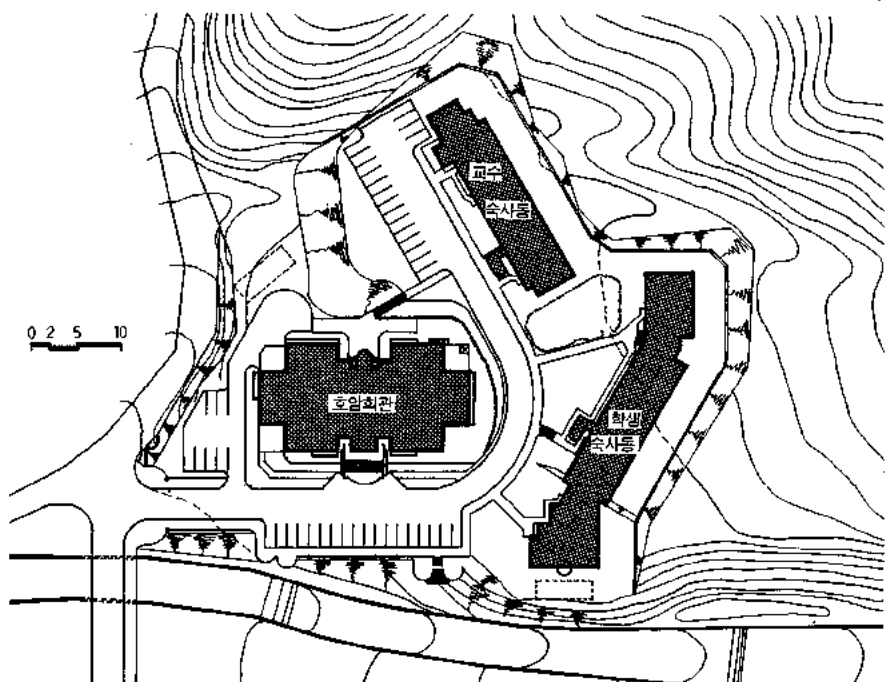
- | | |
|------------|-----------|
| 1 동측전경 | 5 지하2층평면도 |
| 2 서측전경 | 6 스테디모형 |
| 3 주진입로측 야경 | 7 단면도 |
| 4 3층평면도 | 8 배치도 |

서울대 호암생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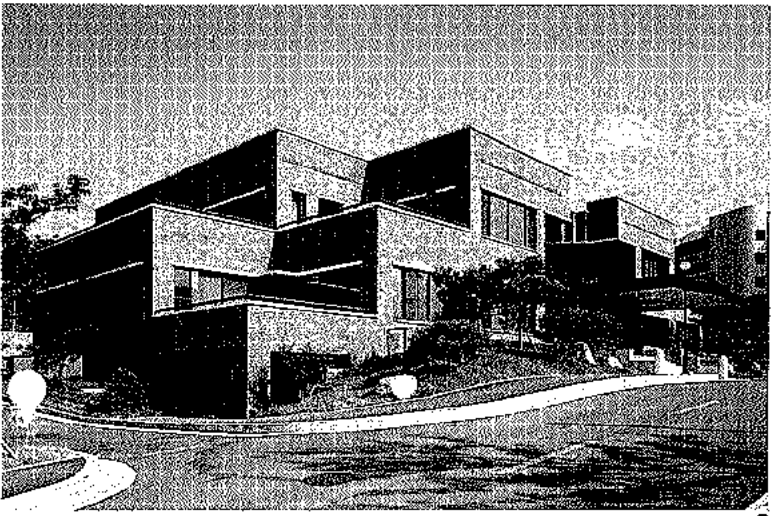
Hoam Existence Hall Seoul Natl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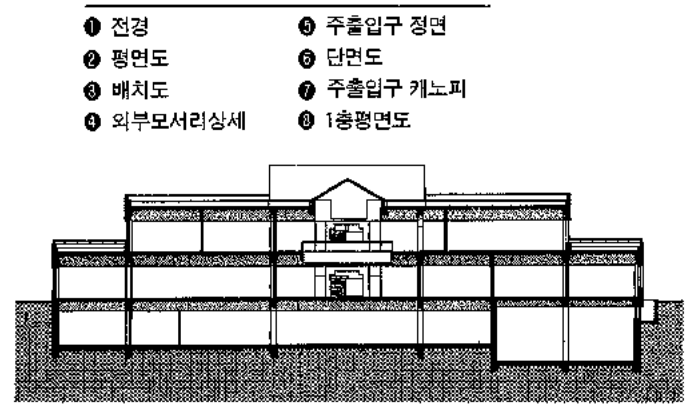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내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13,223㎡
건축면적/3,348㎡
연면적/8,883㎡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적벽돌 치상쌓기
규모/회관-지상 2층, 지하1층
 숙소-지상 5층



金昌壽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Soo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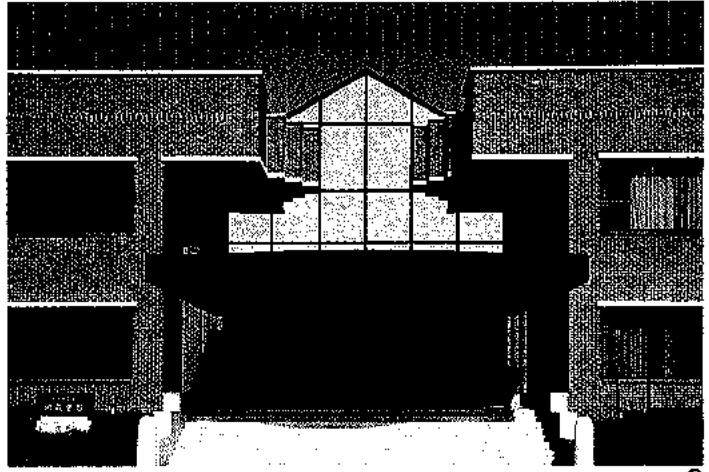
설계소묘

서울대內 후문쪽에 위치한 호암생활관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캠퍼스내 대학원생 및 교수용의 부족한 주거시설과 방문 외국인의 숙박시설 및 각종회의, 업무, 휴게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가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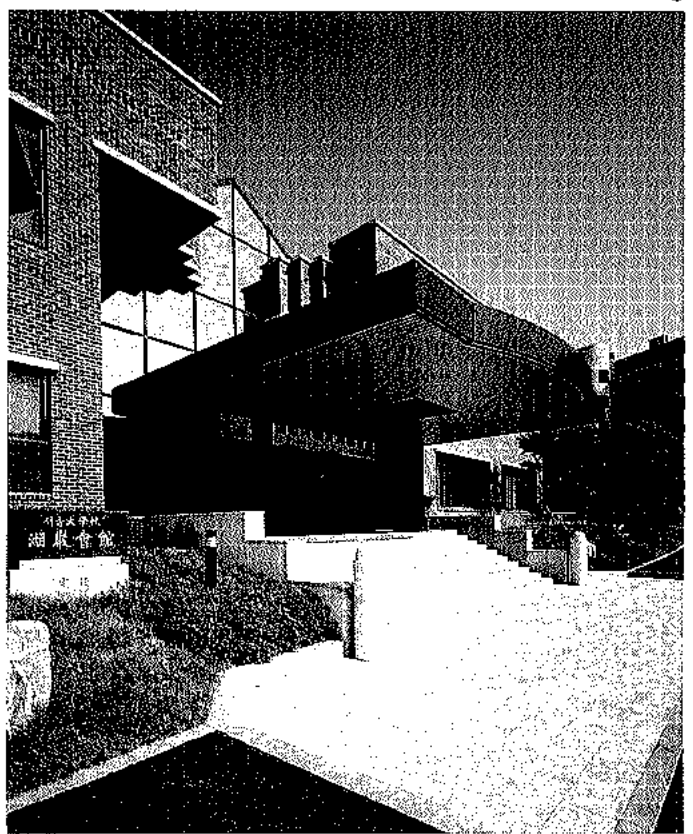
본 계획의 배치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북향의 경사지형을 최대한 살리면 3개의 동(회관동, 학생숙사동, 교수숙사동)으로 구성하여 복합용도에 따른 동선문제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진입도로에서 가장 인접한 회관동은 부지의 전면면에 배치하여 동선 해결 및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학생숙사동은 전면도로에서의 소음을 피하고 전망 및 향을 고려하여 회관의 남쪽(우측)높은 부지에 배치하는 동시에 단순한 일자형 평면에서 탈피, 매스에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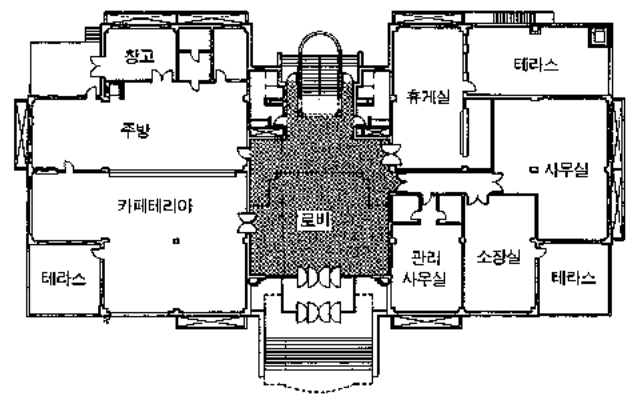
최대의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교수숙사동은 부지의 가장 높은 쪽인 남동쪽에 배치하여 전망과 향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울창한 숲과 석식한 바위산의 지맥을 타고 정기 가득한 곳에 위치한 회관동은 산의 형상을 추구하려는 의도아래 직육면체의 적층적 구성에 삼각형 톱라이트를 설정하였다.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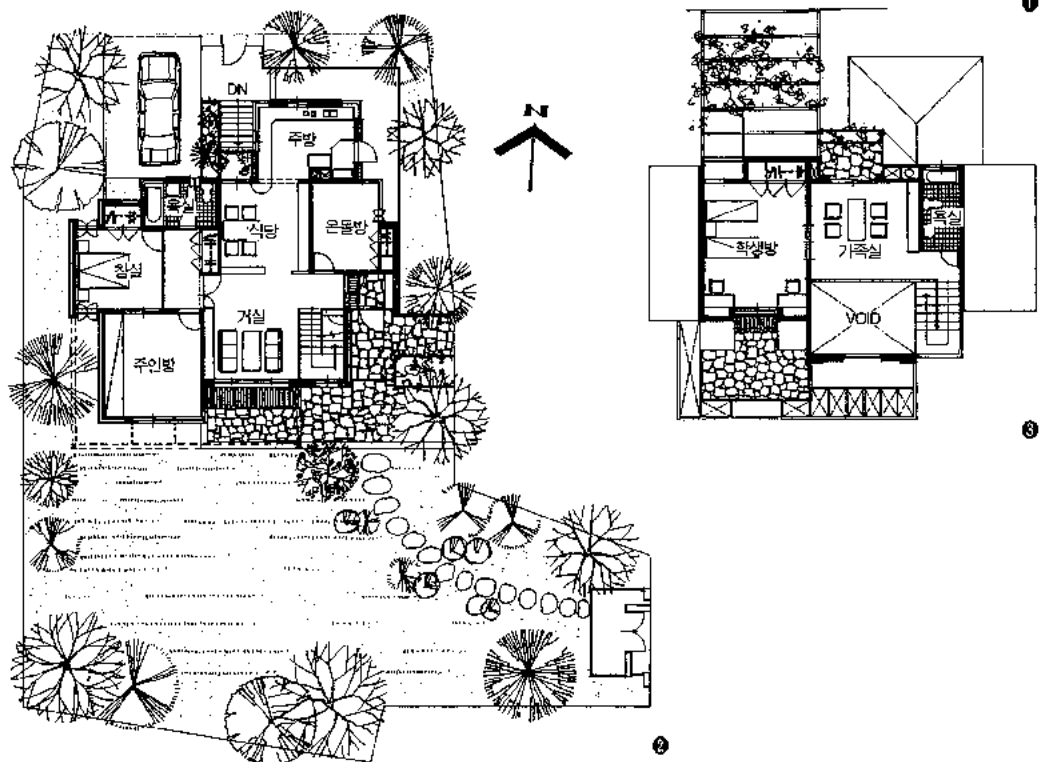
8

순천 Y씨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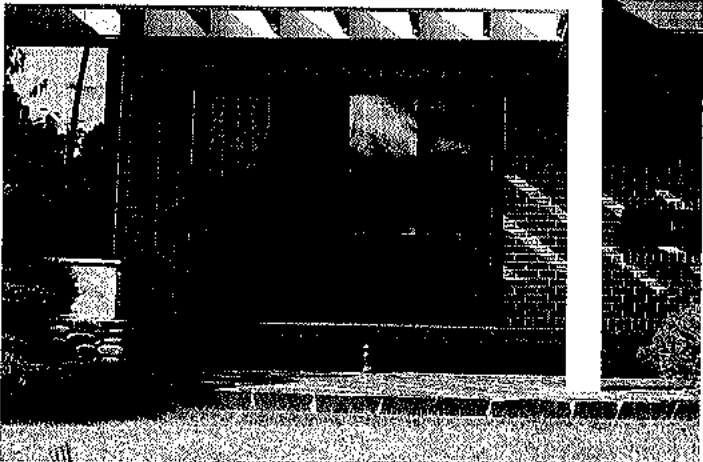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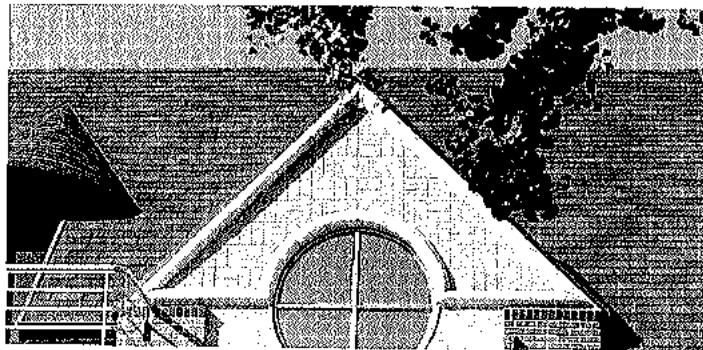
Soncheon Y's Residence



대지위치/전남 순천시 옥전동
대지면적/582.0㎡
건축면적/125.41㎡
연면적/183.09㎡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조적조
외장/적벽돌 치장쌓기, 아스팔트 싱글



韓瓊洙/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4



6

- ① 전경
- ② 1층평면도
- ③ 2층평면도
- ④ 거실창측 상세
- ⑤ 단면개념도
- ⑥ 주출입구상세
- ⑦ 전면 외벽상세
- ⑧ 2층 가족실 전경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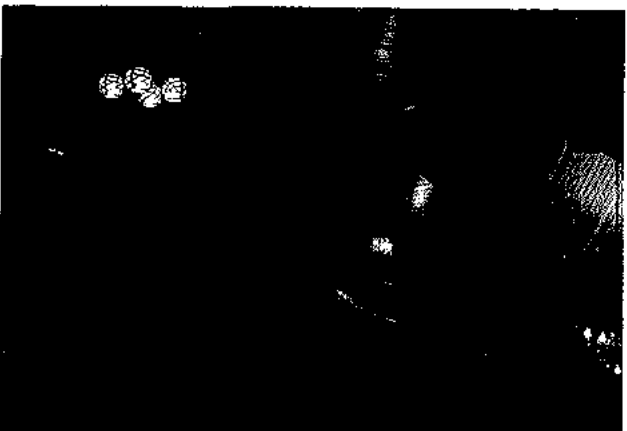
인근에 옛 향교가 있고 토담과 전통 한옥을 볼수 있으며, 지붕들 사이로 높고 낮은 나무들이 보이는 그런 주택가이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대지 북측에 6m도로와 동측 일부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건축주의 요구는 보편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 생활에서 오는 자연에 대한 이질적인 감정의 해소와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해 주거공간의 최소화를 요구하였다.

공간의 균등한 배치, 각 기능의 높은 효율, 원활한 동선과 공간의 최소화로 인한 폐쇄적인 느낌을 고려 L, D, K방식을 택하였고, 각실 및 가구배치를 적절히하여 각 기능의 독립성을 꾀하였으며, 거실의 상부는 지붕의 경사면에 따라 Open시켜 계단실과 2층 가족실을 한실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었고,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고려 2층 학생방과 가족실을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또한 테라스의 전이 공간을 두어 옥외 공간과의 원활을 기하고 외장은 흙의 산물인 벽돌과 아스팔트 상감을 사용하였으며 낮은 처마, 경사진 지붕, 동그란 창 사이로 빛이 들어오며 별이 보이고, 그런 창 사이로 마냥 하늘을 보면 좋을까 싶었다.



9



8

根本부터 하려고 晝室엘 갔다.

代入 준비생들과 함께 수련했고,

또, 미술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일요화가회를 창립하여 매 일요일 마다 야외사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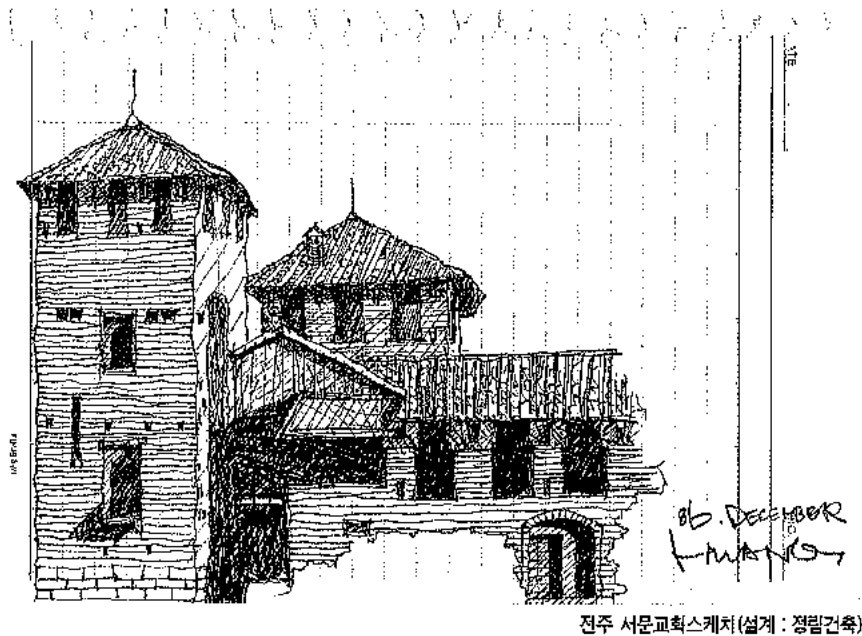
마음 속에는 늘 李箱이 있었고 롱상이 있었고 그의 SKETCH가 있었다...

건축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몸짓으로서 건축을 잊지 않기 위한 행위로서 그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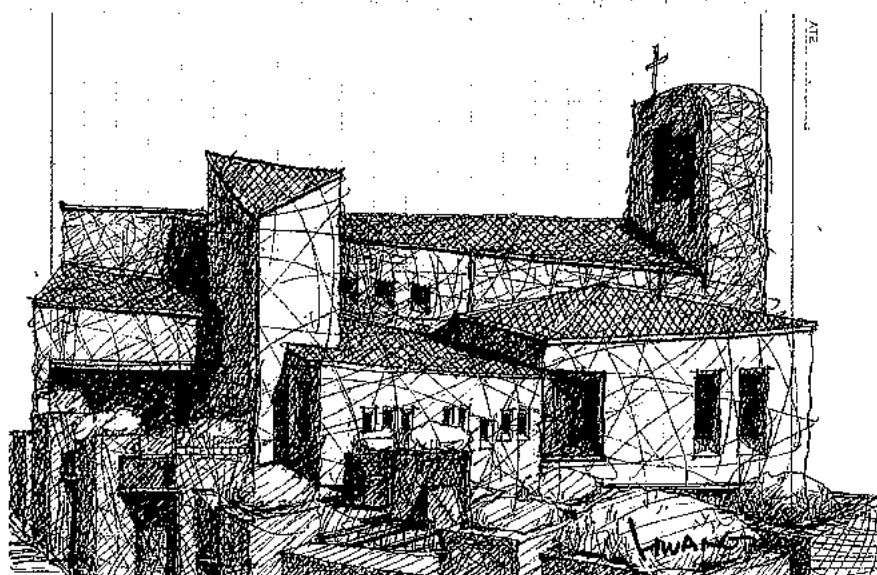
32 건축사 9104

그때의 純粹한 熱情으로
다시 回歸하기를 마음 속에 소리치고 있다...
그때 나는 海軍에 복무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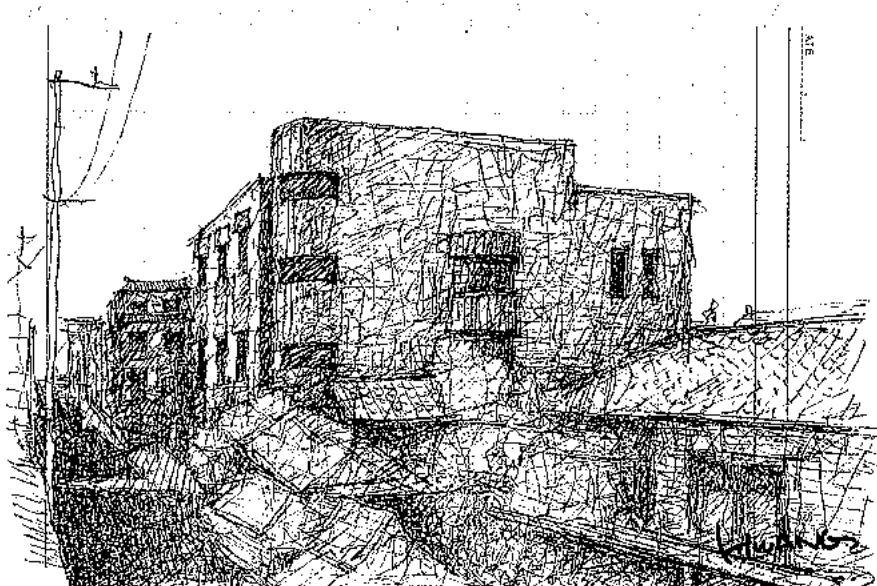
黃寅秀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 상목



전주 서문교회스케치 (설계: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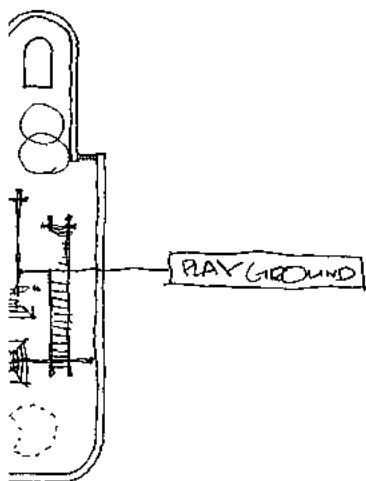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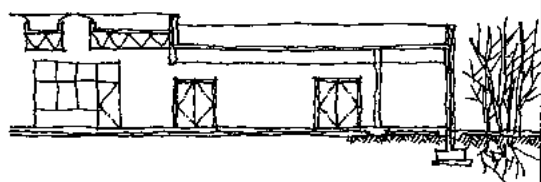


성공회건물 스케치



K빌딩스케치 (설계: 공명세무)

DATE	APPROVED



17. MARCH. 1986
HWANG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사관학교 사택단지내 유치원.

“실상을 고백하며”

洪文裕 / 건축사무소 세경건축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주택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맹수와 자연으로부터의 보호와 가정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위해 거주할 건축물로 발전되어 왔다. 해마다 주택 보급율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인구 폭발로 인해 수요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내집 마련이라는 꿈과 재산증식이라는 사고에 의해 집에 대한 소유 욕이 강한 민족이 되었다.

60년대에 자립을 위한 경제 개발의 몸부림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경기에 불을 붙이며 여기 저기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등의 건축물을 일으켰다. 88년도 올림픽 경기를 계기로 경제 수준이 세계의 문턱에 올라 서기 시작하면서 좀더 안락한 주거환경과 미적 감각을 위해 재건축들이 서울 주변에 일기 시작했다.

한때 주택붐을 타고 싸게 빨리 짓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지은지 불과 10여년만 지나면 수명이 다해 재건축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낡았거나 하자가 많은 건축물이 양산되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건축 설계도 과학 문화의 첨단을 견게 되었으니 UR개방에 의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는 보다 나은 예술적, 창조적 기능과 새로운 공법, 새로 개발된 자재로 조형 예술물을 이루어 놓아야겠다. 또한 차체에 아직도 도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 이제 지면을 밟아 한번 지적하기로 한다.

여기에 문제점을 나열하는 본심은 이런 실상을 좀더 개선하여 선진 조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함으로써 건축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이다.

첫째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최저 비용으로만 건축하려는 건축주들 때문에 어떤 구상이나 창작물에 대한 이해,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 주변 지역의 실태로는 시공자가 시공비에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수주하기 때문에 시공자에 의해 설계가 외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작물에 대한 계획과 기능, 입면에 대한 예술적 조형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 평면 계획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많이 계획하여 전세도 많이 받도록 해줘야 잘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되어졌다. 어떤 심한 고객은 2일만에 설계해서 허가를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시간을 맞춰 주기 위해 분주히 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시공자는 설계 사무소의 고객이며 건축사는 제반 서비스 업무도 대행해 주면서 마치 시공자들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듯 허가서류 신청에 필요한 여러 서류 준비와 가옥대장에 건물말소 신청이며 주택채권 매입등등 많은 업무가 고객 관리라는 명목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설계비도 표준 계약서 상 착수금으로 30%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겨우 감리비를 낼 정도만 계약금으로 주고 대부분 준공시까지 미불로 남아 있게 된다. 가끔 허가를 찾을 때까지 완불하는 분은 극히 드문 일이며 어떤 때는 장기 미준공으로 있으면 설계비도 장기 미불금이 되어 해마다 수백만원씩 누적되는 실정이다. 이제 지자체도 시행되는 이 시점에 설계비 징수 창구를 일원화 할 수는 없을까? 우리 스스로 설계비 덤핑이나 미불금에서 보호받기 위해 창구 일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시공자의 자질 문제로, 시공상의 위법이 반영되어 감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이다. 대부분 소형 건축물은 무자격자가 시공하기 마련이다. 495㎡ 이상 건물인 종합건설업면허대상 건축물도 대부분 면허를 대행하여 개인이나 단종업자들에 의해 시공되어지고 있으며, 주택은 더욱이 개인들이 시공하게 된다. 따라서 도면대로 시공되어지지 않으므로 건축법 위반 사항은 고질적으로 두 서너가지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내 집을 평생에 한번 지어 본다는 애착과 내 집은 내 재산의

66

건축법 제정에 있어 설계 허가제 스스로도 자의 한계는 분명히
필요하고 소규모 사무실들의 영세성, 보조원들의 낮은 수준으로 인한
중심도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성년이 된 협회가 자의
사명을 받아 제정해 제정하고 한자를 원인으로 못사 많이 사하지
가장선을 가지며 건재 중인 피동적 행동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구상점을 이루자. 나아가야 한다.

결론

전부라는 사고에 의해 조금이라도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집을 지으려 궁리하다 보니 자연히 건축법에 저촉되는
위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부적절한 건축법에
비춘 위법 사실로 감리하는 수임자에게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실례를 들어 90년 봄에 시행된 다가구 주택만
하더라도 시행 이전에는 매번 위법건물에 세대구획이 항상 지적
되었었다. 서울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1년에 천여세대 주택
준공분중 세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세대 구획을 했다고 위법사항으로 지적될때 법을
다루는 자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 지는구나 생각 되었으며
법 개정을 위한 협회의 보다 폭 넓은 활동이 절실히 아쉽기도
했었다. 다행히 작년 봄에 다가구 주택으로 인해 세대 구획에 대한
건축법이 시정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고질적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곤 하는 비현실적인 법조항은 발코니를 1m 이상 뺐었을 때
건폐율이 초과되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에 발코니 폭처럼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주거용 지하실에 대한 조항은
지중 노출이라 하여 최고 높이와 일조권 저촉등에 쉽게 위배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개정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문제들은
언젠가는 법의 개정에 의해 허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고질적인 위반사항으로 감리자로선 시정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감사때마다 걸리지 않으면 요행으로 가슴을 조여야
하니 우리의 지위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선진국에서는 한 건물을 계획하고 시공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 과학적 성능분석과 기술로 1세기를 바라보고 계획하며
시공한다. 우리나라 도심의 새로운 건물도 날로 현대식 건축물로
지어짐에 반해 우리의 시공 실태는 아직도 수준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향상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주변 실정이 더욱 개선 되리라 보지만 시공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소형 건축물도 시공에 있어 건설업 자격 기준을
두어 시공토록 하면 질적 향상도 되고 위법시공도 개선되며
국가의 조세 수입도 많아지리라 본다.

셋째 연서 건물의 감리상에도 문제점이 많다. 그간에
협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논의된 줄 안다. 무단 발코니 설치,
물탱크실 용도변경, 차마 노출등의 문제들을 강력히 시정지시코저
하지만 전회원이 감리하고 있으니 어려움도 많다. 위법보고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감리선에서 시정코저 노력하나 잘 집행이
어려우며 건축파에서도 위법보고를 자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실정이다. 시공자도 만성이 되어서인지 위법사항의 지적과
시정지시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87년도에 설계,
감리업무를 분리 할 때는 위법사항을 강력히 시정 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전 회원이 감리업무를 수임 받고 보니 회원 상호간의
문제점도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우리의 고유 업무인 감리업무가
감리 공단으로 이첩될까봐 찬반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 이
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과욕을 버려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법보고가 시간적으로
늦다 하여 행위자보다도 감리자에게 늘 행정처분이 주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모든 감리 업무의 규정이 건축사 처벌을 위주로 규정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된다. 협회가 이런 건축사법을 개정코저
부단히 노력해 왔으리라 본다. 아직도 감사 때만되면 감리자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니 늘 불안한 생활의 연속인 것 같다.

끝으로 이번 기초의회 의원에 건축사가 15명이나 진출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나 더 많이 참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광역 지방의원에도 많이 참여하고 국회에도 회원들이 진출되어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힘을 길러야 되겠다. 건축법 개정에 못지 않게
않게 우리들 스스로도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사무실들의 영세성, 보조원들의 낮은 수준으로 인한
손실도 방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 성년이 된 협회가
지자체 시대를 맞아 체질도 개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관에 의한 피동적 행동에서
벗어나 우리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구심점을 이루어 나아
가야 하겠다.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ouk

日本史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¹⁾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미술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文化와 쇼잉(書院),
茶室과 스기야(數寄室)
6. 城의 시대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건축의 과제

시작하면서

일본의 안도·다다오(安藤忠雄)는 요즈음 동양 아니 세계최고의 Regional Architect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도(安藤)건물을 표현된 최종 껍데기만을 보기때문에 왜 일본인들이 그의 설계를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특히 우리에게 일본건축을 잘 알 아는 안목이 부족해서인지 더욱 그렇다.

그들이 사랑하는 ‘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가? 멀리 일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것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책이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는 서양대가들의 작품은

다 알아도 우리는 수덕사 평면하나 못 그린다. 우리는 늘 너무 먼 곳,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배워왔고 그것들에 관심이 많았을 뿐 정작 주변에 대해서는 알고있지 못해왔다.

필자가 건축학도이던 시절에 유럽유학에의 꿈을 한껏 키우면서 독일어니 불어니 하는 유럽의 언어들을 배우느라 한참 열을 올리던 적이 있었다. 여기치 않았던 일로 방향을 바꿔 졸업후 설계사무소에 취직하여 오늘날까지 십 수 년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에도 무수히 먼 나라들을 동경해 왔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내겐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한국미술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건축도 한국건축을 따로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 오랫동안 만난 여학교 동창이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한국박물관회 주최의 고적답사를 따라가게 되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백제의 미소’(archaic smile)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그무렵 나는 칸트의 空間論도 읽었고 헤겔의 美學도 읽었는데 부끄럽게도 ‘백제의 미소’라는 용어를 처음 안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간을 한국미술에 대해 다시 열을 올리게 되었고 고적답사를 열심히 쫓아다녔다. 무슨 계산속이 있었서가 아니고 별이유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그렇게 돌아 다녔다. 특별히 자료를 모으거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냥 몸 속에 그 감정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보니 佛敎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우리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중국, 일본의 건축 및 문화사를 모르고서 흐름의 맥락이 끊겨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게 동양언어였는데 삼십이 훨씬 넘어 낯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니 도저히 머리에 남지를 않아 결국은 마스터를 못하고 그저 더듬더듬 자료나 찾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본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체질이 아니라 잘 하지는 못하나 즐기는 편이라 가끔씩 좋은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여러 사람이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나 소개를 하고 싶어도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인지 글로 표현하면 영 조리가 안 선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할 지 잘 모르겠다.

몇 년 전부터 눈을 내 가까이로 돌려서 보니 너무도 할 것이 많고, 볼 것이 많으나 주업(主業)이 설계일이니 틈날 때 한가지씩 자료를 만들어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요즈음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으나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는 탓인지 일본 것들은 소개가 잘

안되고 있다. 이에 미흡한 줄 뻔히 알면서도 감히 일본건축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건축 및 도시의 전통을 살펴보고자 함에 무엇보다도 그 건물들이 만들어졌던 때의 상황에서 그 文化的 의미와 사회관습적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려 한다. 이 글은 학술논문으로서 보다는 자료정리로서 소개하는 바이며 이런 소개글이 전문가들의 글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

항목은 편의상 9~10회로 나누어 구분하여 제품들을 달았지만 사실상의 내용은 미국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日本史를 가르치는 스미스교수의 강의를 토대로 하였고 그에 따른 참고 문헌들을 소개한다.

되도록 고유명사는 한자를 괄호속에 넣고 발음나는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있는 용어들은 간혹 그냥 쓰기도 한다.

이 글을 전개해 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세가지 주요용어는

1. 마(間, space) 2. 겐쨌꾸(建築, architecture) 3. 시젠(自然, nature)-바위, 풀, 나무들이다. 그중 일본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間)”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마(間)’라는 개념은 時間과 空間의 의미를 일러 연상시킨다.

니콜라우스 페브스너는 그의 책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서문에서 건축을 회화나 조각으로부터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空間의 質(spatial quality)로 결국 人間이 空間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건축사라고 했다.^{*)} 이 글 日本역사 속의 건축물과 도시를 살펴보면 가능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려한다.

1. 개관

일본은 우리와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우리는 늘 일본을 ‘왜’(倭, 일본말로로는 ‘와’라 부른다)라 하며 마치 역사도 없는 아주 우스운 나라 취급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 밖을 나가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을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제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도대체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크며,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저만큼 크게 되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일본의 國土는 면적 약37만km²로 나카노지마(沖の島)를 제외하고 남북 위도 차이

시대구분(chronology)²⁾

고대

조오문(縄文)	?-c. 300B.C
야요이(彌生)	c. 300 B.C-A.D 300
고분(古墳)	c.300-552
아스까(飛鳥)	552-645
하쿠호오(白鳳)	645-710.....668
통일신라	
나라(宗良)	710-794
헤이안(平安)	794-1185.....918
고려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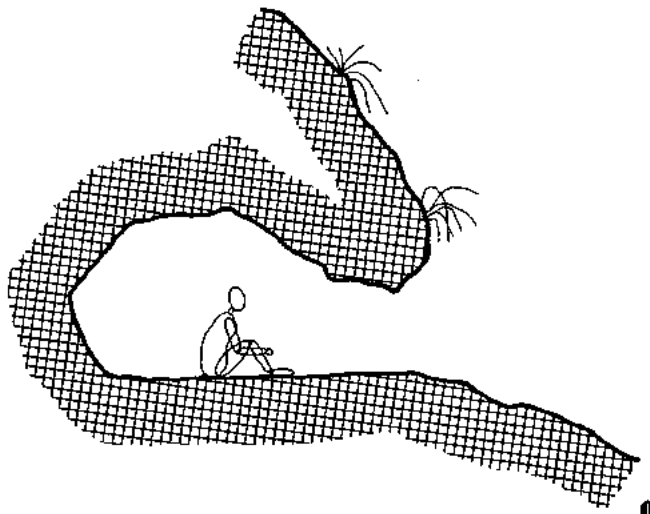
기마꾸라(鎌倉)	1185-1600
남보꾸조(南北朝)	(1336-1292)
무로마찌(室町)	1392-1573.....1392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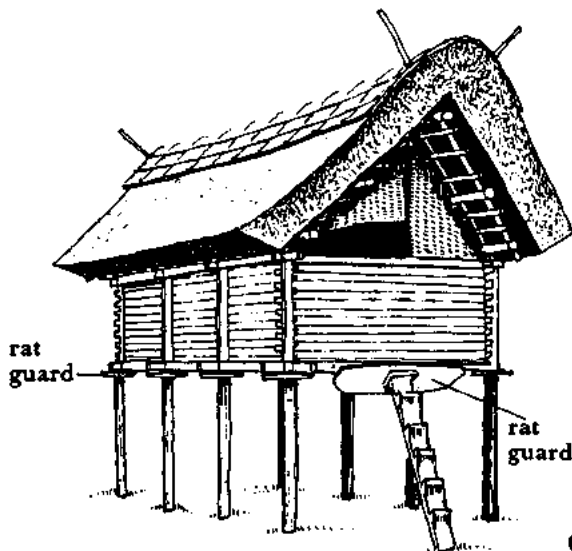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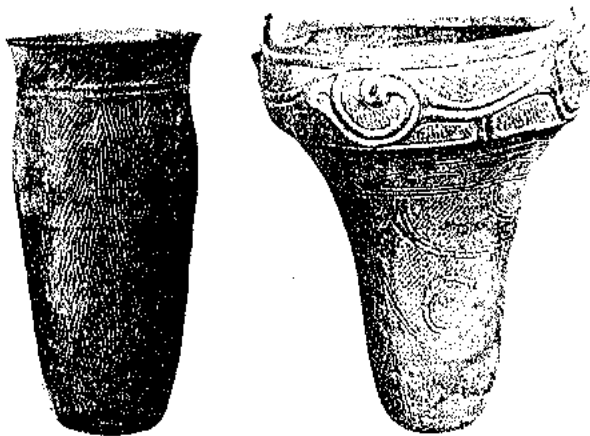
봉건사회

모모야마(桃山)	1573-1600
에도(江戸)	1600-1868

근대

메이지(明治)	1868-1912
다이쇼오(大正)	1912-1926.....1910
쇼오와(昭和)	1926-1989.....1945대 한민국
헤이세이(平成)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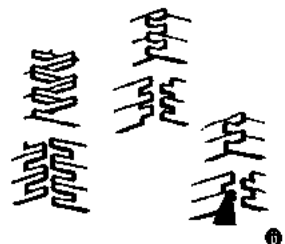


약22도에 걸쳐 있다. (미국은 786만km², 알래스카 화와이를 제외하고 약25도에 걸쳐있고 독일의 경우 약36만km²에 약 8도 차이가 난다.)

· 초기일본문화(原始시대)

일본문화의 근간이 되고있는 원시문화로는 조오몽(縄文)과 야요이(彌生)가 있다. 고고학자들은 日本에서의 신석기 시대(8,000(?)~300B.C.)를 조오몽(縄文, rope pattern)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土器(pottery)들에 나타난 새끼줄문양(縄文)의 특징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조오몽 시대에는 도구우(土偶, earthen figurine)라고 하는 반은 인간의 모습을 반은 짐승의 형태를 한 것을 만들기도 했다. 여자의 형상을 한 도구우(土偶)는 특히 가슴과 배 등을 크게 만들어 풍작이나 多産을 기원하는데 쓰이곤 했다. 이 당시 주거형태로는 최초의 건물인 다테야나(竪穴 pit-dwelling, 竪穴이라고도 쓴다)로 그 크기는 대체로 작았다. 보통의 것은 길이 60cm정도에 지름 4.5m 정도로 4~5인(즉 해가족)에 알맞은 크기였다. 이 시대에는 무덤 또한 아주 작았는데 사실은 시체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구멍이었다.

B.C 300년 경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文化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조오몽시대는 끝이 나게 된다. 쌀농사 짓는 농경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야요이(彌生 ca. 300 B.C ~ A.D 300)라고 부르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 당시 문화의 흔적이 토오쿄오(東京)근처 야요이(彌生)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때 쌀은 가장 주요한 경제산물이었다. 한편 청동(bronze)이나 철(iron)등의 금속사용 또한 이 시기에 소개되어 청동은 장신구로 철은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쓰여졌지만 사실상 무기를 만드는데 쓰여졌다. 이때에도 土器(pottery)가 만들어졌는데 조오몽 土器와의 차이점은 조오몽시대에는 '장식' 그 자체가 강조되었고 야요이시대에는 장식적 요소가 줄어들고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형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거형태도 조금 발전된 竪穴住居였다. 이 때에 창고라 추정되는 高床式의 원시건물의 유형이 또하나 만들어진다. 토오쿄오



① 동굴, A Simple Interior Space
인류 최초의 주거 형태인 동굴은
사실상 Inter Space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건축공간으로서 얘기되려면
느껴져야 하고 확실해야 한다.
동굴과 같은 기능의 오늘날의
공간은 지하철 역이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주차장을 들 수
있겠다. (미츠오 이노우에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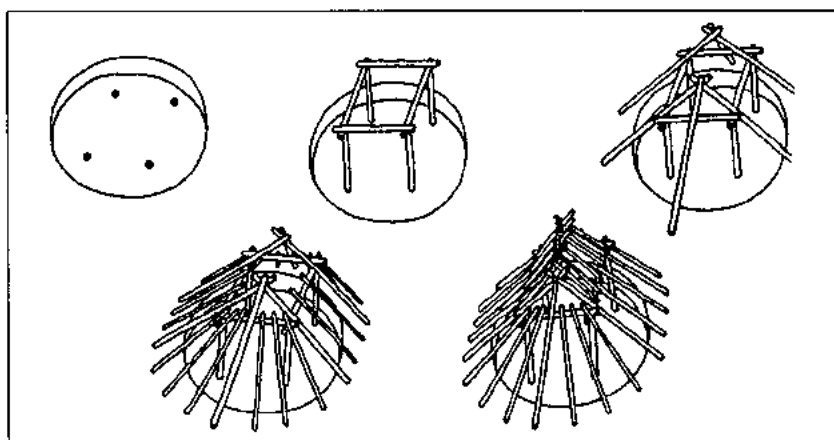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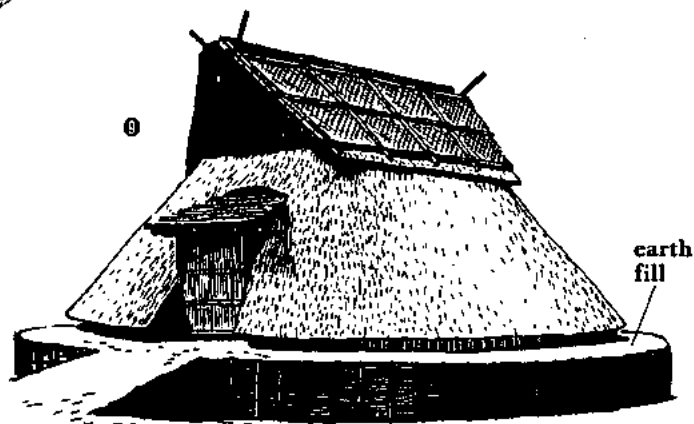
근처 시즈오카(静岡縣) 토로(登呂)유적지는
야요이문화의 대표적인 곳으로 다테아나(竈穴,
pit-dwelling) 및 高床式 창고건물(elevated
storehouse)이 남아있다. 토로(登呂)의 竈穴住居는
6mX8m 정도의 둥그런 거주부분(living area)으로
되어있고 이는 땅을 파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빔(beam)으로 연결한 후 그 위에 지붕구조를
엮었다. 주변을 흙을 돌리어 단을 만들고 거주부분
내부에는 로(爐)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말뚝기둥
위에 세운 高床式창고는 쥐나 그밖의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참고문헌□

1.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
2. JAPANESE CULTURE
by H. Paul Varley
3.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4.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5. 日本美術史 全書집

註)

- 1) 스미스교수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고 항목분류는 주제별로
몇가지씩 통틀어서 크게 10가지로 구분했다. 사정에 따라 조절될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 2) 미츠오 이노우에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日本建築の空間)"의
시대구분을 참조하였다. 그는 '아스카'에서 '에도'까지를 Period라는
용어로 '메이지'이후는 'Era'라는 용어로 구분했다.
에도엔, 라이샤위는 아스카 이전까지는 세속사회라 분류했다.
- 3) Nikolaus Pevsner,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 7



- ② 조오문(縄文)土器,
東京国立博物館(日本美術史
p. 14, 15)
- ③ 조오문 구우(縄文土偶),
明治大学(日本美術史 p. 17)
- ④ 조오문(縄文)土器,
山崎家(日本美術史 p. 14, 15)
- ⑤ 야요이(彌生)高床式 창고

- ⑥ 야요이(彌生)高床式 창고의 결구법
- ⑦ 쥐나 해충을 막는 디테일
- ⑧ 사다리
- ⑨ 야요이(彌生)土器,
東京国立博物館(日本美術史 p. 22)
- ⑩ 야요이(彌生)住居 복원도
- ⑪ 야요이(彌生)住居 상상도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문화재연구소 소장

by Chang, Kyung Ho

9.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例

앞서 기술한 바대로 조선시대의 불교는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억압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世祖의 원각사 창건과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불사를 새로이 창건하여 일으키기는 어려웠고 거의 기존의 불사들을 유지·보존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런 중에도 건물과 기능을 위하여 重建, 重修, 補修, 改築 등의 행위는 암암이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사찰 가람배치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고대가람 형식에서 벗어나 되도록 기능에 따라 자유로운 배치로 구사하려 했지만 고대부터 이어지는 전통적 사찰에서는 탑과 금당 등 주요전물의 배치를 크게 변형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당시 사찰내의 禮佛儀禮에 따라 어떤 건축위계의 기준이 이루어진 듯하며 소위 三壇의 전각 제층이 이루어져 가람배치를 이루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건물위계에 대한 분류에 대하여는 과거 몇몇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지만¹⁾ 이 중에서 건물의 구조형식까지 포함하여 佛 신앙—菩薩 신앙—神衆 신앙에 따라 佛壇과 보살壇, 신중壇 등으로 분류하여 배치를 논하는 학설도 있어 주목된다. 즉 여기에서는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의 불전을 上壇으로 분류하고

나한전, 명부전, 문수전 등을 中壇으로 산신각, 삼성각, 천왕문 등을 下壇으로 분류하였고 건물의 배치를 상단 단독형, 상단+중단형, 상단+중단+하단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들은 상단을 중심으로 동심원적 외곽으로 멀어져가고 있음을 평면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흥미롭다.²⁾

그러나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서 사찰가람을 연속적으로 발전과정으로 보고 시대를 통달어 탑의 성격에 따라 1탑, 2탑, 무탑식으로 분류하고 입지조건에 따라 평지·구릉·산지형으로 분류하며 가람 축선성격에 따라 중심축·직교·자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논한 說³⁾도 있다.

조선시대 사찰배치의 이론적 해설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다음 조선시대 대부분의 건물배치로 가람을 이론 대표적인 사찰의 예와 중요 건물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1. 開巖寺

이 절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있어 서해안에 있는 변산반도 중앙 稜伽山(통가산)동편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의 배산에는 불끈 솟은 禹金巖이 있고 이 봉우리 주변에는 우금산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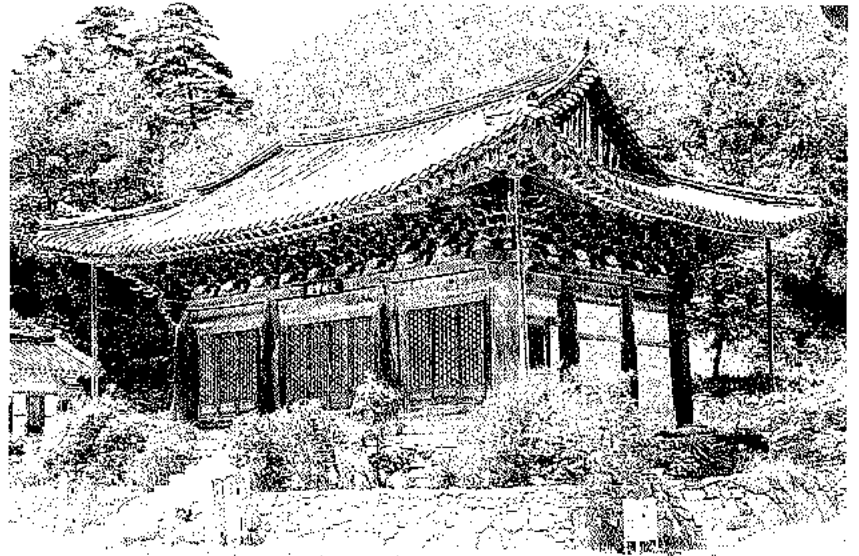
이 절의 연혁은 확실하지 않지만 절에서 소장하고 있는 「開巖重建事蹟記」에 의한다면 삼한시대에 초창되고 백제때부터 중창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필자의 기억으로는 10여년전 이 절에서 공사를 하다가 백제시대 막새편이 출토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곳에 백제시대부터 절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지금의 가람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대웅보전의 중창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절의 가람 형식은 먼저 말한 우금암과 대웅보전을 잇는 자오선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경내를 크게 3단으로 나누어 건물터를 잡았다.⁴⁾

대웅보전은 法堂重創記文에 의하면 1640(인조 18년)에 자리를 옮기어 중창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 평면을 하고 전면에는 온통 꽃살분합 살창을 두고 측면과 후면 역시 부분적인 창을 두었으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으로 꾸며진 다포형식의 건물이다. 이 집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안팎으로 3출목을 두어 공포를 짜아 밖으로 처마내미를 크게하고 있어 추녀부에는 그 처짐을 막기 위하여 활주를 받치고 있다는 것과 포작을 받치는 평방을 통부재만 쓰지 않고 정방형 단면의 두부재를 옆으로 대어 축을 박아 사용한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통부재를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큰 평방재가 구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점도 있겠지만 통부재보다는 목재의 뒤틀림을 막아주는 장점도 고려한 것 같다. 이러한 평방의 예는 위봉사보광명전, 내소사대웅보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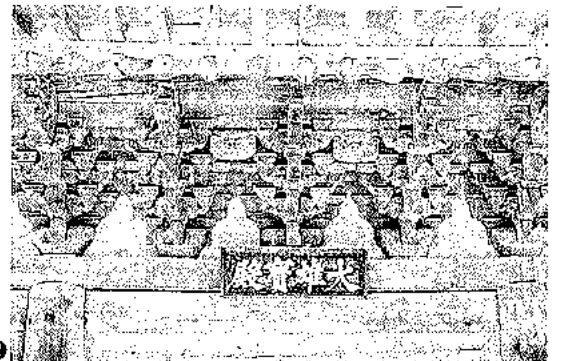
또 한가지 이 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포의 짜임과 그 부재에 새겨진 화려한 조각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평방 위에 놓여진 주두는 팔각으로 된 주두받침 위에 놓여 특히 전면의 것은 그 모양이 연잎을 감싸아 입힌 모양을 하였는데 중앙거간에서 양협칸으로 가면서 이 연잎이 점점 펼쳐진 변화를 보이고 있고 또 전면에 짜여진 공포이 첨차와 소로는 연꽃의 줄기와 꽃봉오리를 묘사한 화려한 조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각은 정면 어칸 중앙부 외목도리 밑 걸려있는 鬼面이나 공포의 한대나 귀한대 끝에 조각된 용두와 충량 끝에 조각된 용두 등 여러 부분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화려한 곡선을 갖고 화려한 포작을 시도한 건물은 같은 지역에 있는 來蘇寺 대웅보전, 완주 威鳳寺 보광명전, 익산 崇林寺 보광전, 등이 있고 이들은 비슷한 연대와 지역에 놓여있음은 주목될 사실이다. 단 강화 淨水寺法堂 전면의 공포에서도 그 예가 있음을 부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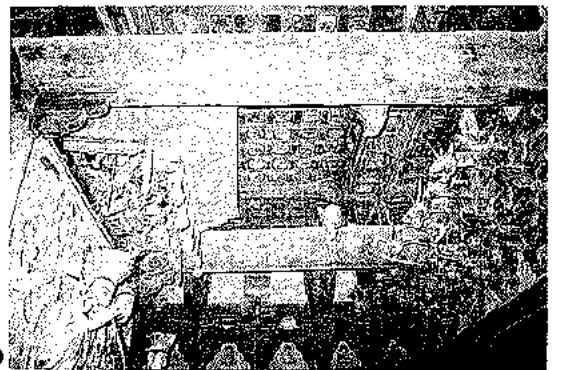


- ① 개암사 대웅보전 전경
- ② 대웅보전 전면어간 공포
- ③ 내부 전경
- ④ 전면공포 내부
- ⑤ 개암사 배치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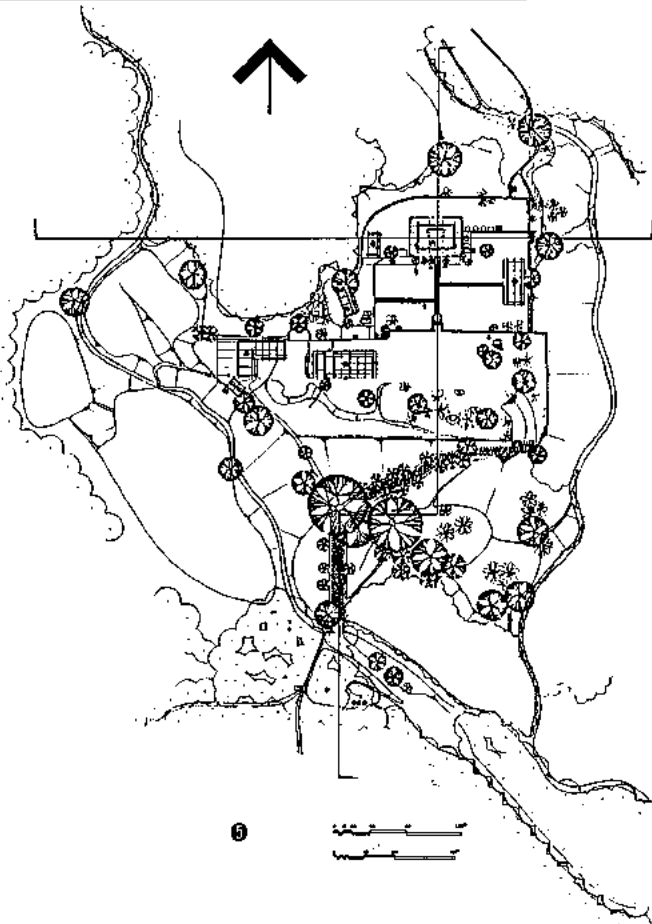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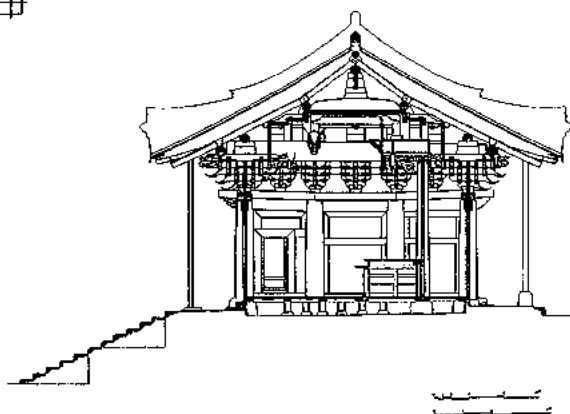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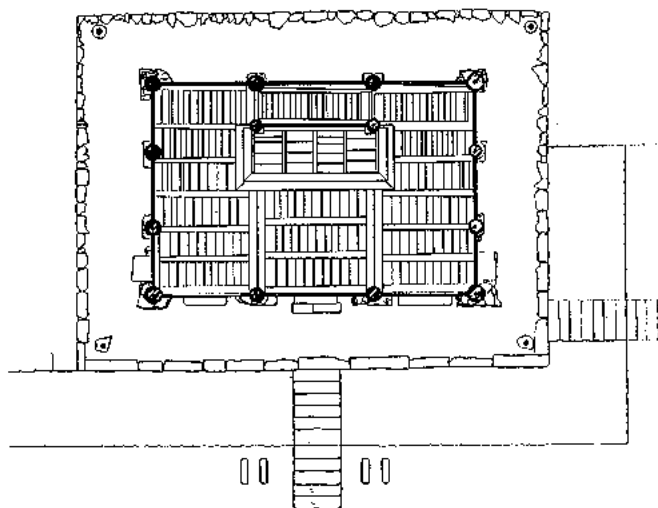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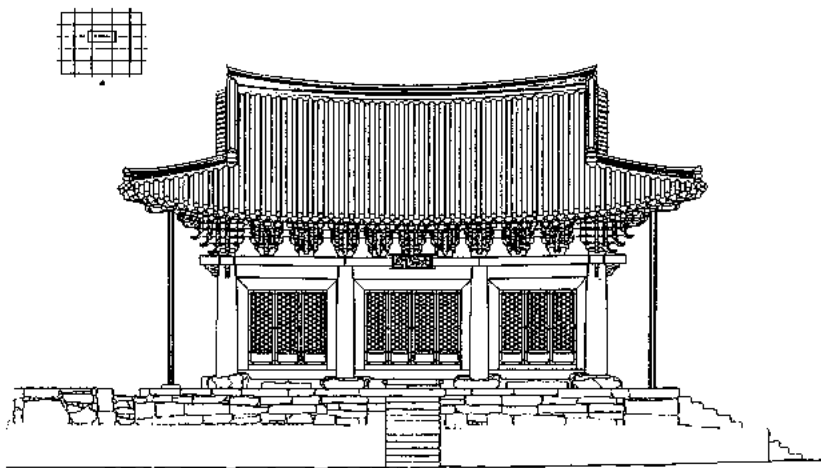
③



④



⑤



이렇게 곡선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꾸며지는 건축의 세부는 우리나라 고대건축에서부터 특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며 일본의 법륭사 금당이나 그의 오래된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내부에도 중량과 한대끝에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을 장식하고 바닥은 우물 마루를 짜고 천장은 우물 처장을 짜았는데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삼존불의 불단 위에 화려한 단집과 飛龍의 透彫浮刻된 조각들이 눈길을 끈다.

조선시대 불전으로서 이 건물과 연대 및 형식의 맥이 통하는 건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來蘇寺 大雄普殿

같은 관내에 있어 부안군 산내면 석포리 변산반도내에 있다. 이 절의 초장은 신라시대 惠丘頭陀에 의하여 되었다하나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원래의 절이름은 蘇來寺였음이 「동국여지승람」에 보이고 또 崔滋의 「補閑集」 중에서 고려 안종때 정지상詩에 「題邊山蘇來寺」라 하고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도 소래사라 하였다.⁵¹

지금의 건물은 1633년(조선인조 11년)에 중건되고 1865년에 다시 중건 되었다고 한다. 배치를 보면 대체로 남향을 한 가람으로 사찰입구에는 일주문이 놓이고 이 문을 지나서 울창한 전나무 숲을 지나면 봉래루에 도달하고 이 누각을 지나서면 높은 단축을 이룬 공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맞은 편 높은 대 위에는 이 누각과 남북 중심축을 같이하는 대웅보전이 놓이고 그 앞 아래단에 축을 약간 비켜 서쪽으로 신라계의 삼층석탑이 놓이고 다시 서쪽으로 떨어져 寶鍾閣이 있는데 이 안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범종이 걸려있다. 또 축의 동쪽에는 설선당이 놓이고 그 북쪽으로 대웅보전 동북쪽에 요사채가 놓였다.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잡은 배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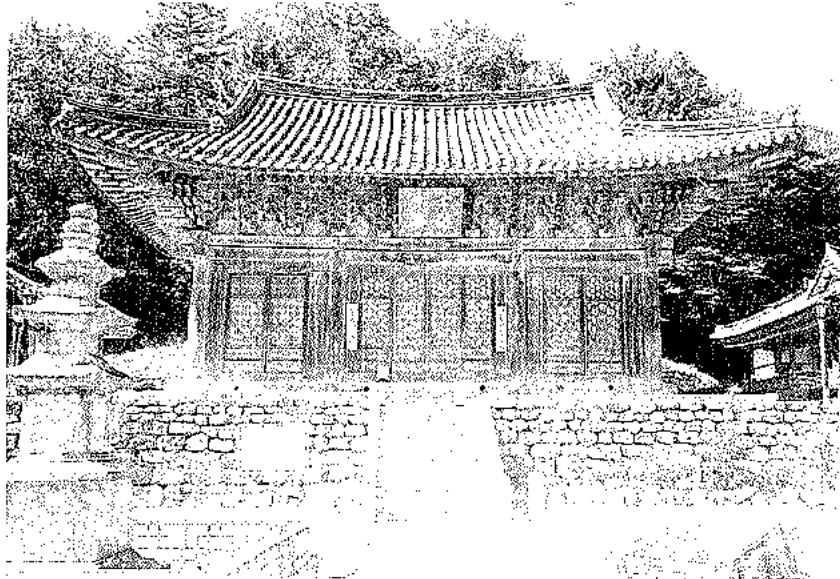
대웅보전은 평면으로 보아 정면과 측면이 각각 3칸이고 다포계의 겹처나 팔작 지붕을 보이고 있다. 외모로 보아 집의 특징은 개암사 대웅보전에서와 같이 처마를 깊게 하여 기둥에서부터 처마가 많이 돌출되어 있고 전면의 분합창문에는 연화와 국화문 그리고 연잎 등 여러 무늬를 조각한 꽃살문을 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이 문의 문살을 아래위로 적당히 구획하여 밑에는 청판을 대고 위에는 간소화된 살을 배치한 것등 입면적 외장계획이 우수한 건물이다.

이와 거의 같은 꽃살창이 충청남도 논산 가야곡의

쌍계대웅전에 있어 주목을 그는데 쌍계사에서는 전면 간살이 5칸 모두 2매의 분합문을 하고 있어 이곳의 전면 협간의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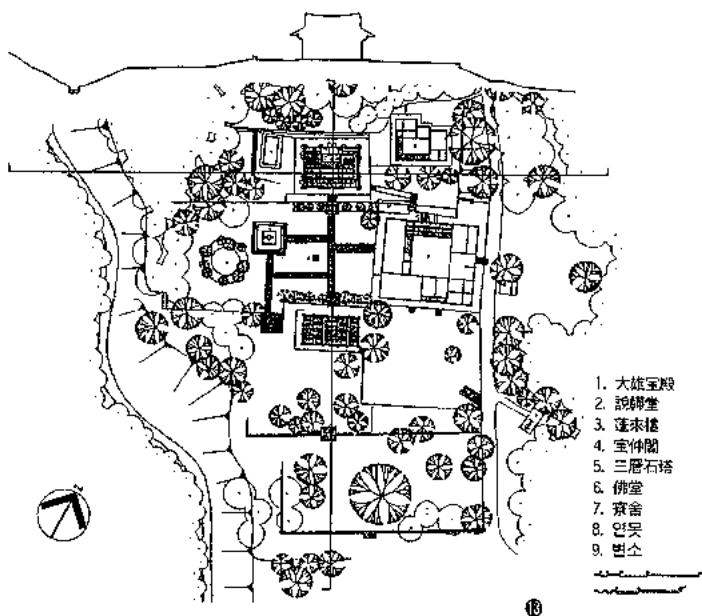
이곳의 평방역시 2개의 부재를 합쳐 걸친 평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포의 조각이 화려하여 첨차의 상면에 곡선을 이룬 공안을 두고 쇠서의 끝은 뾰족한 양서식으로 뻗었으며 그 안쪽 상하부재 사이에는 연꽃고 초가지를 조각하여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 조선 후기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건물 전체적인 구도와 비례는 조선 중기쯤 되는 느낌을 주는 건물이다. 특히 귀한대 머리에 용머리는 개암사의 것보다도 더 세련미를 보인다. 건물의 내부 역시 각 살미끝마다 연꽃 봉오리를 조각하고 중앙부에 우물반자 이외에 바깥 쪽으로는 빗반자를 설치하여 연꽃을 측면으로 보이게 조각하여 불임으로써 천장 전체가 빈틈없는 장식으로 덮여있다.

불단에는 석가를 주불로 한 三尊佛을 봉안하였고 그 뒷벽 배면에 「白衣觀音菩薩圖」가 그려져 있는데 머리에서부터 寶冠 위를 덮은 흰 天衣를 느려뜨린 것이 중동지방의 복식을 연상케하여 흥미롭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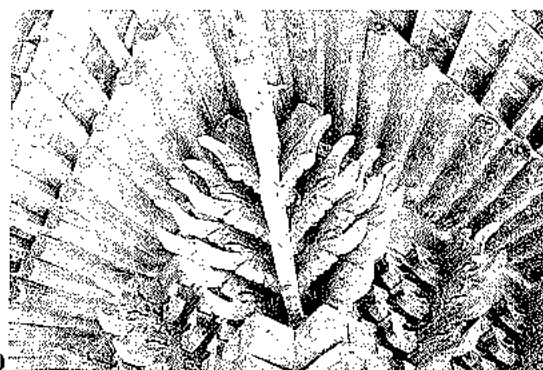
- 6 개암사 대웅보전 정면도
- 7 평면도
- 8 종단면도
- 9 내소사 대웅전 전경
- 10 대웅전 전면공포
- 11 귀공포
- 12 내부공포와 천장
- 13 내소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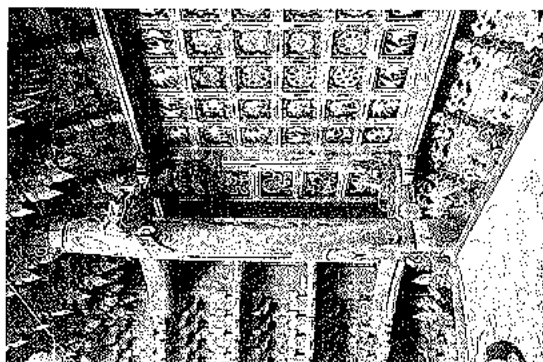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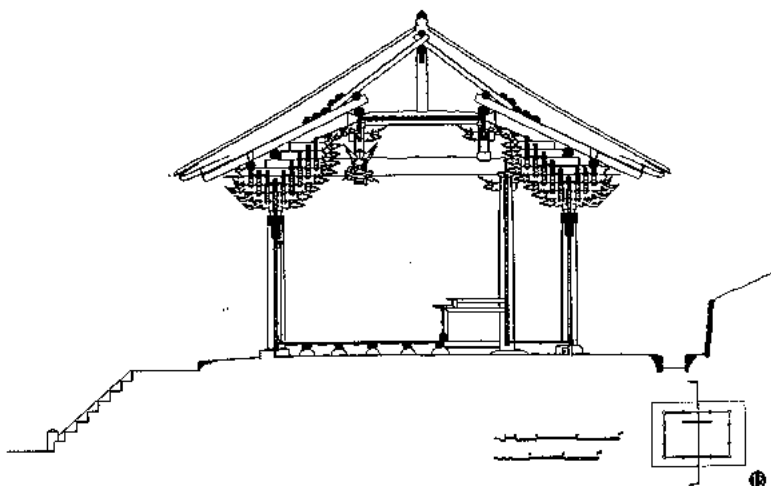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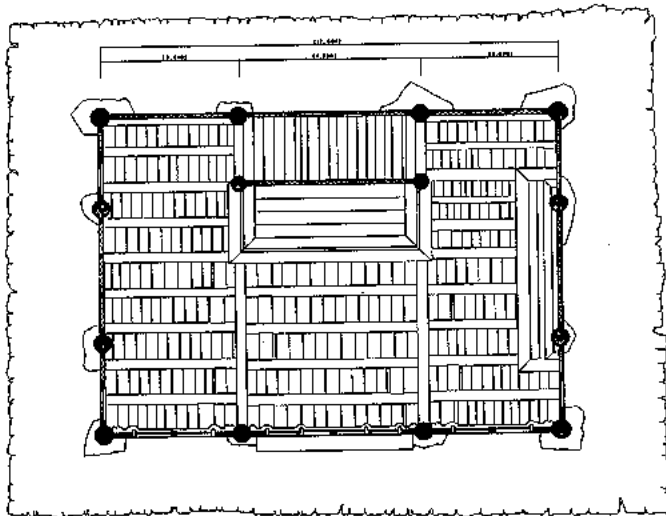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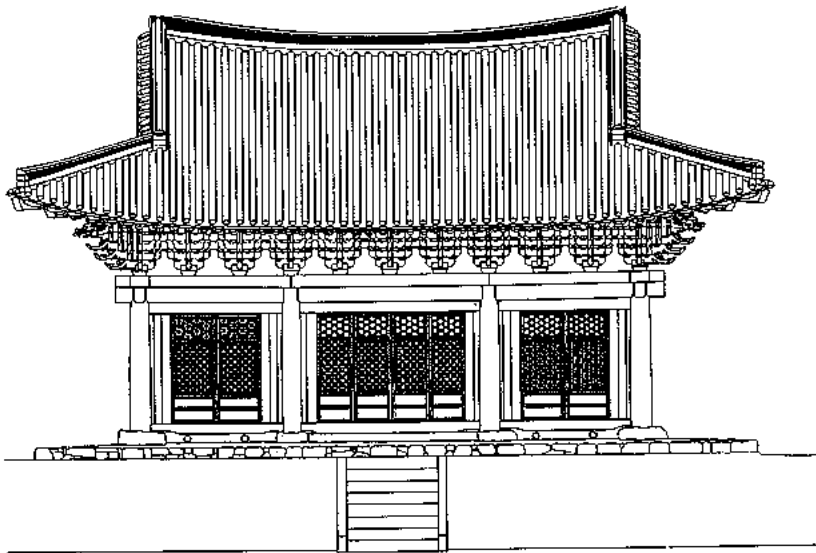
10



11



12



이러한 형식의 공포와 빗천장의 장식 역시
쌍계사대웅전과 같은 것이어서 이 두 집은 같은 匠人
또는 같은 계열의 목수가 건립하였거나 둘중 하나는
전대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恩津雙溪重建碑銘」에는 영조 15년 己未(1739년)에
이것을 쓰고 세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쌍계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리고 만 것을 이때
복구하였다고 하여 이때 애웅전이 중창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두 집을 비교하여 보면 먼저
평면의 구성에서 내소사대웅보전은 정·측면이
측면이 다같이 3칸이며 도리칸과 보칸의 전체 비례가
1:4:1로 $\sqrt{2}$ 의 비를 나타내고 또 전면의 중앙
어칸과 협칸의 비를 4:3으로 측면에서는 3:2로
계획하여 포작을 배열하는데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입면으로 보아 조화가 잘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쌍계사대웅전에서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전체 주칸의 비가 약 2:1로서 세장한 비례를
보인다. 다음 포작에 있어 전자의 경우 외 3출목 내
5출목을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 외 4출목을
이루었지만 그 조각과 무늬는 거의 같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첨차의 공간을 파는데 전자는
깊고 경사지게 파고 후자는 약간 경사진 형식이다.
셋째 격자 반자의 안틀 彫飾을 보아도 거의 같지만
전자에서 더욱 아름답고 세심하게 조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빗천로 기둥의 가공을 들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어느 정도 배흘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후자에서는 자연스런 모양을 되도록 살리었고 그
굵기도 투박할 정도다.

이상의 비교 이외에도 문작의 짜임새, 내부 층량의
위치와 불단양식 등 두 건물이 유사함을 보이나
전자에서 더 격식을 갖춘 전통적인 기법을 볼 수
있다. 다만 내소대웅보전에는 닻집이 없어 짜임새가
덜하지만 이 부분의 층량머리 조각을 생략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닻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비교로 본다면 이 두 건물은 건축년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소사대웅보전이 더욱
격식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 건물이 좀 앞선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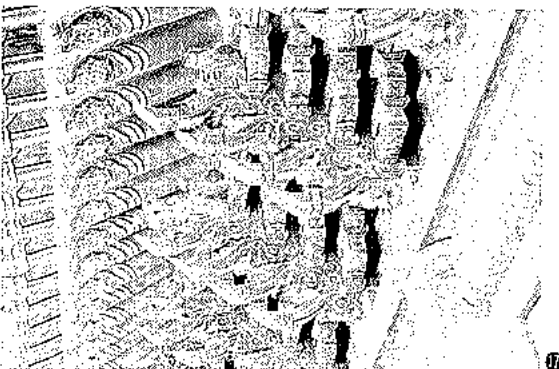
3. 威鳳寺 普光明殿

위봉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홍리에 있다.
창건년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제 무왕때 창건된
절로 구전되어 온다. 그후 고려 나옹선사가 1359년에
중창하고 한때는 이 지역의 대찰이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 절은 조선 숙종때 위봉산성을 축조하여
비상시 전주 경기관에 모신 이성계의 영정을
보존할 행궁과 함께 성내에 세운 14개의 사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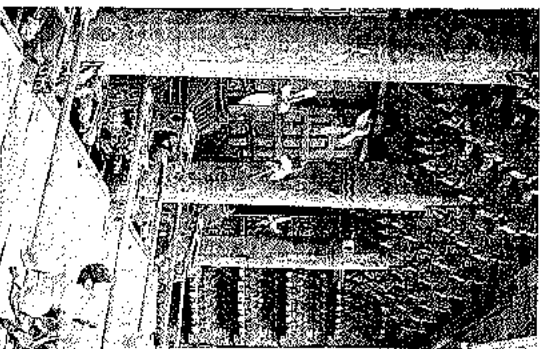


- ⑪ 대웅보전 정면도
- ⑫ 평면도
- ⑬ 종단면도
- ⑭ 쌍계사 대웅전 전경
- ⑮ 대웅전 전면공포 상세
- ⑯ 내부가구 전경
- ⑰ 총랑과 대랑 결구
- ⑱ 위봉사 보광영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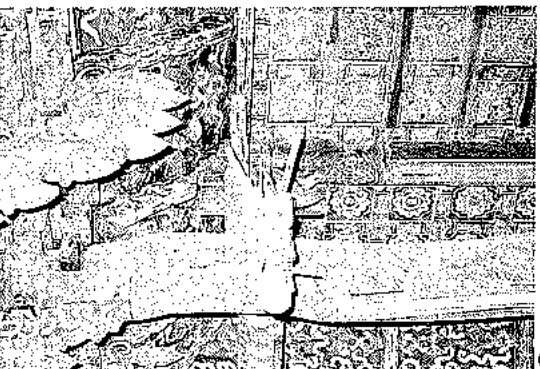
⑫



⑬



⑭



⑮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찰이라고" 하나 자세한 기록을 알 수 없다. 이 절에는 현재 보광명전 이외에 '工'자 평면을 한 요사채와 삼성각이 있다.

보광전은 평면으로보아 역시 정·측면 각 3칸씩 세운 다포계의 팔작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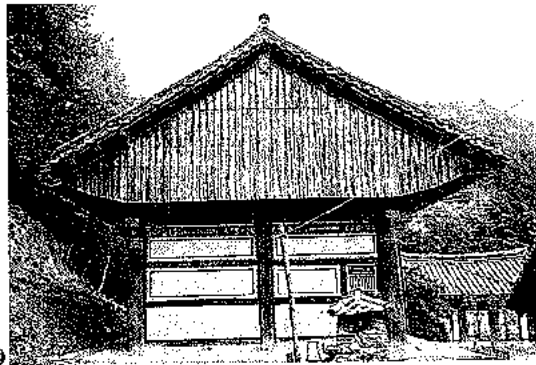
얼른보아 자연초석 위에 세워진 기둥의 흘림이라던가 처마를 깊게 돌출시켜 추녀를 받치는 활주를 사용한 것 등 위에 기술한 건물들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건축이다. 특히 공포는 내외 3출목을 짜았는데 외부로는 견고하고 세련된 포작을 보이며 조선 중기 이전까지 특징도 엿보이는 형식이다. 내부로는 살미끝을 연줄기와 연꽃으로 彫飾한 화려한 의장을 보인다. 또 불단 위에 짜여진 담집도 화려함을 나타낸다.



⑱



①



②



③



④

4. 崇林寺 보광전

승림사는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송천리에 있다. 威悅邑誌에 의하면 1345년 고려 충목왕 원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崇林寺法堂重修記」에 의하면 嘉德 24년(1819)에 중수하였음을 밝히고 보광전 명문 기와에는 崇禎元年(1628)銘과 康熙 21년(1682)명이 발견되어 중수년대를 추정할 수가 없다. 함라산 서기슭에 위치하여 남향한 가람으로 북쪽 높은 대지 위에는 보광전을 배치하고 그 동쪽에는 나한전과 그 아래 靈源殿이 놓이고 보광전 앞 입구에는 우회루가 놓이며 가람 서편에는 요사채와 정혜원이란 부속건물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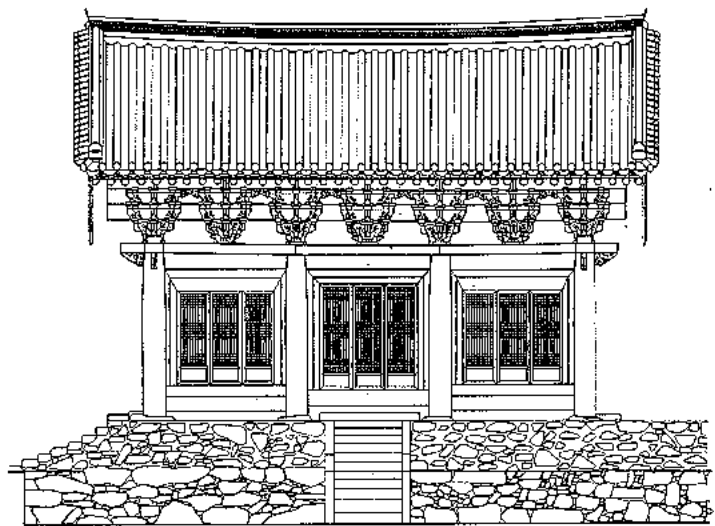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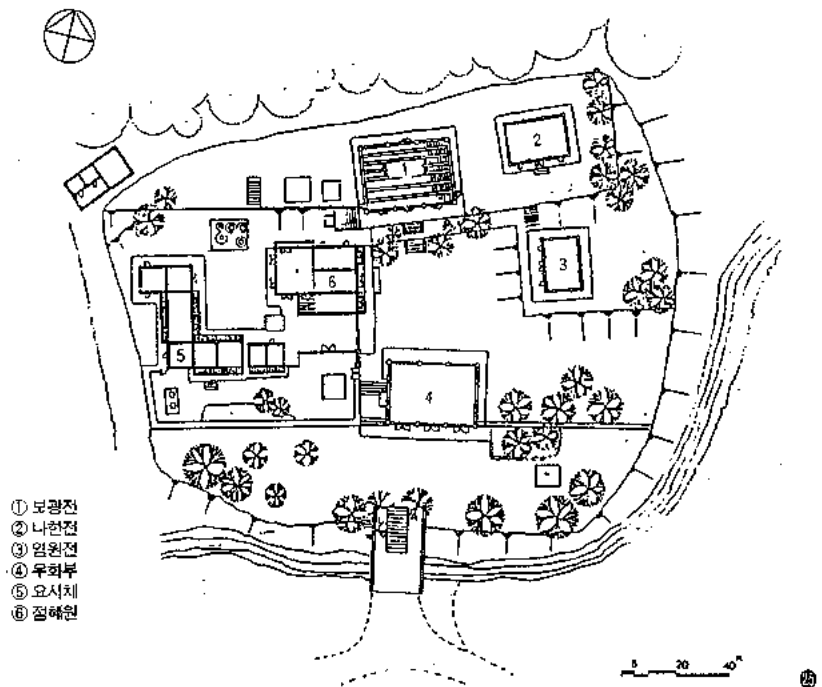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의 맞배집이다. 다포이면서 맞배인 점이 개심사대웅전과 같이 특이하고 측면에 짧은 평방을 놓은 것도 이색적이다. 특히 전면 공포는 연화무늬 주두위에 내의 3출목의 포작을 꾸미었거나 후면 외부만은 간소화하여 1출목을 두었다. 처마에 연꽃을 彫飾하고 살미 위 한대끝을 당초와 공포는 살미의 끝을 경사지게 깎아 직선을 이루고 출목도 처마도리를 받는 외출목만 짜야 간소화시키었다. 이것은 중수시에 변형된 수법으로 믿어진다. 지붕도 전면은 부연을 둔 겹처마로 하고 후면은 부연없이 후처마를 하였다. 이러한 예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후측 산에서 흐르는 물의 습기로 후측 목재가 부식이 빈번하여 보수시에 간소화시킨 수법이다.

건물의 내부에는 살미의 끝을 연봉과 당초무늬 등으로 조각하고 그 위를 용두와 봉황 등으로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불단 위에는 역시 화려했던 닻집과 용과 봉황 그림 등을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이상의 예시한 사찰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통되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가람은 산기슭에 위치하는 산지가람을 보이며 경내를 몇 단으로 구획하여 남향하고 제일 높은 후측단 대지 위에 주법당인 대웅보전이나 대광명전을 배치하였다.
- 2) 사찰의 창건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당시의 가람배치는 전혀 알 수 없고 현재의 건물이나 건물배치는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중기 이후의 것이다.
- 3) 건물의 배치를 주법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중정공간을 두고 입구와 동서편에 주요건물을 배치하고 그외의 건물을 그 외곽으로 배치한 소위 3壇의 위계를 이룬 배치를 보이고 있다.

- 4) 주법당인 대웅보전이나 대광명전 등의 건물의 특징을 보면 승림사보광전을 제외하고 모두 겹처마 팔작지붕을 한 다포집이다.
- 5) 이들의 건물은 평면으로 보아 정면과 측면의 길이 비가 개암사대웅보전에서 약 1.5:1이고 기타건물에서 1.4:1을 보이며 古式건물에서 볼 수 있는 $\sqrt{2}$ 의 균제를 나타내며 건물평수가 승림사 보광전(22평)을 제외하고는 약 30평 내외였다.
- 6) 가구짜임에 있어 맞배지붕을 한 승림사보광전을 제외하고는 정·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충량을 두었는데 충량머리는 용두 등의 화려한 조각이 있었던 것 같다.
- 7) 공포 짜임에 있어 개암사대웅보전이나 승림사보광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두에서부터 연꽃무늬를 표현하여 조각한 경우도 있고 또 첨차에도 연꽃줄기의 곡선을 나타냈는가 하면 최소한 첨차에 조각하고 건물내 살미끝에 연봉과 꽃을 표현하여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포작위 한대끝에서 연화 또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 8) 이들은 다같이 전라북도 즉 고대 백제지역에 있는 건물 들이고 시대는 조선중기 이후의 건물이다.



- ㉑ 승림사 보광전 정면
- ㉒ 좌측면
- ㉓ 전면공포 내부
- ㉔ 후면공포
- ㉕ 승림사 배치도
- ㉖ 승림사 보광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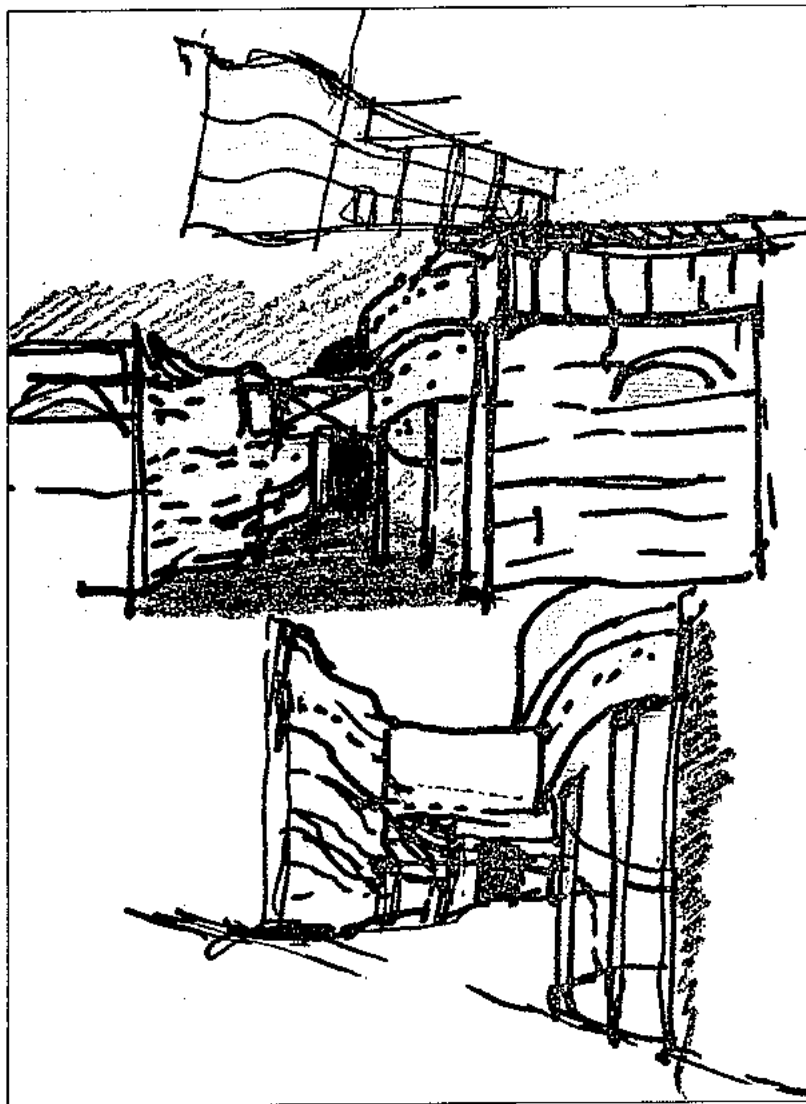
註)

- 1) 홍승식은 「한국의 불교미술」에서 예불의례를 기준으로 나누되 상단에 대웅전 등의 불·보살을 모신 전각을 속하게 하고 중단을 조사당이나 선종문 등 선종신앙의 대상을 모신 전각으로 속하게 하고 하단에는 산신자 등의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또 문명대는 상·중·하를 불단, 보살단, 선종단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2) 김봉열,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研究 교리해석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3) 정인국,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88(6刷).
- 4) 홍대형, 개암사대웅보전 건축형식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5) 전라북도, 文化財大觀, 1979.
- 6) 申榮勳 編著, 國寶 18 寺院建築Ⅱ, 예경산업사, 1986.
- 7) 前掲書.

앙뜨완느 그룸박의 쁘와띠에 지방청사

Antoine Grumbech's
Hôtel de Région, Poitiers

朴賢燦/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렌
by Park, Hyun-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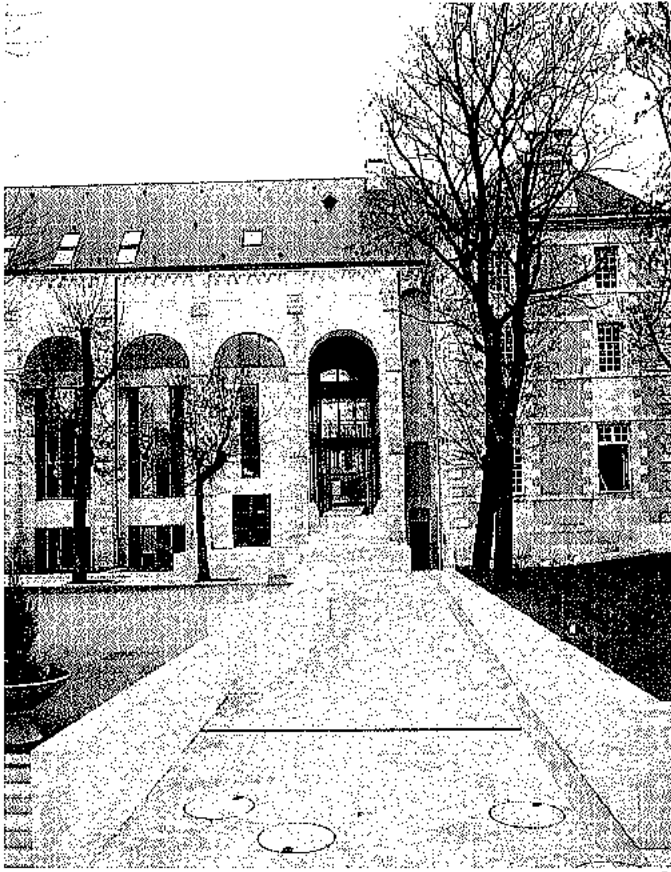
■ 서

1942년 알제리의 오란(Oran)에서 출생한 프랑스 건축가 '앙뜨완느 그룸박'(Antoine Grumbach)은 보드앵(Baudouin)의 제자로 파리 국립 미술학교(Ecole des Beaux Arts)를 거쳐, 1967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Ecole Pratiques des Hautes Etudes)에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교수의 지도 아래 졸업한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파리 국립건축 6대학, 소대학 교수로 제직하였고,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파리 벨빌국립건축대학교(Ecole d'Architecture de Paris-Belleville) 교수도 있다. 그외의 교수경력으로,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영국의 에섹스대학, 미국의 프린스턴대학, 하버드대학 등의 객원교수도 역임했다.

많은 국제적 전시회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1978년 로마에서의 '로마 엔테로타'(Roma Interrota)전, 1980년 파리의 Nina Dausset 화랑과 뉴욕의 MaxProtech 화랑에서의 마이클 그레이브즈, OMA, 마서모스콜라리 등과의 공동전, 베니스 비엔날레, 1984년의 베를린에서의 IBA, 1985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의 '건축의 새로운 회열'전, 1986년 암스테르담에서의 '파리-도시건축 1980~1986'전, 프랑크 푸르트 건축박물관에서의 IBA, 동경의 '모던의 재조명, 포스트모던 건축 1960~1986'등을 들 수 있다.

실현작으로는 1970~85년 신도시 '마른 라 발레(Marne-la-Vallée) II 구역의 공용공간(가로, 광장, 정원, 수로계획 등), 1982년 파리 20구의 8세대를 위한 집합주거, 1985년 마른 라 발레 누와지르 그랑(Noisy le Grand)의 121세대 집합주거, 베를린의 클럭스트라세(Kluckstrasse)와 33세대 집합주거(IBA), 파리 14구 브랑쿠시 광장의 주상복합건물, 뽀와띠에의 D. D. E. 청사, 파리 20구의 자개발, 1986년 뽀와띠에 지방청사, 파리 10구의 즈마쁘 강변의 집합주거, 1987년 파리 20구의 주상복합, 집합주거와 주차장, 베를린 테겔(Tegel)의 집합주거(IBA), 1988년 파리 생미셸(Saint-Michel)지역 재개발 등이 있다. 도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연구, 많은 국내외 현상설계의 참여를 통하여 그의 '도시건축'(Architecture Urbaine) 이론을 발전시키고, 전개하면서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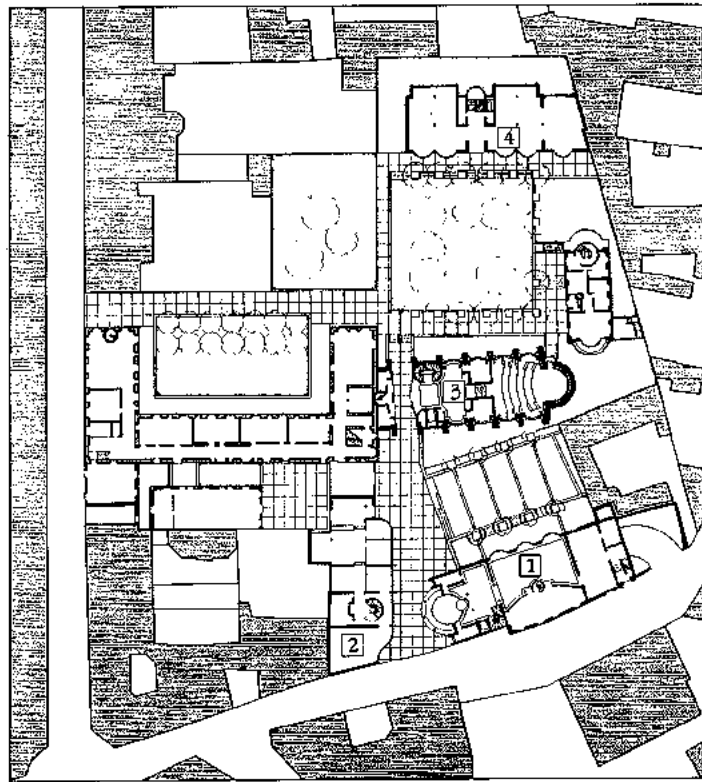
- ① 앙뜨완느 그롬박의 초기 스케치
- ② 중정과 통로 부분에서 본 뵈와띠에 지방청사의 전경
- ③ 상층부 외랑 및 연결부
- ④ 1층 평면도
 - ①의장실, 안내, 전시실, 자료실
 - ②대표실, 경제, 사회평의회
 - ③의회실, 회의실, 집무실
 - ④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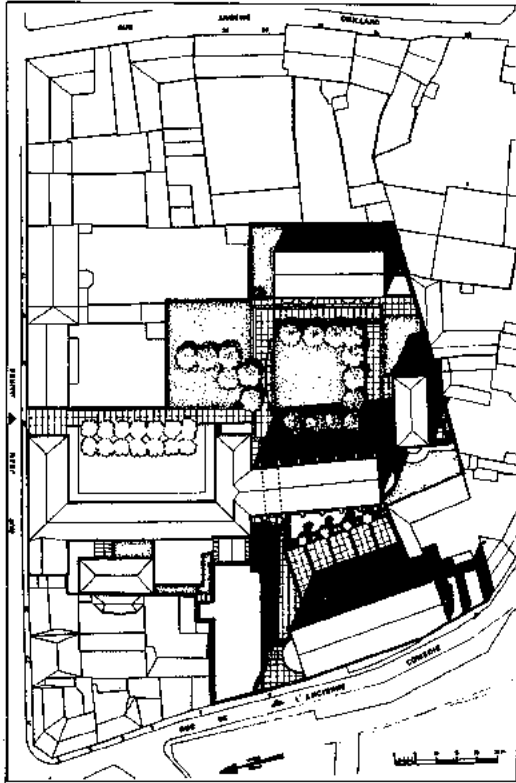


■ 뵈와띠에 지방청사 (1983~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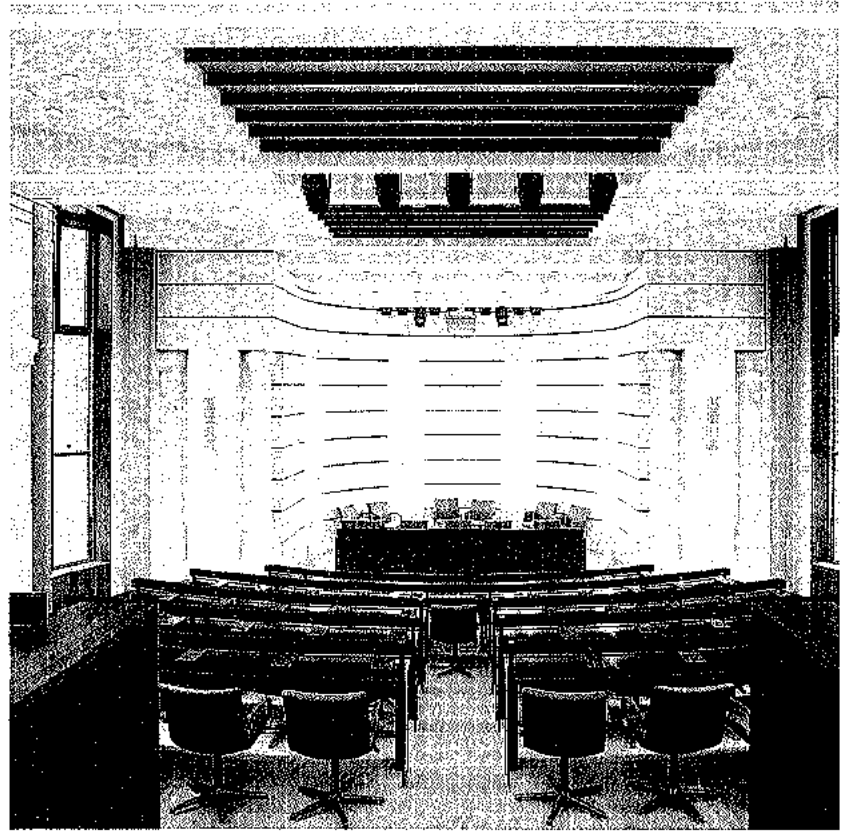
앙뜨완느 그롬박의 대부분의 작품이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복잡·난해하게 얽혀있는 도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도시에서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리며,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도시를 재구축하는데 기여한 사례로서, 또 도시와 별개로 분리된 건축에는 흥미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건축가의 견해가 잘 반영된 뵈와띠에 소재 지방청사를 살펴 보기로 한다.

건축주는 '뵈와뚜 샤랑뜨'(Poitou-Charentes)지방의회로, 1983년 지방의회에서 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대상대지는 뵈와띠에시의 중심부 보존지구에 예전에는 종교학교가 있던 곳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로 구성된 이 지역은 기존 콘텍스트가 건축 양식적으로 흥미로운 상이함을 주고 있어서 많은 새로운 건물이 부가되는 것이 부각된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기존공간의 변형과 요소의 재활용에까지 5개의 건물은 분리된 프로젝트에서 각자 적합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다양한 건물의 유형은 적절한 기능을 각기 유도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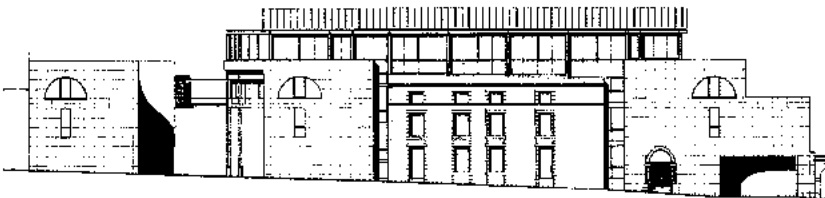




6



6



7



8



9

- ⑥ 배치도
- ⑦ 개조된 성당 내부의 의회실
- ⑧ 가로에 면한 입면
- ⑨ 다양한 건물의 단면
- ⑩ 중정과 가로를 연결한 통로에서의 단면

여기서 앙뜨완느 그롬박은 도시환경을 재구성하려는 지방의회 의원 부재에 직면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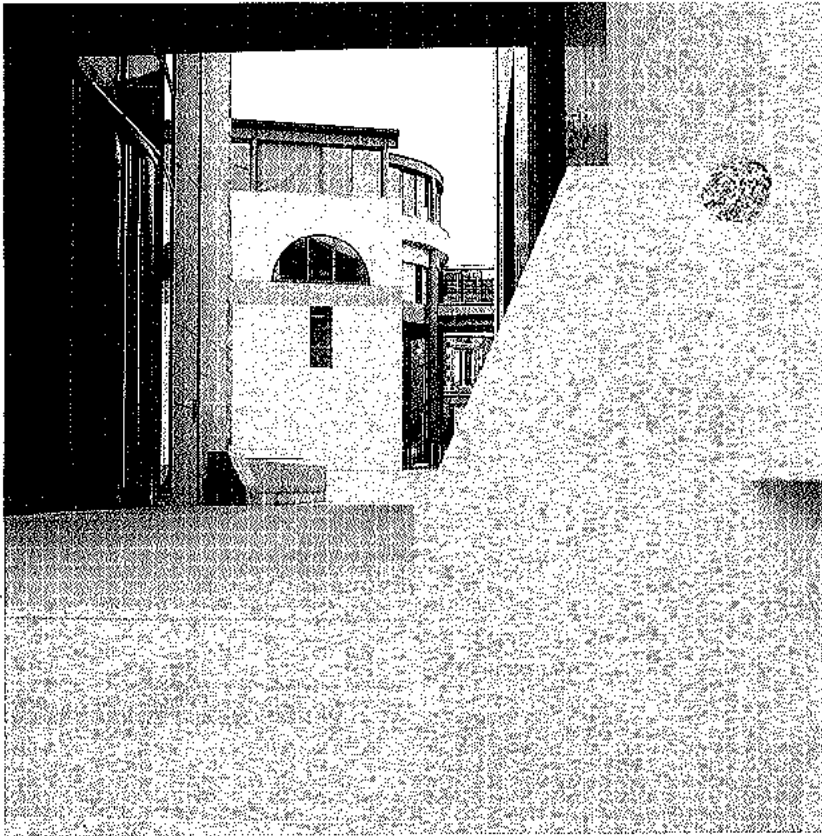
본 청사의 건설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건축가의 개념은 '분열·분화된 기관' 즉, '뻔뻔'에 같은 고도의 지방의회 기관은 도청과 같이 새로운 건물일 수 없고, 다양한 공공공간과 통로, 정원, 순환되는 내부공간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본 대상지구 불력이 도시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그것이다.

본 청사는 여러 다양한 건물의 총체적인 구성을 피하고, 각각의 건물은 개성과 기능적 특수성을 갖추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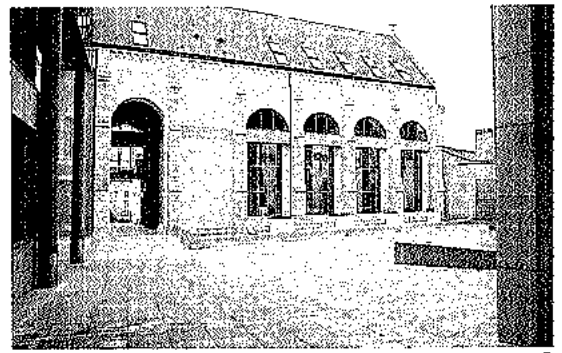
내부기능은 의장실, 행정국, 안내, 전시실, 자료실, 대표실, 산업부문실, 경제, 사회평의회, 의회실, 회의실, 접견실, 의원사무실, 사무실로 구분된다. 행정동의 면적은 5천㎡이고, 의회실, 의원사무실, 접견실은 1천2백㎡의 규모로, 공사비는 '83년도 가치로 65억정도이다.

앙시엔느 코메디(Ancienne Comédie)가로의 옛 파사드의 유지와 오래된 소성당의 유물은 본 프로젝트를 특징짓고, 중정과 정원 주위의 공간배분은 두 가로의 연결은 가능하게 하면서 보행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앙시엔느 코메디 가로에 면한 18세기의 파사드, 소성당의 개보수, 새로운 건물의 구축은 역사와



- ⑩ 내부 중정에서 본 청사
- ⑪ 개·보수된 19세기 성당 외관
- ⑫ 엑스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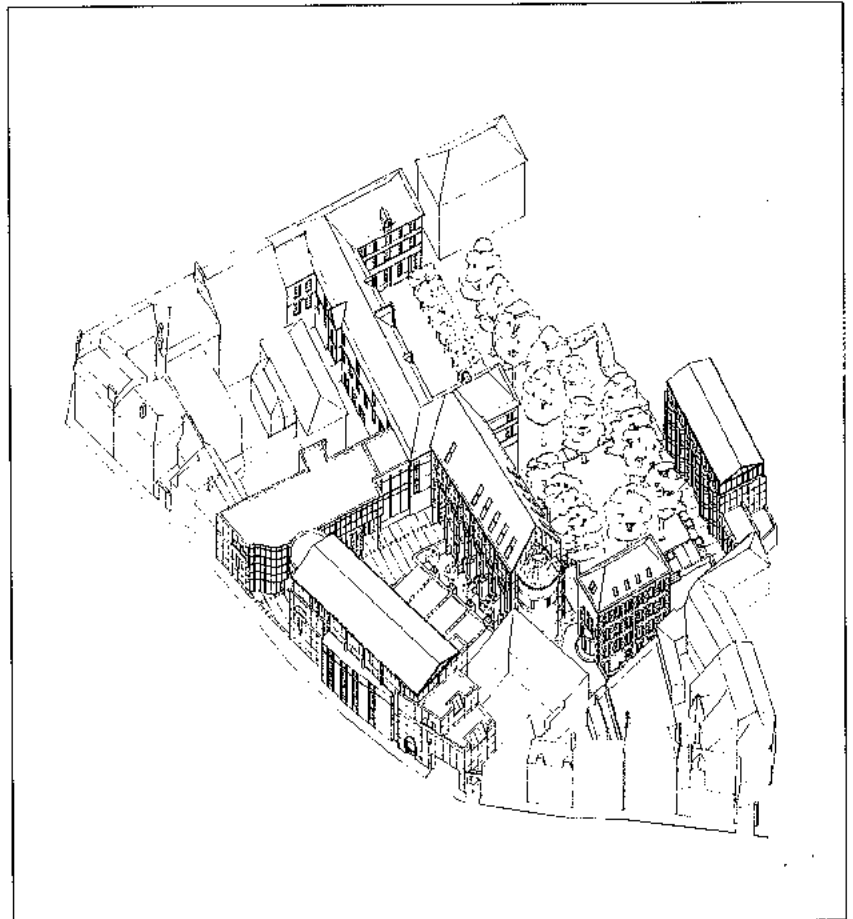
현대성 사이의 '편조'(le tressage)를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건물의외부 재료의 사용 또한 쇼비니(Chauvigny)석, 철재, 유리가 다양하고 조화롭게 사용되어서 그리한 작가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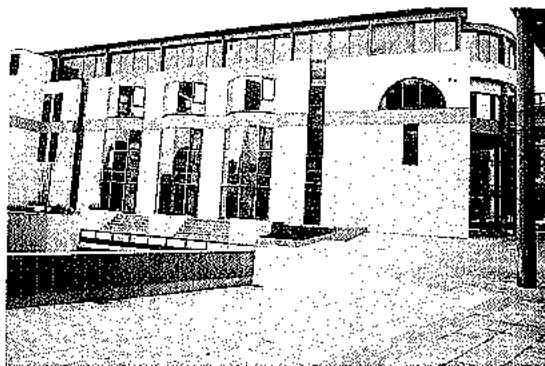
6m폭의 좁은 가로에 면한 입구부분 처리는 상징적 공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유리면에서 반영되는 건물 전체높이의 도시적 외랑에 의하여 훌륭한 부대장치인 모색을 시도하여 지방의회와 존재 부각, 입면의 상징성, 건물의 기념비적 양식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상지구에 있던 19세기 소성당을 철거하고자 했으나, 건축가는 이를 개수하여 빛이 많은 거대한 중앙홀로 변형하였고, 본 건물의 공간이 지방의회와 경제·사회 분과위원회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혁신적인 건축 테크놀러지가 옛 건물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중첩('imbrication')시키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내부공간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자연채광이 동선의 방향제시 요소로 활용된 것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들 수 있다. 1층 안내부분의 도색된 금속재, 대리석, 철재기둥, 매달려 있는 무광처리 유리로 된 천장재의 구성 그리고, 계단 참 부분에서 벽체와 문은 목재, 바닥은 대리석재로 조화롭게 마감된 것을 비롯하여, 안내홀과 전시실 부분에는 조명장치와 천장에 격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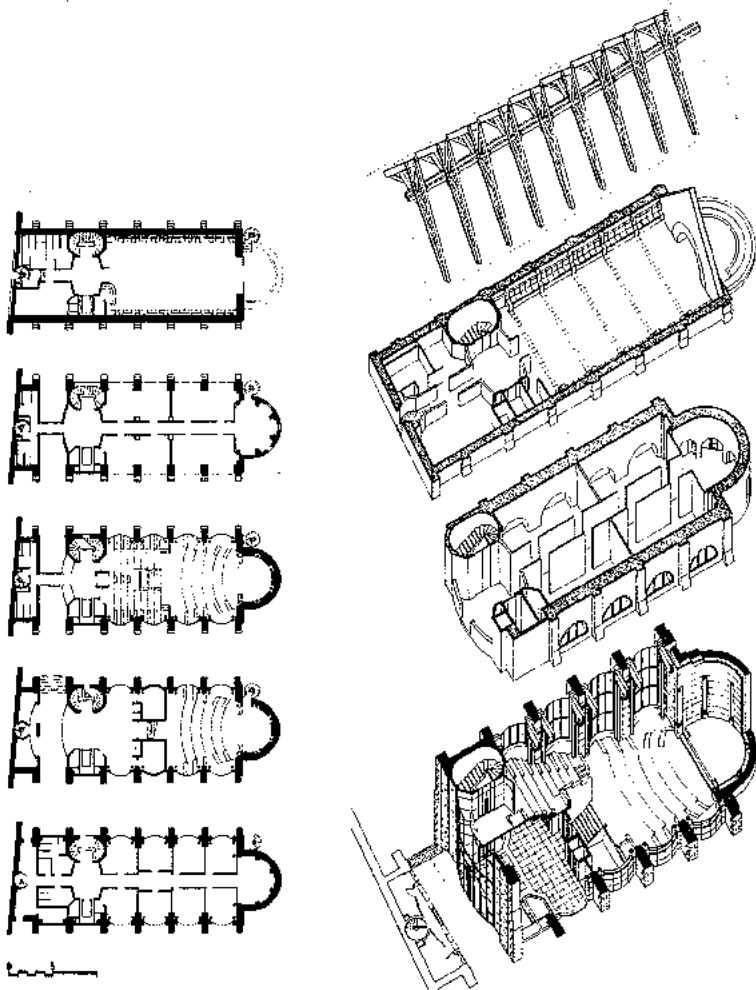
- ⑬ 중정에서 본 파사드
- ⑭ 개조된 19세기 소성당의 총괄 평면 및 엑소노메트릭
- ⑮ 입구 부분



⑬



⑮



⑭

된 걸 수 있는 틀의 정교한 체계가 모든 행사를 위해
본 공간이 가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통로부분에는 유리로 된 갤러리나 유리블럭
처리같은 항상 풍부한 건축적 분위기가 수직·수평
동선의 공간적 질을 부여하고, 상층부의
업무공간들은 중정을 향하여 개구부가 열려있다.

공용부분의 조명기구나 전기설비 소품들은 본
건물은 위해 특수히 제작되는 세밀함과 정교한
디테일의 처리도 건물의 질을 높이고 있다.

■ 결

뽀와띠에 소재 D. D. E. 청사에서도 앙드르느
그롬박이 시도했던 것은, 대상대지가 舊도심의
경계에 위치하며, 그 장소의 기억에 대한 이미지의
통합에 초점을 두었고, 현대성과 테크놀러지가
집합적 기억의 관심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도시 콘텍스트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가 그리는 도면을 살펴보면, 건축 및 도시에
대하여 '컨텍스트', '역사', '이미 존재하는 것'을
떠난 오브제적 건축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그롬박의 견해가 명백히 나타난다.

즉, 1층 평면도와 배치도의 중첩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대상지 불릭본 아니라 주변의 가로체계와
주변건물의 입지상태를 도시하여 계획건물이 도시의
물리적 컨텍스트와 연계된 상황을 명확히 보여
주면서, 대상가구와 도시와의 관계, 내부공간과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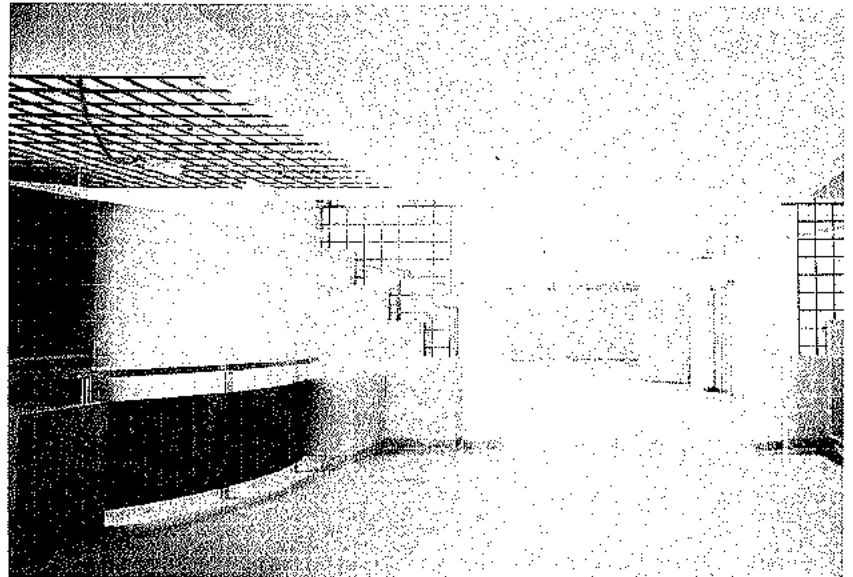
외부공간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엑소노메트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주변건물들도 같이 그려주어서 주위상황과의 연계 및 통합된 도시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있다.

그림박이 주변 건물과 그 장소의 역사를 모른다거나 또는 획지, 유형, 공용공간의 구성을 조정하는 감추어진 구조를 모른다면, 도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교훈적이고, 도시형태와 건축유형에의 깊은 연구와 건축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시를 논하며, 그러한 연구와 이론이 발전된 건축도면에서 잘 표현되고 또 그것이 실무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일관된 건축행위를 높이 평가 할 수 있겠다.

작가가 전개한 '분열·분화된 기관' 과거와 현대사이의 '형태적 편조' 그리고 과거의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본 작품은 정리된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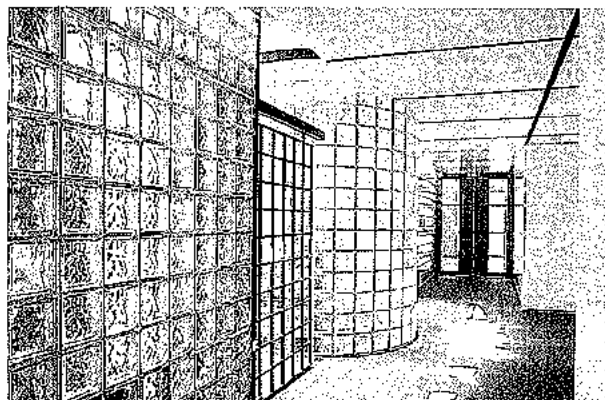
- AMe No 16 Juin 1987
- Hôtel de la Région, 1987
- AA No 208 Avril 1990
- 폴러스 No 22, 8902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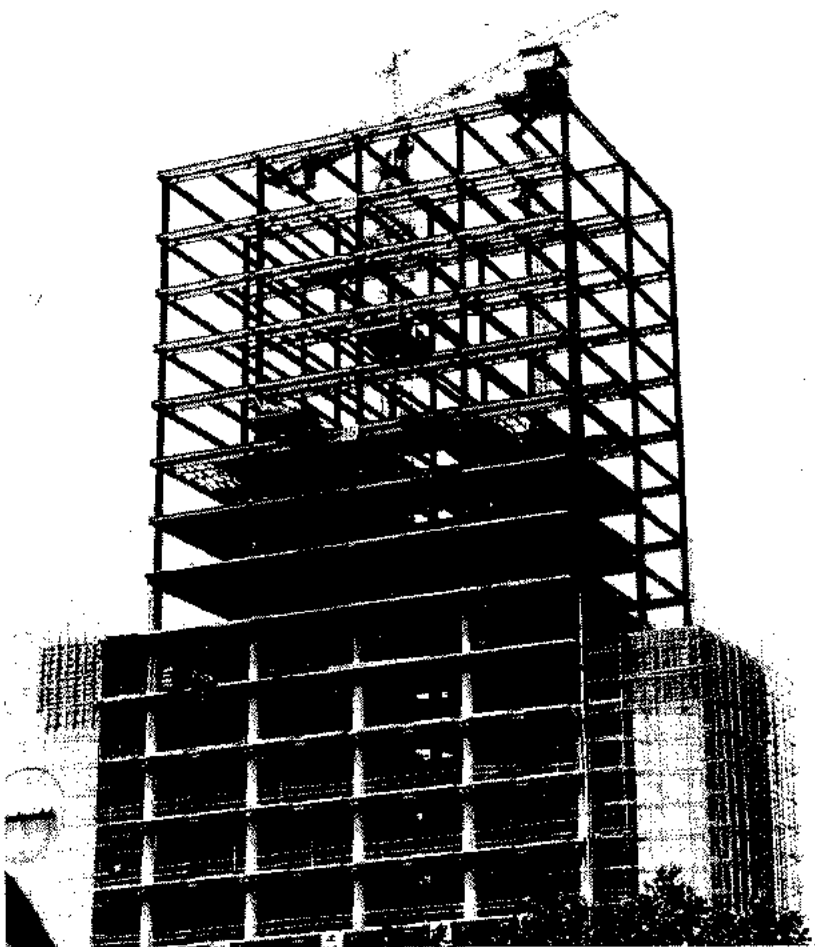


⑬

- ⑩ 쪽 6m 가로에서 본 청사
- ⑪ 전시실과 영접홀
- ⑫⑬ 내부 사진

建築構造物 스판의 長大化

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ilding Structures



金鍾洛/승실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工博
李鶴洙/(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工博
By Kim, Jong-Rak & Lee, Hark-Soo

1. 空間重疊構造에서의 보의 역할

(사진1)은 일반적인 復層의 鐵骨鐵筋콘크리트구조의 骨組를 나타낸것이다. 水平材인 보(Beam, Girder)는 기둥과 함께 독립되게 생각해보면 1次元의 線形 部材이다. 기둥은 그 材軸方向 힘에 저항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보는 것은 선형의 部材라 하더라도 材軸直角方向의 결합에 저항하여야하는 部材이다. 간단한 보로 생각해보면 兩端部만이 支持된 수평材를 생각해보자. 材軸의 垂直방향으로 수직하중과 自重을 받게되고 힘을 유발하여 支點에서는 회전이 생긴다. 즉 彎應力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의 내부에 생기는 부재단면 응력은 전단력, 彎모멘트, 軸방향력등 복잡하게 형성되고 기둥과는 달리 대개의 보는 彎모멘트가 지배적이다.

(사진2)는 Athens의 Parthenon신전(BC 447~438) 내부이다. 높은 출입구의 상부에는 석재의 보(?)가 설치되어있다.

(사진3)은 A.D 479~490년경의 Qalaat Seman수도원 남동쪽 모서리 부분으로 석재보로써 중첩된 것을 알수 있다. 물론 그 시대에 力學的인 안전성 검토는 할 수 없었다. 아치구조의 연장으로도 생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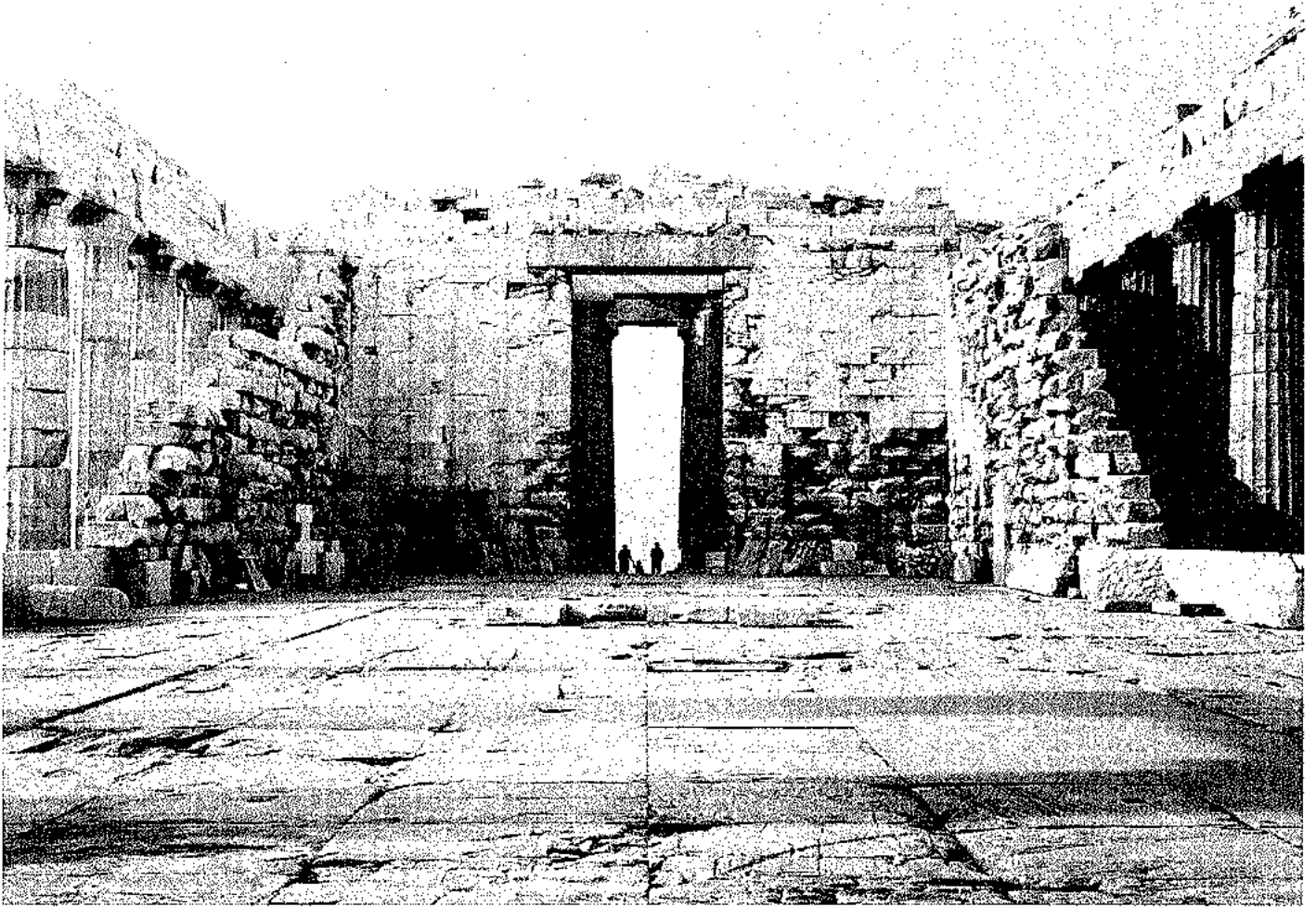
보의 耐力 또는 역할의 한계를 검토한 것은 Galileo Galilei(1564~1642)에 의해 실시된 캔틸레버보에 관한 실험연구 이후일 것이다. 그 이후 약 200년이 지난 다음 Robert Hooke(1637~1703), John Bernoulli(1667~1748), Leonhard Euler(1707~1783) 등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힘을 받는 보의 内部應力에 대하여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론이 정립되었다.

(사진3)은 목조건축에서의 보 부재이다. 19世紀에도 우리를 주변은 목재의 경우 경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목조와 함께 보부재의 역할은 더욱 커져 대형교량에까지 사용되어지고, 경제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19세기후반부터 서구유럽에서는 철의 재련기술이 개발되어 Double T단면을 등장시켰다. 즉 I형강 또는 H형강의 등장이다.

상하의 兩端에 생기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에 대하여 각각의 플랜지(flange)가 저항하는 것을 실현시킨 것이다. 효과적인 부재의 단면을 창출한 것으로 단면 중립축에서의 거리에 비례하여 부담응력이 커진다는 것을 철저히 이용한 것이다.

(사진5)는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鍊鐵製 I-Beam을 나타낸것이다. 당시에는 I형 강괴(Bloom)의 크기의 제한으로 비교적 작은 부재가 생산되었다.



(사진4)는 Sir William Fairbairn(1789~1874)著作의 'Re 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Iron to Building'(London 1857)에 소개된 조립보이다. 이는 경제적인 대형스판 구조에 대한 철재 보부재 적용의 시작이며 이러한 보부재는 발전을 거듭하여 큰공간을 연출하게 하고 나아가 공간의 중첩을 손쉽게 했다.

2. Preflex Beam이란 ?

구조설계의 과정에서 가끔 건축가와 구조기술자가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정해진 층고에 대형스판을 원할 때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설사 斷面應力上으로는 충분하다 하더라도 변형에 따른 變位가 지나쳐서 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크게 해야 하므로 보춤이 높아져 층고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 설상가상으로 설비까지 얹혀서 보의 높이가 크게 말쑥이 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부득이 하게 보의춤(높이)보다 보의폭을 크게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사진7)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보 설계의 기본을 나타낸 것이다. 상부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응력과 하부의 철근이 부담하는 인장응력의 균형을 생각하여 설계되어진다. 철근이 부담하는

- ① 철골 철재 콘크리트 구조의 골조
- ② 파르데는 내부

능력은 철근 단면응력에 팔길이를 곱하게 되므로 보의 높이가 높아 질수록 부담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사진6)은 I형鋼鐵骨보의 한 축방향 휨일 때의 응력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상하단 플랜지가 같은 크기의 압축, 인장력을 부담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응력상태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보이다.

이들 보는 荷重載荷에 따라 변형이 크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실제 변형이 생기는 방향으로 미리 변형시켜(Camber) 제작 시공하는 방법도 고안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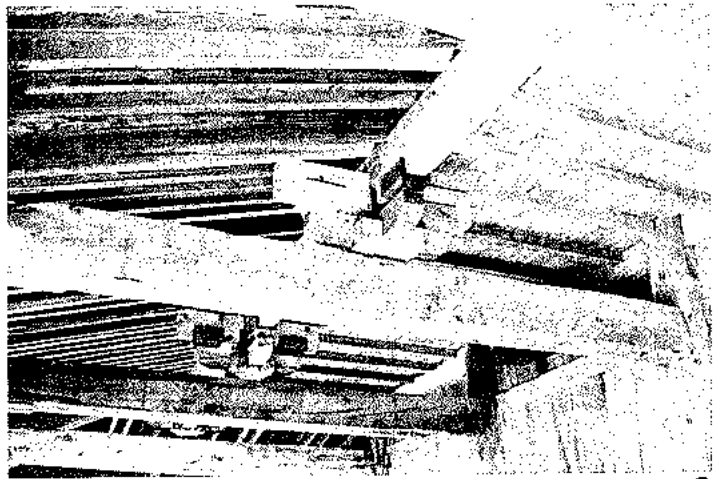
여기서는 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처짐을 이용하여 구조적 개선을 시도한 Preflex Beam을 알아본다.

(사진9)는 Preflex Beam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보부재 端部の 고정방법은 後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순한 보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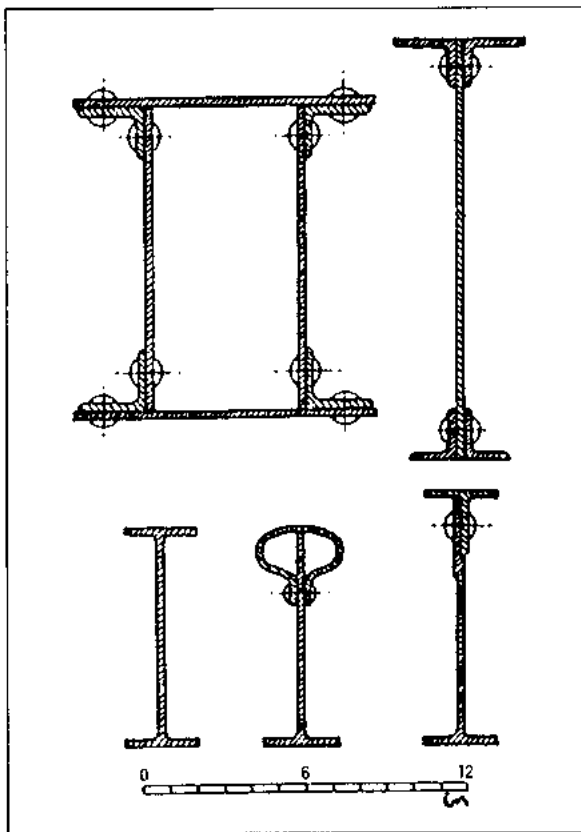
(사진14)는 Preflex Beam의 제작공정 및 사용시의 응력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사진9)의 a와 같이 초기처짐을 부여하여 I형의 보부재를 제작한다. 이때의 초기 처짐은 릴리스 및 설계하중 작용에 대한 계산으로 결정되며 처짐의 방향은 사용시 처짐의 잔대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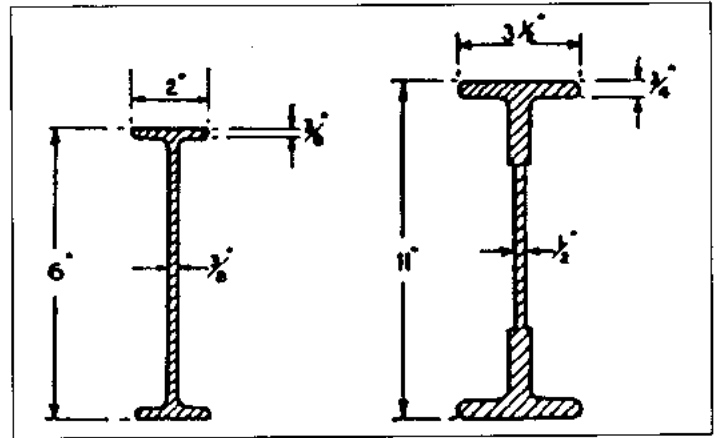
(사진9)의 9는 Preflexion(Preflection)을 가하는 것이다. 고정대에 설치하여 실제설계하중을 加力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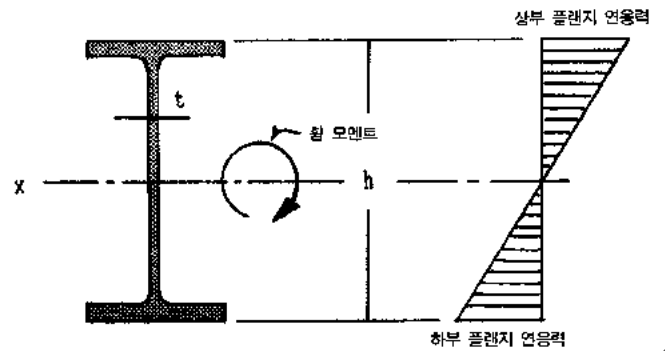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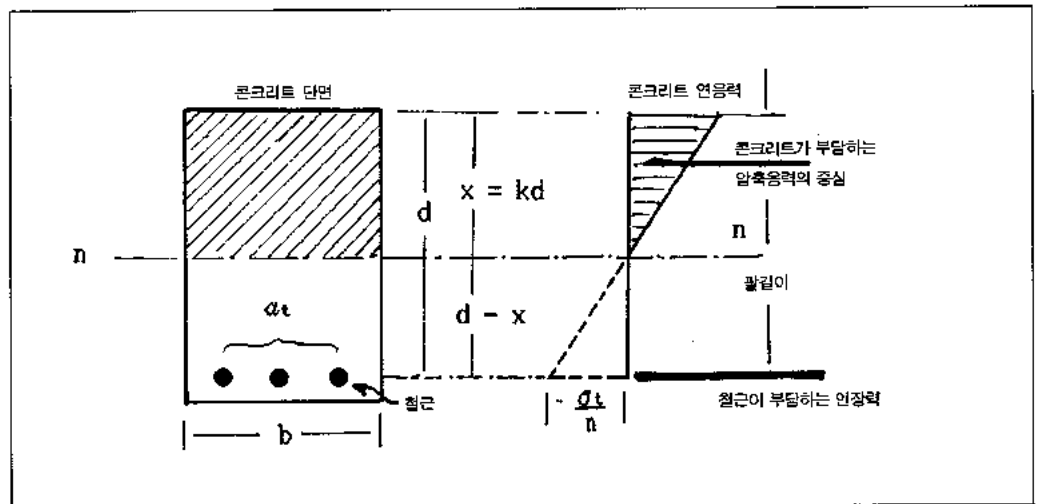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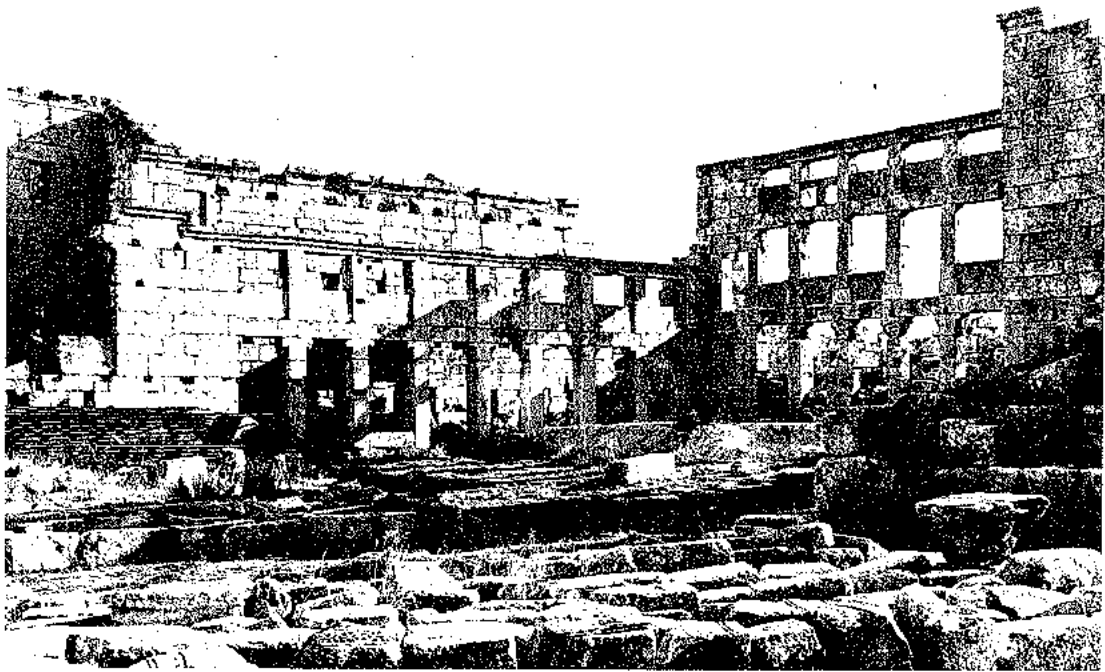
10



11



12



9

것으로 이때에 처짐은 설계하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고 사용시의 처짐이 '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설계하중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斷面內應力은 상단 플랜지에 압축응력 하단 플랜지에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사진9〉b의 상태에서 하단 플랜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부착을 돕기 위한 철근이 배근 되기도 하며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때의 난변응력은 철골보의 경우 〈사진9〉의 a상태와 동일하며 콘크리트 부분은 타설된 상태로 발생응력은 없다.

〈사진9〉의 c는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가력한 하중을 제거한다. 이 상태를 릴리즈라 칭하며 이때의 하단 플랜지 콘크리트부는 압축력이 도입되고 프리플렉스보가 완성된다. 〈사진10〉의 c에서 하단 플랜지 콘크리트에 도입된 압축응력은自重에 의해 그 절대값은 작아진다.

〈사진9〉의 d는 Preflex Beam위에 Deck Plate를 설치하고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로 하단 플랜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진9〉c의 릴리즈 때의 압축력과 연합하여 낮은 응력상태로 머물게 되고 처짐은 아직도 實작용시의 逆방향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사진9〉의 e와 같이 적재하중이 작용하면 상단 플랜지에는 압축응력이, 하단 플랜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누적응력으로 보면 하단 플랜지 콘크리트는 응력이 "0"상태가 되고 철골 하단 플랜지가 引張을 부담한다. 한편 상단 플랜지는 철골 플랜지에는 압축응력이며 콘크리트부에도 작은 량의 압축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응력상태를 안정적으로 저감시킴과 동시에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 좋은 방법이며 長大스판에 적합한 구조방식이다. 또한 일반적인 보에도 적용하며 층고와 관계되는 보의 굽을 낮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Preflex Beam의 구조방식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교량건설에는 자주 도입되는 구조방식이며 철골케브 부분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황좌골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Preflex Beam의 기둥—보 接合

건축은 건축디자인과 함께 구조적 표현이 있으며 동시에 실비와 밀접한 관계의 표출이 건축이라고 글쓰이는 자주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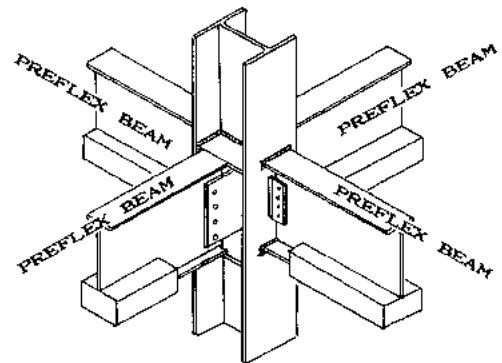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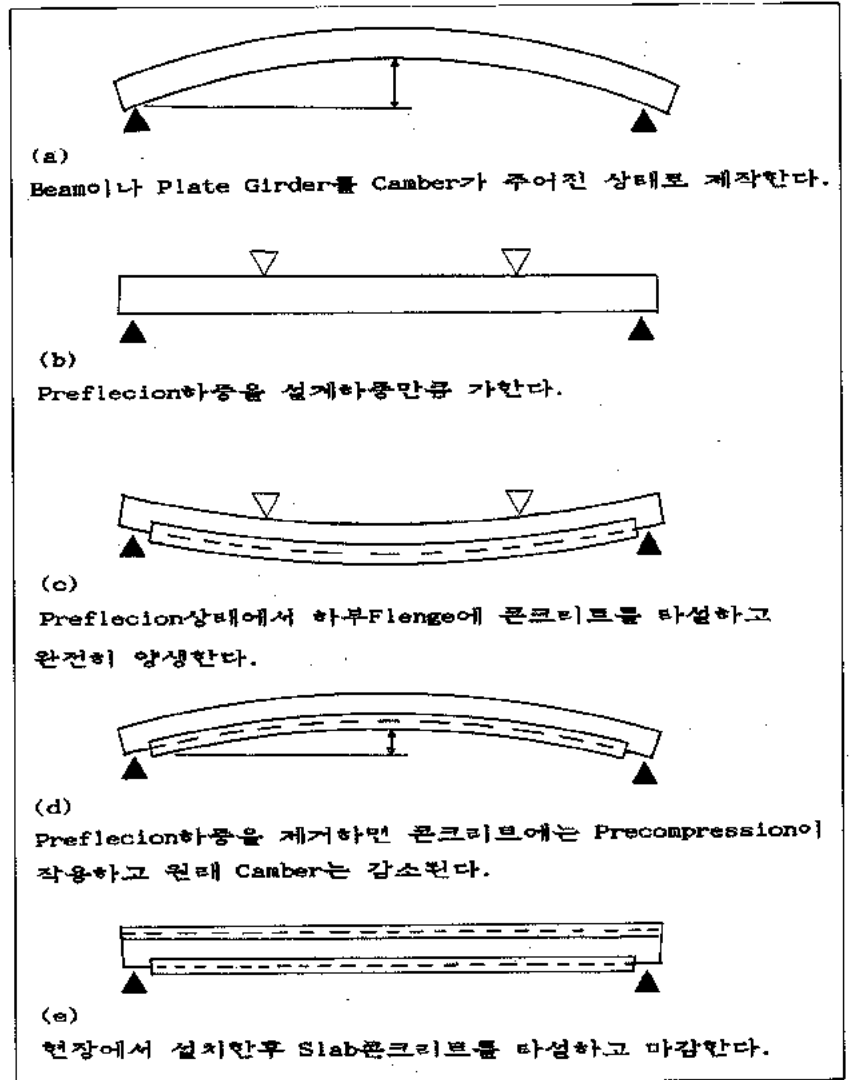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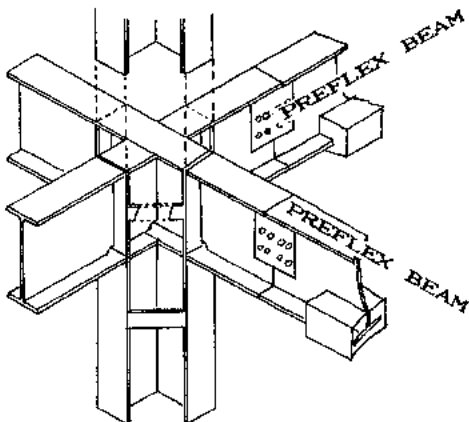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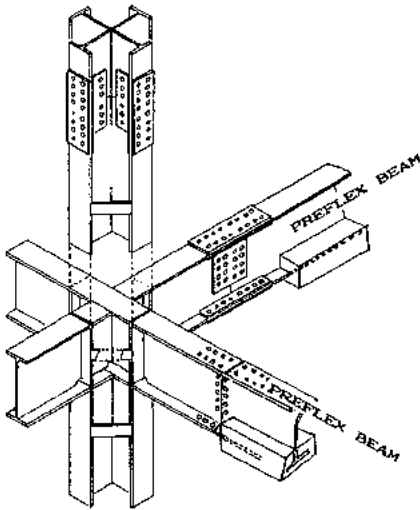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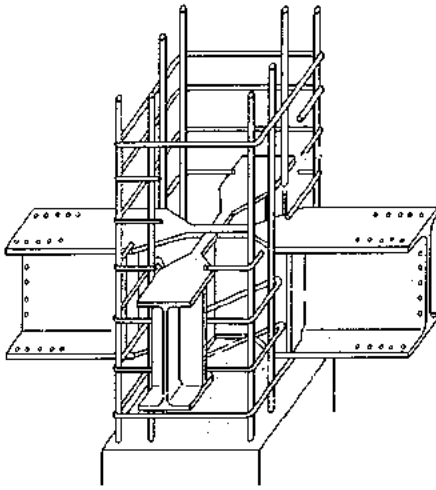
구조설계라고 해도 『구조적』인 범주안에서만만의 생각이 아니고 건축디자인의 이미지(뜻)를 구체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조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큰 숙제이다. 구조설계는 설계자의 뜻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구체화와 더불어 경제성을 감안한 시공성도 배려해야만 한다. 알기쉽게 표현하면 건축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이상 구조기술자도 배려해야 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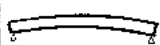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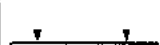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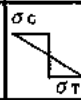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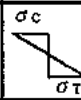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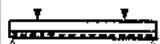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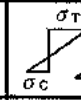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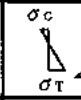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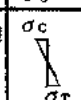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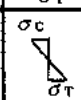
특히 스판이 長大化되거나 고층화가 되면 구조기술자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야 하며 능력이 없다고 인정 받는 경우도 있다.(같은 업종분야에서)

모든 구조기술자는 신뢰받기 위하여 安全性, 生産性, 經濟性의 3개의 域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설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에 가능성이 충분한 구조방식의 하나인 Preflex

- ① 목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보
- ②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Iron to Building(London, 1857)에 소개된 보
- ③ 1859년 파리 만국박람회때 출품된 동철제 I Beam
- ④ 철골보의 힘에 따른 단면응력
- ⑤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면응력
- ⑥ Q a laat Sman 수도원



	狀 態	載荷狀態	應 力 抵抗斷面	저 장 抵抗斷面	發生應力圖	累計應力圖
(a)	鋼 桁 完 成					
(b)	PREFLEXION					
(c)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打設					
(d)	RELEASE					
(e)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打設					
(f)	續載荷重載荷					

Beam의 가장 중요한 기둥-보 접합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사진11, 12, 13〉은 기둥-보 接合部의 한 예를 나타낸다. 특히 철골기둥과 Preflex Beam과의 接合部에 한정하여 생각 해본다.

〈사진12〉Preflex Beam이 기둥의 브리켓트에 핀接合(Pin)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진11〉는 기둥 브리켓트에 모멘트 接合되는 것으로 Bolt 接合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13〉은 모멘트 接合중의 현장 용접接합을 나타낸 것이다. 철골공사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으며 바로 이해가 되리라 믿지만, 接合부가 그 골조의 변형능력 및 耐力를 크게 좌우한다. 그림으로 보아 바로 알수 있듯이 Preflex Beam이라고 하여 공사가 특별히 상이한 점은 없다.

즉 지금까지 실시한 철골공사와 비교하여 난이하거나 복잡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같은 보 일지라도 보의 층(높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는 보의 처짐량을 줄일수 있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기둥과 Preflex Beam의 기둥-보 接合도 가능하다.

4. 複合構造의 利用

여기서 정의하는 복합구조는 기둥 보부재등이 각각의 다른 單一部材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칭한다. 예를 들면 근자의 國內工事に 多用되는 鐵骨鐵筋콘크리트 기둥과 철근보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복합구조는 인건비가 양등할수록 Prefabrication이 크게 요구되고 Prefabrication의 효과 상승을 위해서 복합구조의 이용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10〉는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의 接合부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기둥보 接合부의 내력에 대한 충분한 실험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비교하면 Preflex Beam의 사용은 극히 타당한 부재라 생각된다.

복합구조의 최대요구사항은 응력은 물론 변형에 충분한 저항을 요구하게 되며 변형에 충분한 단면특성 또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즉 이와 같은 단면성능이 만족되면 충고를 저감시키며 설비와의 쇼크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Preflex Beam의 特性과 長點

우선적으로 壓縮에 대한 특성을 살린 콘크리트와 壓縮・引張에 대한 특성을 살린 콘크리트, 철골의 조합이 명쾌하다. 동시에 제작과정중에 設計荷重에 대한 시험으로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다. 동일 단면의 일반적인 보에 비하여 처짐강성이 2배이상 기대 할 수 있다. 하단 플랜지의 내화피복을 대신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며 취급 및 운반은 기존의 철골보와 동일하다.

또한 가장 특수한것은 보 층을 낮출수 있으므로 層高를 낮출수 있고 특히 지하구조의 경우 통공시의 깊이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CAD교육안내

AutoCAD Rel.11

대한건축사협회가 설립 운영하는 CAD교육연구소에서는 기존ARRIS 교육과는 별도로 미국 AUTODESK사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범용 CAD SYSTEM, AutoCAD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신설된 AutoCAD 교육에서는 지난 11월 미국에서 발표된 최신 Version인 Rel.11을 서통 AI 사업부의 협조로 교육하게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인원 : 매기별 20명 ● 장소 : 본협회 1층 CAD교육연구소 ● 참가비 : 과정별 20만원
- 기간 및 시간 : ARRIS, AutoCAD 각각 매기별 1주일단위 (56시간)

■ 교육과정

- 실무과정 : COMPUTER 또는 CAD에 사용경험이 적은분을 대상으로 컴퓨터개론에서 부터 CAD의 기초 및 응용까지 교육하는 실무과정입니다.
- 경영자과정 : CAD SYSTEM의 기본적인 조직과 설계·운영의 특성, 효율적인 관리방 법등 설계사무소 소장 및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영자 과정입니다.
- 연구과정 : CAD이용경험 (6개월 이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Arris의 경우 Xenix 및 ADB(Architectural Drafting & Documentation), M&R(Modeling & Rendering)에 교육의 비중을 높였으며 AutoCAD의 경우 AutoSOLID, AutoSHADE는 물론 AutoLISP까지 교육되는 CAD의 이용차원을 한단계 높인 고급과정입니다.

■ 교육신청방법

- 기간 : 매주 수요일 (수강개시 前 週 수요일)
- 장소 : 본협회 총무부
- 방법 : 아래의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비의 한개 내방집수 또는 우편이나 FAX (586-8823)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협회구좌 (계일은행 429-20-166612, 예금주 : 대한 건축사협회 출납인)로 송금후 두통장 입금표를 첨부

■ 교육의 특징

- 1인 1대 실습위주의 교육
국내 CAD교육센터중 최대의 장비보유로 1인 1대의 실습위주교육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보장합니다.
- 경험많은 전문강사진 운영
서통 AI사업부의 전문강사진으로 건축과 전산을 전공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완벽한 책임교육
교육이수후 당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며 불 합격자에게는 합격시까지 무상교육이 계속되므로 교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총무부 또는 CAD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21-7296)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근무처 주소	
직 위	참가 일정	CAD 기 CAD사용기간 개월

대한건축사협회

충무 시민회관 현상 설계경기

충무시가 지난해 12월 작품을 공모한 충무시민회관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藝鄉 충무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美港으로서 자연과 조화되는 상징적 건축물”을 건립기 위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11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한건축사사무소 라인·한도(송이호+안기석)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회)案과 태양·건일·청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중섭)案이 우수상에 선정되어 각각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되었다.

현상설계 공모시 제시된 주요 설계지침과 선정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립기본계획

▲ 설계기본지침

충무시의 역사성, 지역특성과 자연환경, 대지주변의 입지여건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대상물에 대한 작가의 창의성을 심분 발휘하도록 하며, 제출도서에 작가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할 것

▲ 시민회관의 성격

- 문화예술관
- 다목적 사회예술센터
- 생활체육관
- 향토자료관

▲ 건립위치

충무시 동호동 230-1 南望山공원광장

▲ 건립규모

- 부지면적 : 1,500평 (공원광장면적)
- 건축물규모 : 연건평 2,000평 정도
- 주요내부시설
- 대강당(1,000석)
- 소강당(300석)
- 전시장(200평)
- 수영장(6코스 50m)
- 관리사무실, 기타.

▲ 기타(남망산공원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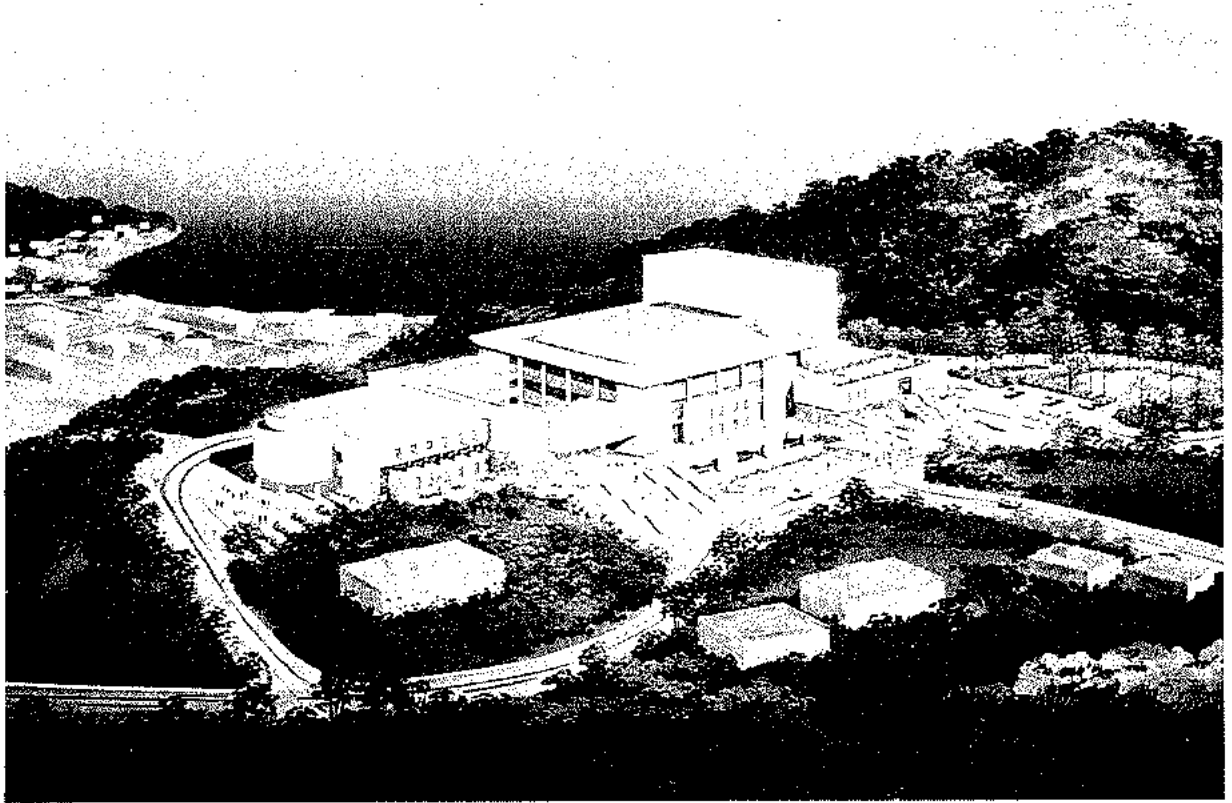
남망산 공원내에 시민회관의 건립과 연계하여, 입구 및 주변을 정비하여 남망산 공원을 시민의 문화공간, 정서공간, 체육공간으로서 손색없도록 가꾸고자 함.

▲ 설계의 기본구상

- 건축물 외형은 공원의 경관과 조화되고, 충무의 역사와 전통을 감안한, 지역적 특성이 부각된 형태로 설계
- 소요면적을 충족하고, 공원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하층을 최대한 확보하며, 지형을 이용하여 지하각층의 일면은 지상에 노출되도록 설계
- 지하 최하층에 풀장을 시설하고, 문화공간과 생활체육 공간을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
- 건축물의 외벽은 석조(화강석)건물로 설계하되, 돌 한덩이 한덩이마다 시민의 정성을 쌓을 수 있도록 별도 구상
- 대강당의 무대와 객석의 형식은 공연전문(오페라, 영화, 연극) “아리나”식(마당극, 음악회등)을 결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Hall로 연구하되, 대강당을 분리하여 2개의 소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 소강당은 연극, 영화, 강연, 결혼회관, 부형문화재 전수관등, 다목적 Hall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전시장은 상설전시할 수 있는 향토전시관, 지역출신 예술인의 유작·대표작 등을 전시할 수 있는 특별 전시 코너, 시기적으로 기획전시할수 있는 코너 등을 감안한 설계
- 대강당의 “로비”에도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평면구상
- 수영장은 선수의 연습장과 일반시민의 생활체육을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중앙에 이동식 차단장치 가능토록 하여, 시민활용시에는 남·여 분리 이용토록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라인 · 한도(송이호+안기석)案

C
O
M
P
E
T
I
T
I
O
N



조감도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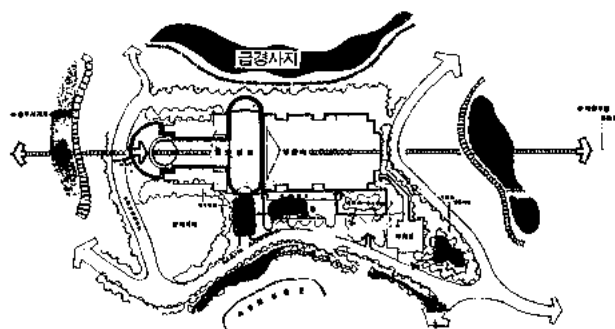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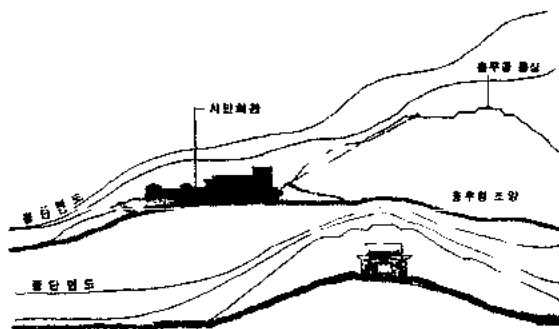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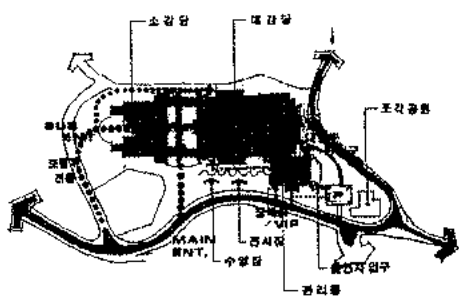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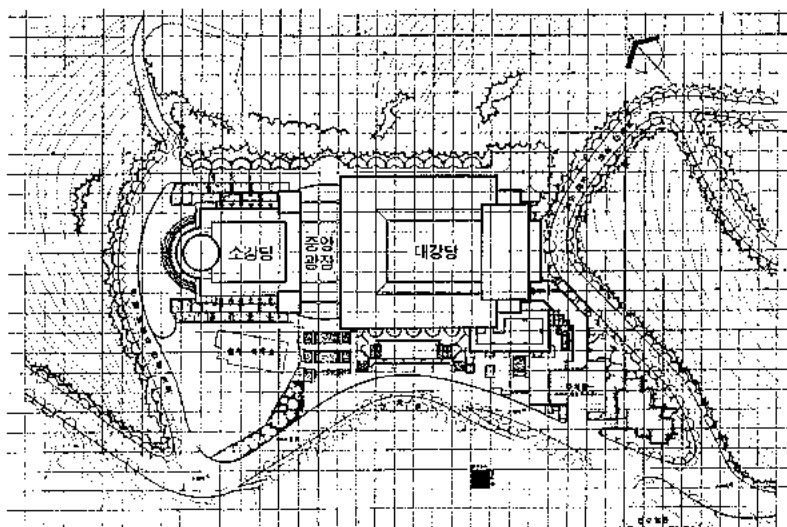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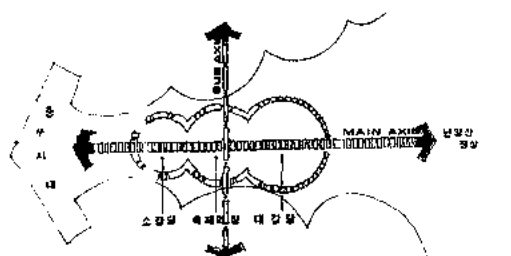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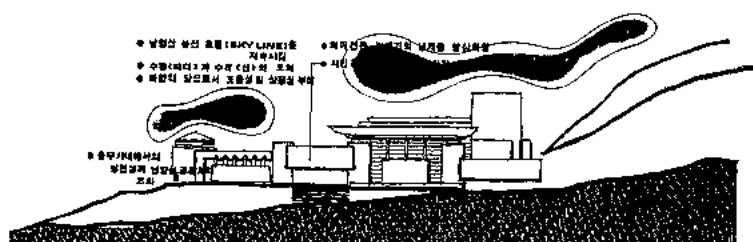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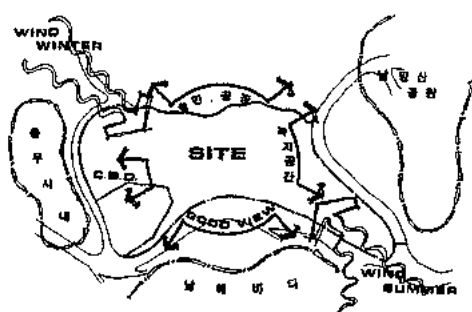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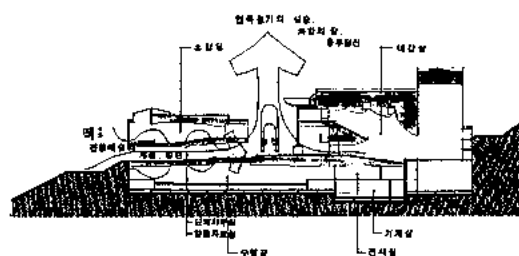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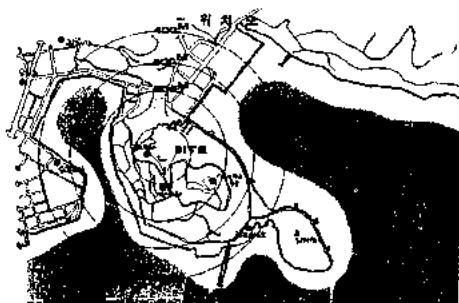
위치/경상남도 창원시 동호동 230-1
 대지면적/97,733㎡
 건축면적/2,353.47㎡
 연면적/7,256.16㎡
 층수/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철골트러스조
 모듈/5.7X5.7m
 외부마감/외벽-화강석미감
 주차대수/출연자 및 VIP전용주차
 -10대(일반주차장은 별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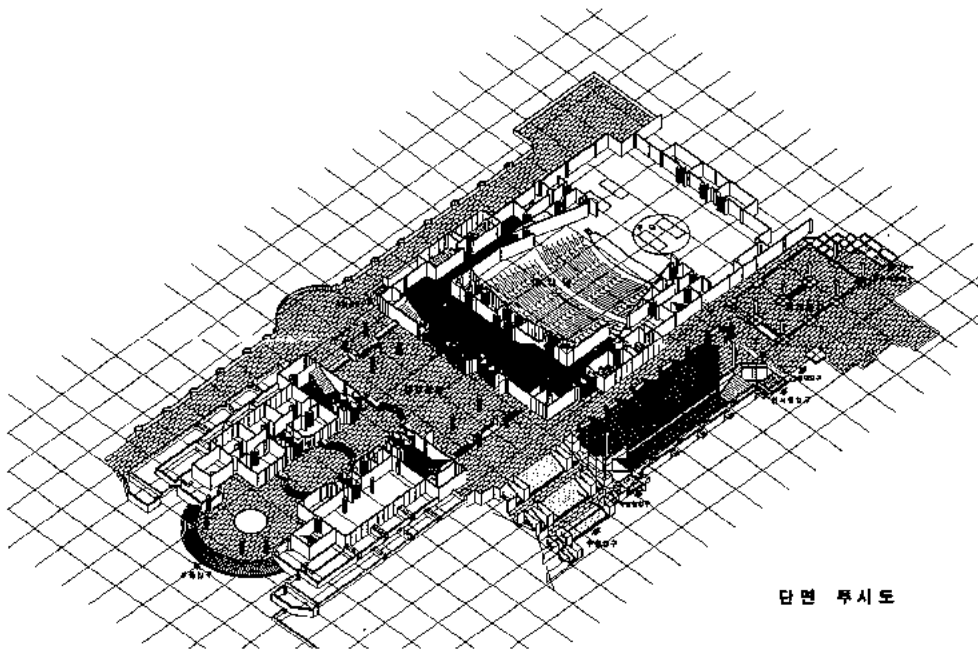
강구안파래야

대구 복장어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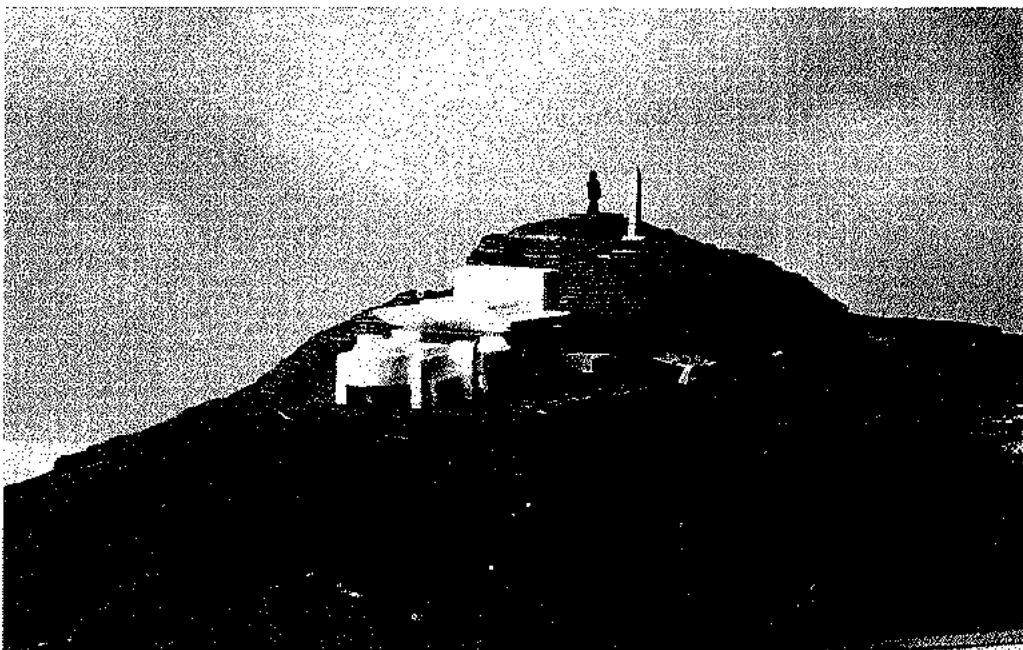
날씨 좋고 물 좋은데...

“배어난 경관 술한 인재를 배출한 충무”
 시민 문화 수준은 날로 발전하고
 주변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키 위해
 충무시민회관의 건립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지역의 구심적인 역할과
 문화의 전달, 전인교육의 장으로써 일익을 담당하며
 충무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가슴 깊이 심어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단면 투시도



단면투시도

스터디 모형

■ 대지상황 분석

남망산 공원의 일부로서의 시민회관이 입지적 조건으로 충무항과 충무시내를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무척 협소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요구공간을 충족시켜 주느냐가 계획의 기본 과제이다.

■ 배치계획

남해→충혼담→시민회관(대강당→광장→소강당)→충무항→충무시가지를 하나의 시각적 축을 형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남망산 자체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정상이 해발 70m) 건물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했다.

- 기존 산책로와 광장과와의 오픈 스페이스로 연계성 있는 휴식공간의 확보
- 기능상 비교적 높은 대강당을 언덕쪽으로 배치하고 낮은 소강당을 전면(낮은쪽)으로 배치하여 남망산 공원 능선의 흐름에 순응하도록 함.
- 대강당과 소강당을 유기적인 연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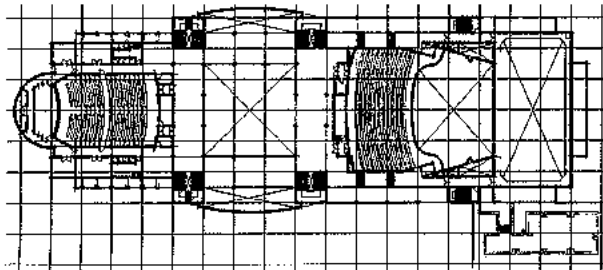
중앙개방 광장을 두어 협소한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더불어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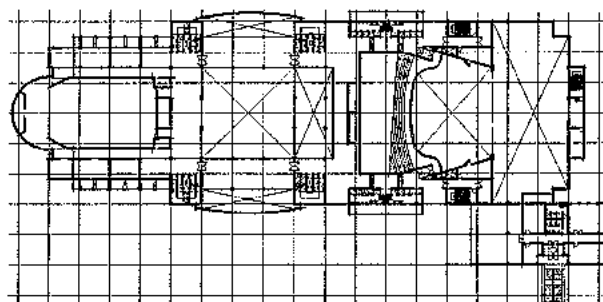
- 복합기능의 수용으로 인한 혼잡 및 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기능별 독립성을 갖도록 최대한 고려함.
(수영장+전시시설+소강당+대강당)
- 동서로 오픈된 광장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개방을 유도하므로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함.
- 장애인 및 출연자 전용 동선으로 동선의 분리
- 대강당은 진입의 이원화로 협소한 대지 조건으로 동선의 자연스런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Sub Ent를 두어 혼잡을 피함.
(소강당 1층 부분을 오픈시켜서 중앙광장과 연결시킴으로 동선의 분산)
- 전면 돌출벽으로 정면성을 부여하고 상징성을 가져오도록 함.
- 층별 구획이 기능의 독립성을 가져오도록 함.
- 수영장 및 전시장은 지하 1층에 두고 주출입구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여 평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활동의 장으로 유도.

■ 입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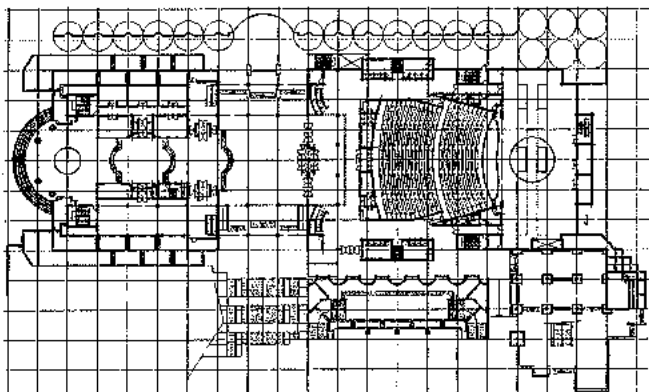
- 대강당 열주와 날아갈 듯 사뿐한 날개를 형상화한 지붕
- 전체적으로 수평과 수직의 적절한 비례에 의한 안정감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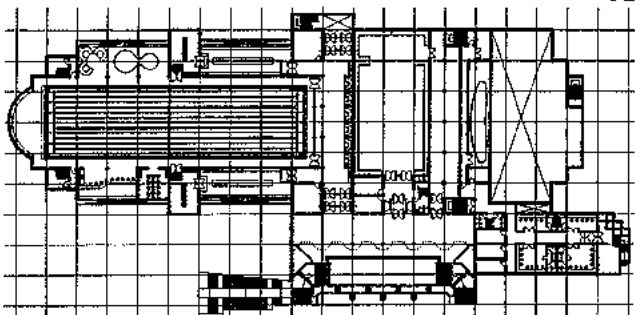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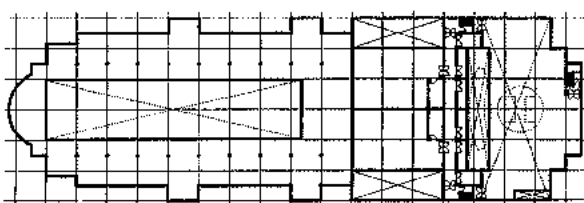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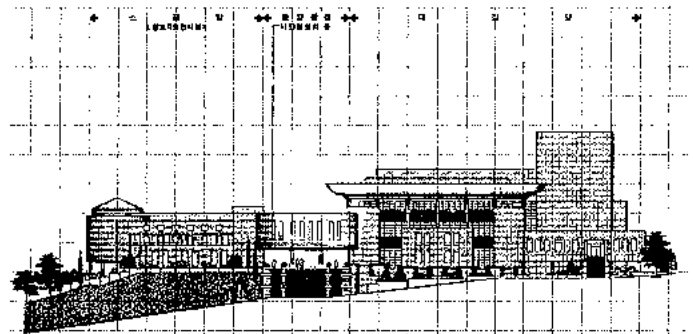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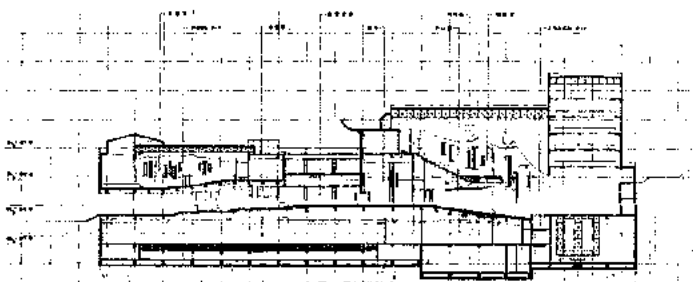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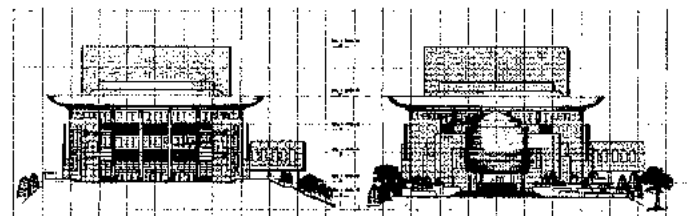
지하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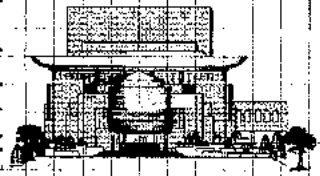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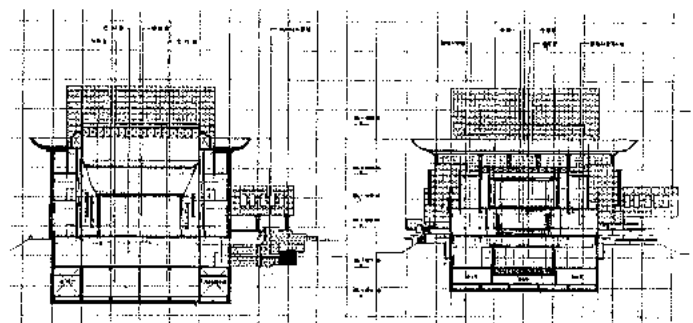


대강당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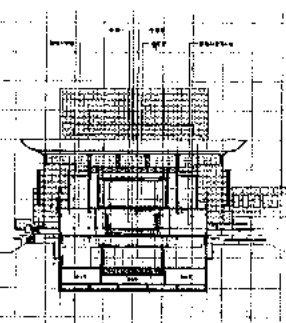


소강당정면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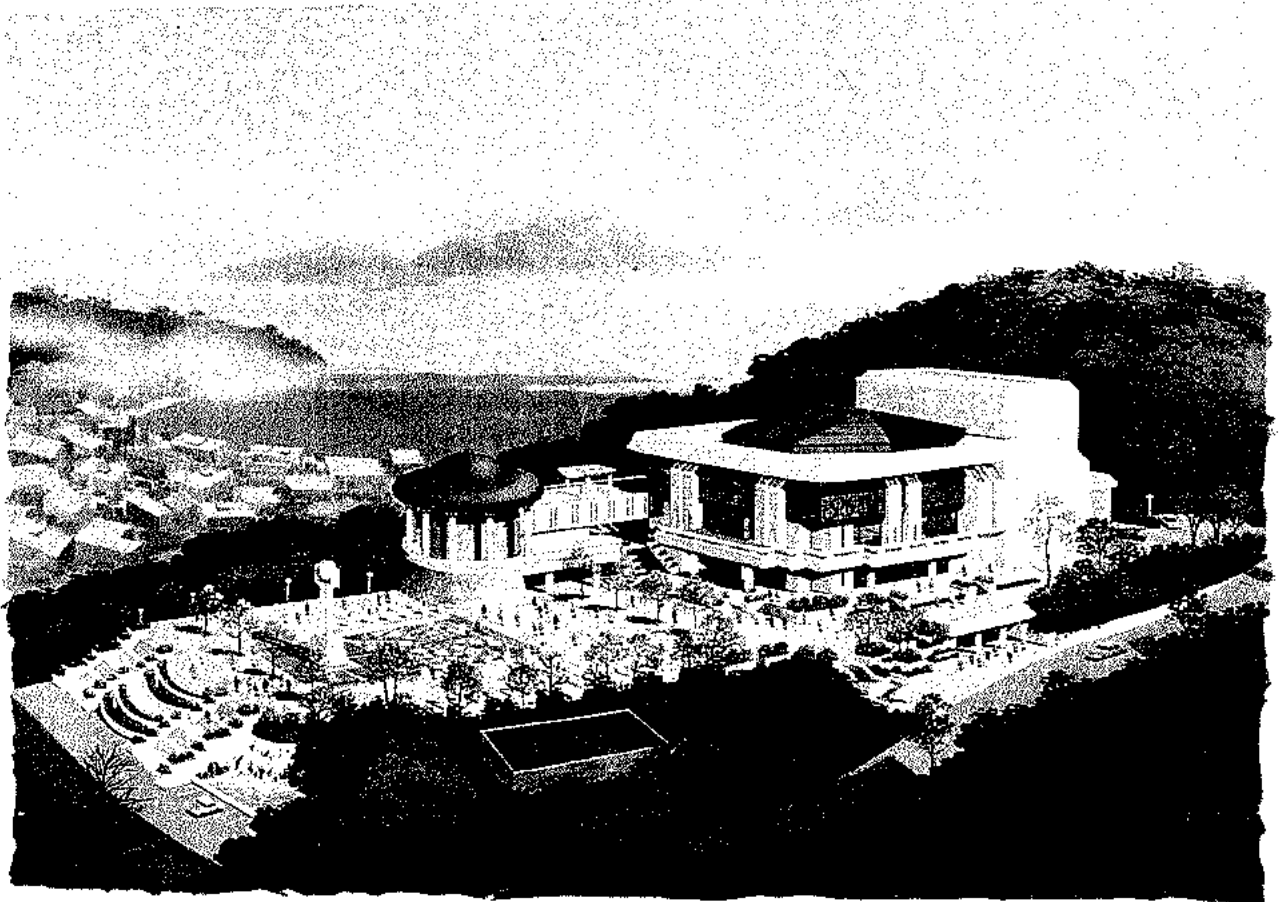
대강당



소강당

종단면도

태양·건일·청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김종섭) 案



조감도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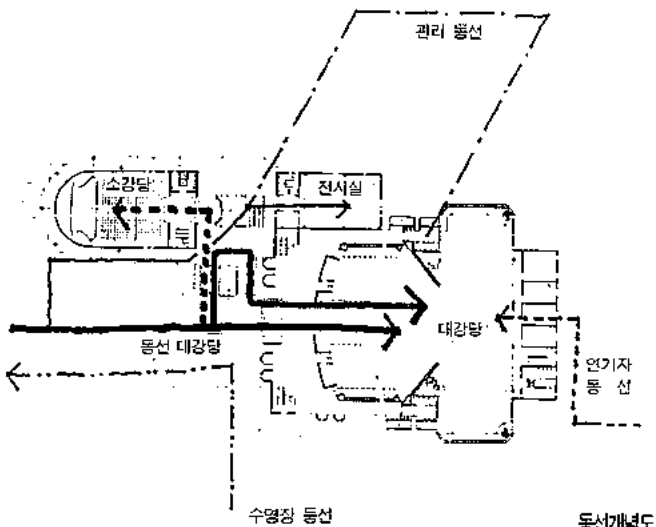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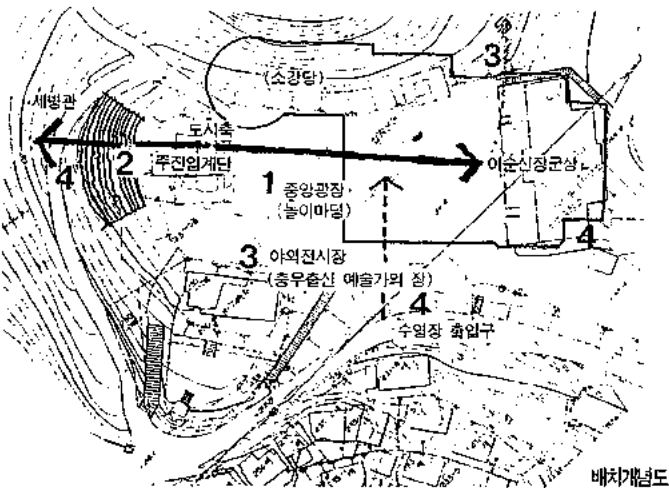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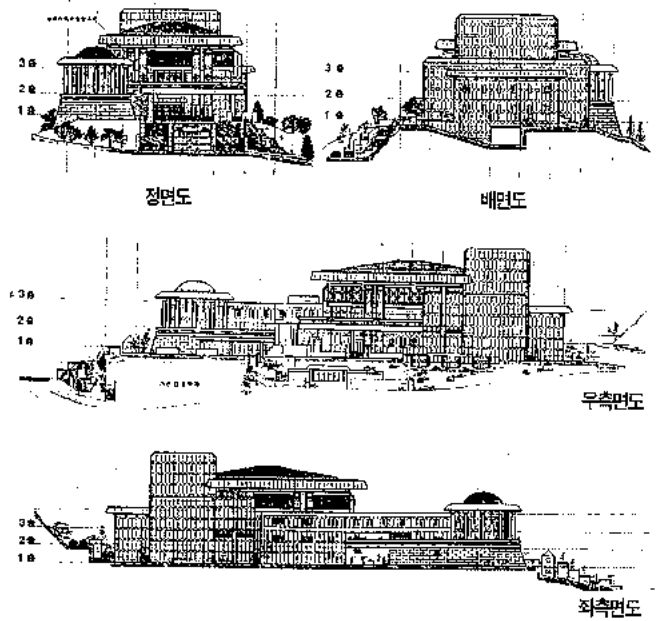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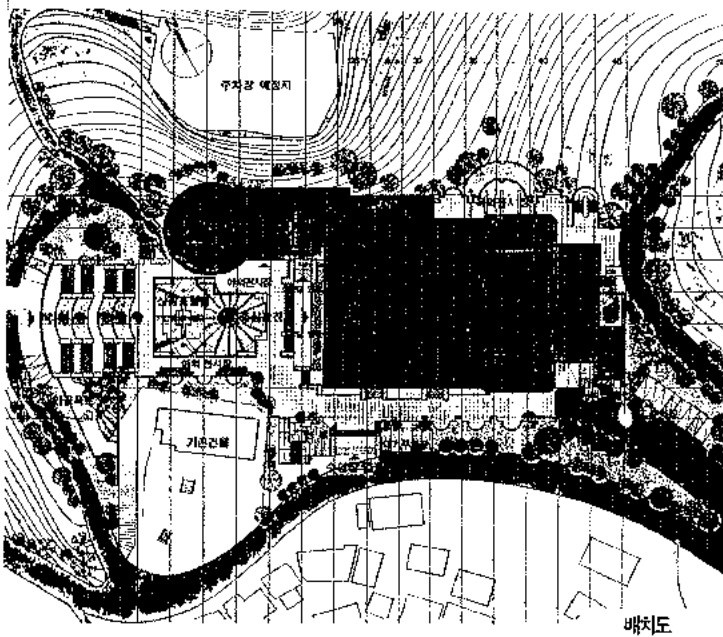
위치/충주시 동호동 230-1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일부공용지구
대지면적/5,450㎡
건축면적/2,113.95㎡
연면적/6,974.61㎡
건폐율/38%
용적률/77%
규모/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미감/화강석 버너구이

■ 계획의 목적

본 충무시민회관은 예향으로
서 충무 전통과 혼을 전수, 발
전시킬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다목적 집회공간을 시민에게 문
화예술 고향의식의 함양등 사회
교육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일
반시민에게 문화 예술과의 접근
기회를 확대시키며 시민회관의
독립 기능으로 인한 낮은 이용
률을 제고키 위해 생활체육시설
의 병설로 활용도를 제고함으로
써 문화예술과 일반시민과의 거
리를 좁힐 수 있는 복합기능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계획의 주안점

- 예향 충무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미향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명실상부한 시민회
관 필요
 - 다목적 집회장 확보로 시민에
게 문화예술 교양지식함양등
사회교육 장으로서 활용기회
부여
 - 생활체육시설의 병설로 회관
의 활용도 제고 및 일반시민
에게 문화예술과의 접근 기
회 확대 도모
 - 시청사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
산조성
- 따라서, 위와 같이 본 충무시
민회관은 문화예술관으로서의
기능과 다목적 사회체육센터 기
능, 생활 체육관 기능, 향토 자
료관 기능의 성격을 갖는다.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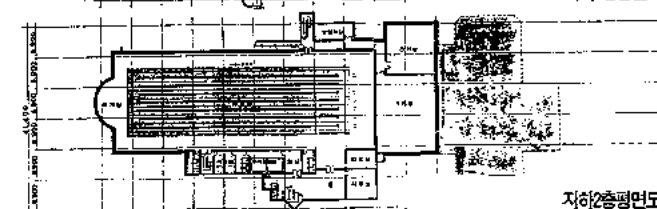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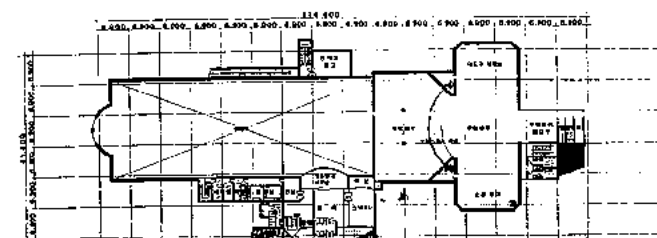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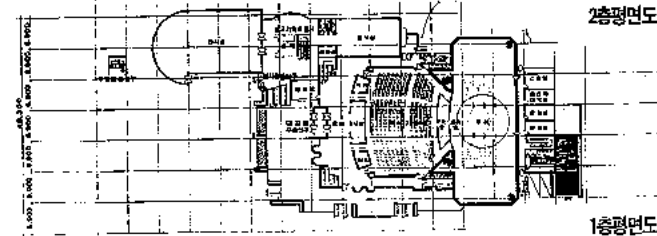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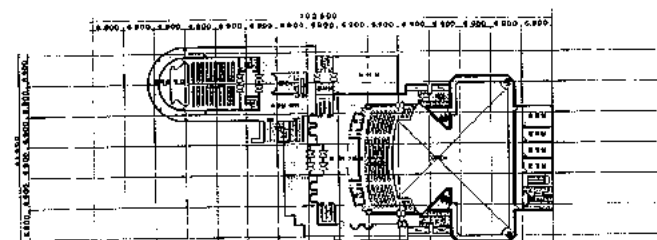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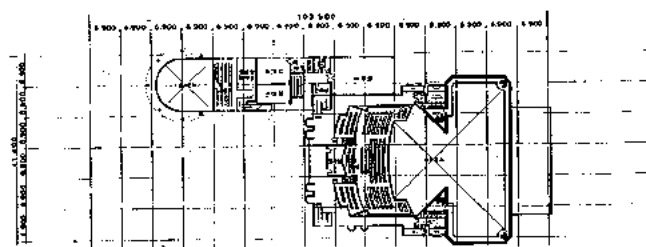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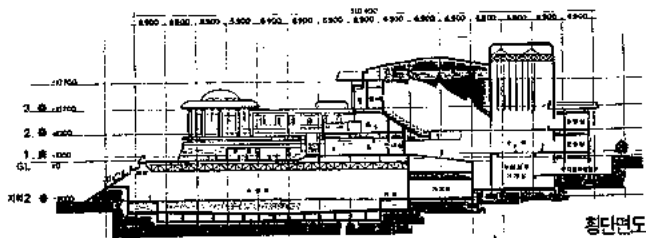
- 현대적인 현황, 현행법규와 계획규모를 분석하여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토지이용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동 집회공연기능과, 수영장동 체육시설의 동선분배와 적절한 배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 대지위치에 따른 동선의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배치안 선택 경사대지인 점을 감안 레벨을 이용한 접근 방법 강구하며
- 대지의 협소로 인한 지하층의 확보문제와 대지가 북향이므로 채광, 조명등을 연구하여
- 중앙광장은 지하 풀장 상부를 이용하여 놀이마당,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고 대강당동과 소강당동의 동선이 집약, 분산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 주진입계단은 한국의 건축양식을 응용하여 공간의 흐름을 유도하여 전이 공간 및 완충공간으로 계획하였다.
- 야외전시장은 전시장과 연계

하여 자연스러운 공간을 창출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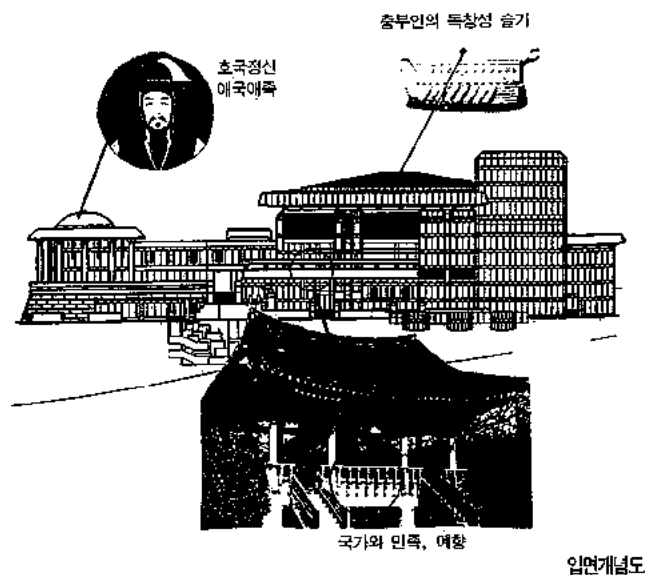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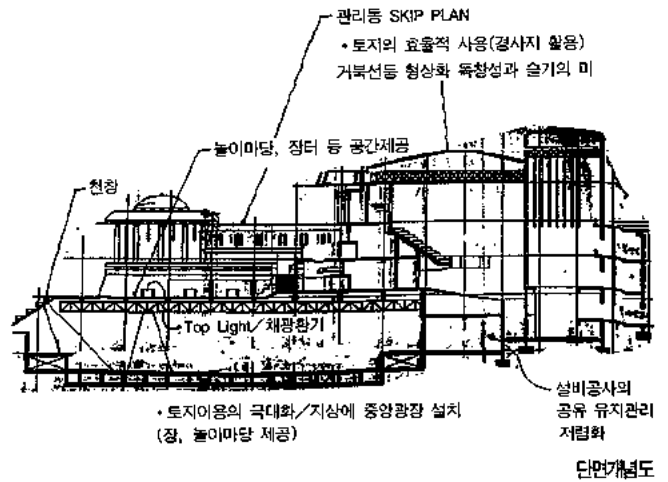
- 법적주차장은 시에서 별도로 건설하고, VIP 및 무대장비 및 연극인들을 위한 대기주차장을 설치하였다.

■ 평면 및 동선계획

- 대강당시설은 관람객을 중앙광장에서 1층으로 바로 진입하는 동선과 2층 데크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연기자들은 뒷편 서비스동선을 통해 진입토록 하였다.
- 소강당 및 전시실 이용동선은 데크를 이용하여 SKIP형식으로 진입하고 데크를 적극 활용토록 수직동선을 고려하였다.
- 수영장시설은 관람동선과 별도로 출구를 분리하여 동선의 혼잡방지.
- 관리시설은 건물의 상부층에 두어 관리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모든 동선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 전시시설 동선은 야외전시장과 연결하여 건물전체가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다.



각층평면도



■ 입면계획

충무의 지역성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충무의 일인 이순신장군의 모자를 형상화하여 호국정신을 받들었고, 거북선의 등을 이용하여 충무인의 독창성과 슬기를 표현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던 수루의 정신을 이어받아 데크의 난간을 디자인하였고 건물의 전체형상은 고인돌을 응용하여 각 기둥마다 성금 기탁자의 이름을 새겨넣어 국가와 충무를 받치는 강인한 시민정신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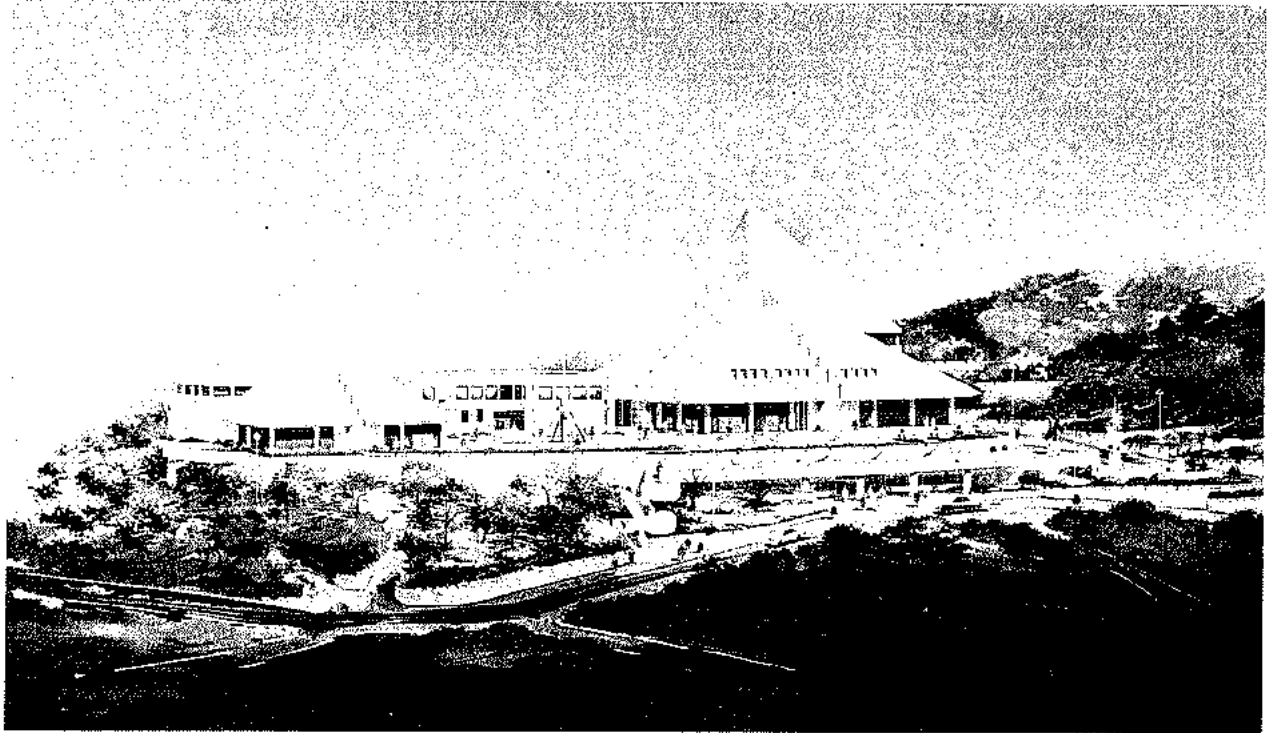
■ 단면계획

대지가 협소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수영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위는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토지활용을 극대화 하였고, Top Light 설치 채광과 환기를 겸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지레벨을 이용하여 전서소
강당동을 반층 내려가게 계획하
여 대지에 순응케 하였다.

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동회)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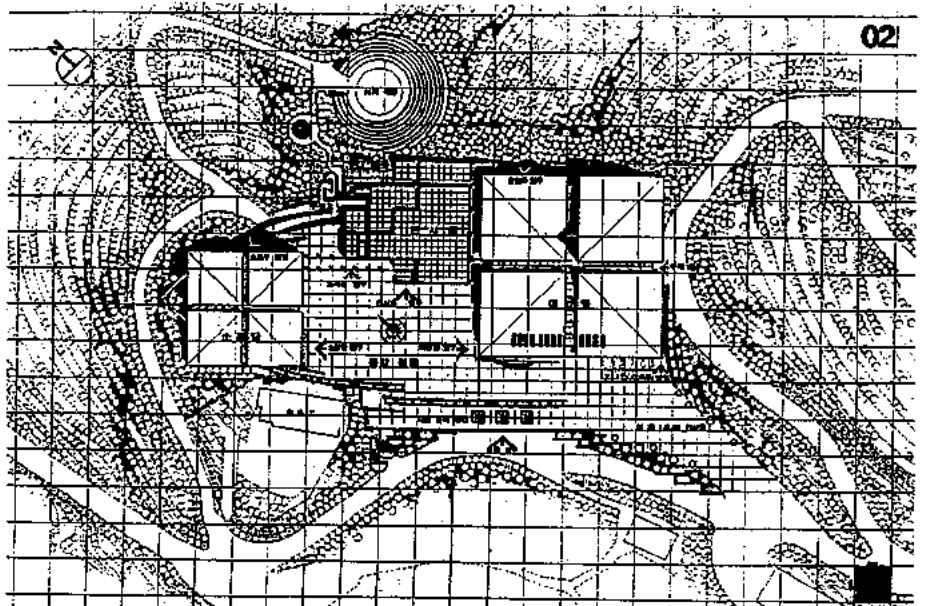
C
O
M
P
E
T
I
T
I
O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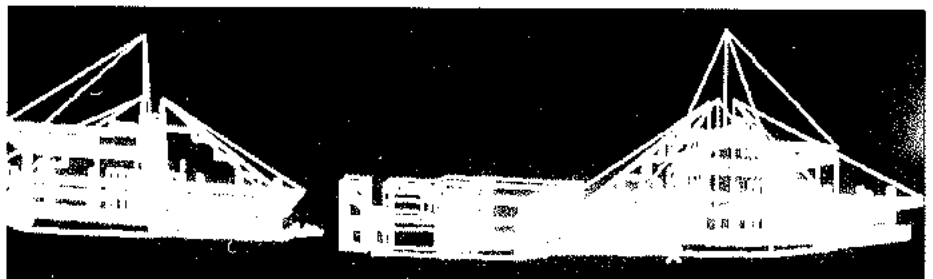
조감도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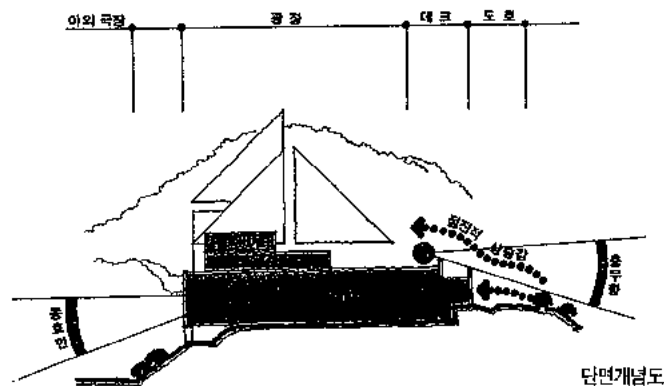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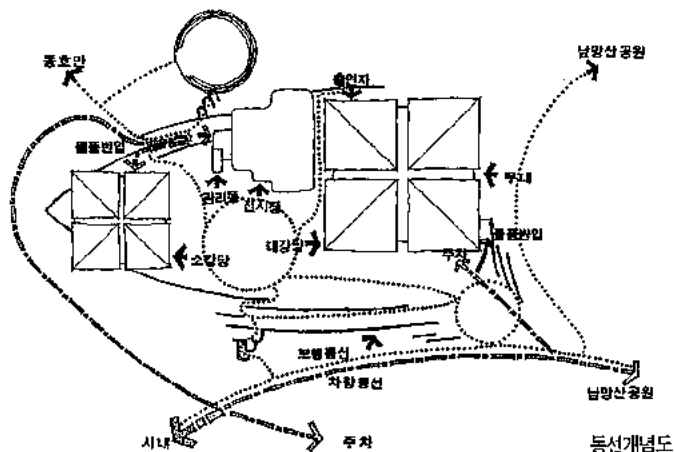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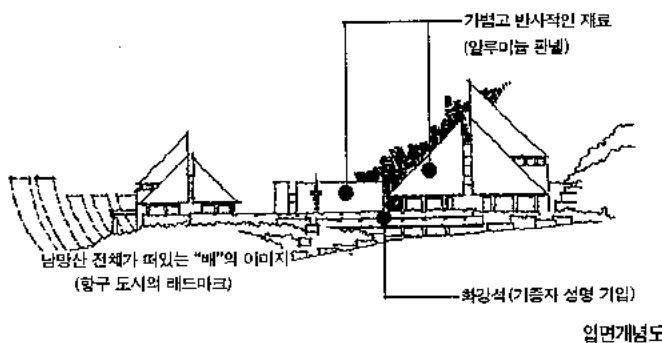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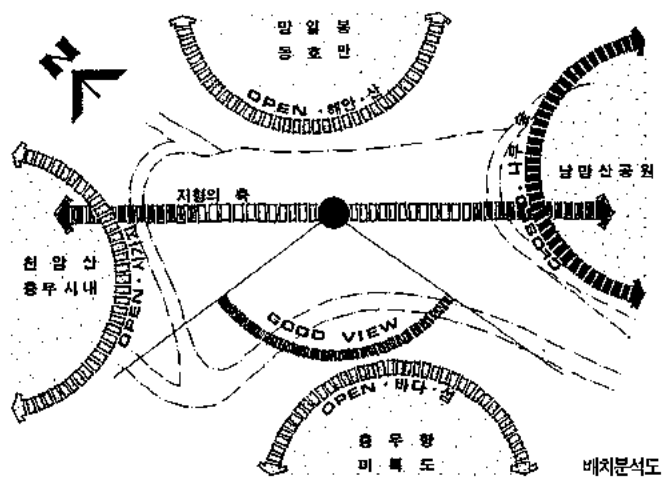
위치/충주시 동호동 230-1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건축면적/2,920.5㎡
연면적/7,080.95㎡
 대강당/2,777.51㎡
 소강당/770.49㎡
 전시동/3,532.95㎡
규모/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R·C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화강석 및 알루미늄패널
주요옥외시설/야외극장, 야외
조각전시장



배치도



CAD구조도



■ 계획의 배경

충무시는 한반도의 최남단 한려수도의 기점으로 뻗어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수산관광자원의 보고이며 민족문화 발전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미래의 시민복지문화에 기여하며,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장소로서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문화예술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회관을 건립코자 한다.

■ 목적 및 의의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의식의 고양과 문화예술 전수의 장을 부여
- 새로운 문화환경의 창출을 통해 충무권에서의 새로운 위상 정립
- 생활체육시설의 병설로 활용도 확대 방안의 실천적 방법 제시

- 동호만 매입로와 해안일주 도로의 개설 및 위치내 회관 건축으로 시가지 교통추가 유발요인 제거
- 시청사의 매각에 따른 충무시의 대체 자산 조성의 필요와 환경보전 및 시민 문화의 기여에 따른 민간 투자 유도

■ 계획개념

- 주변경관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형태미
- 지형을 이용하고 기존환경의 연계를 통한 공간 배치
- 문화공간과 생활체육 공간과의 연계활용
- 다목적 공간기능과 경제적인 활용방안 모색
- 백년대계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수의 장을 창출

■ 계획의 주안점

- 시민의 장
- 시민의 자연스러운 Ap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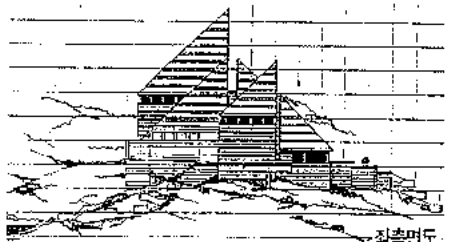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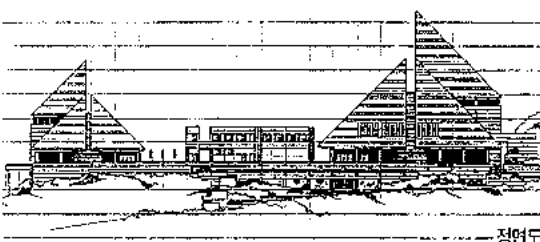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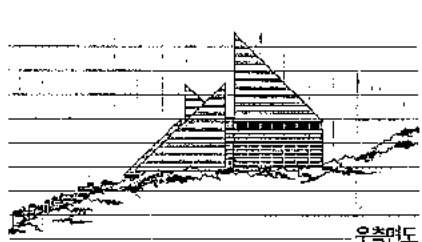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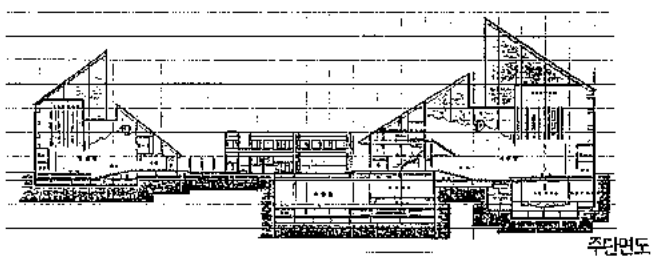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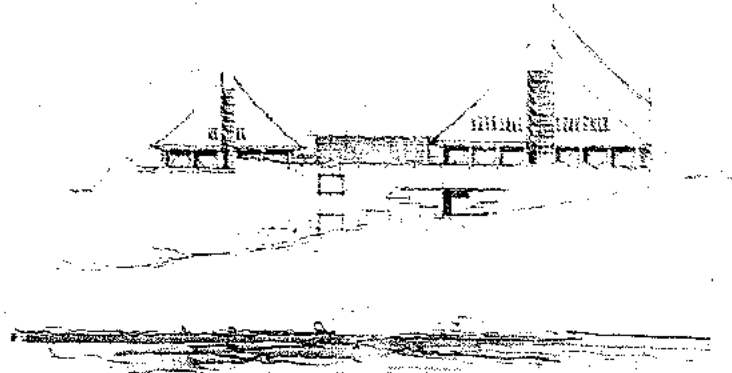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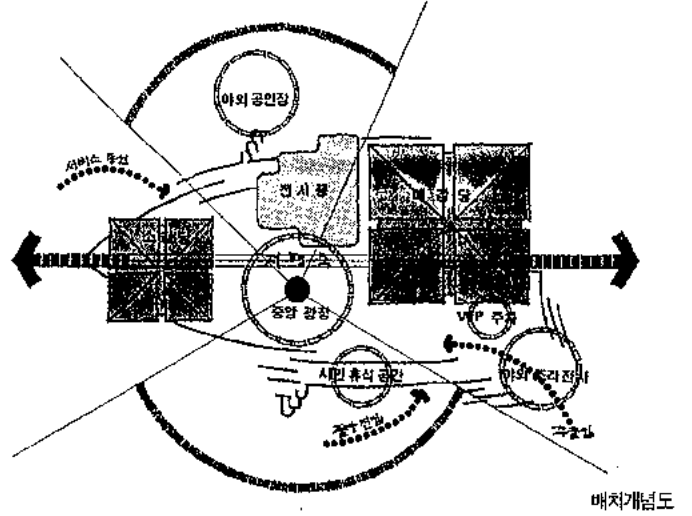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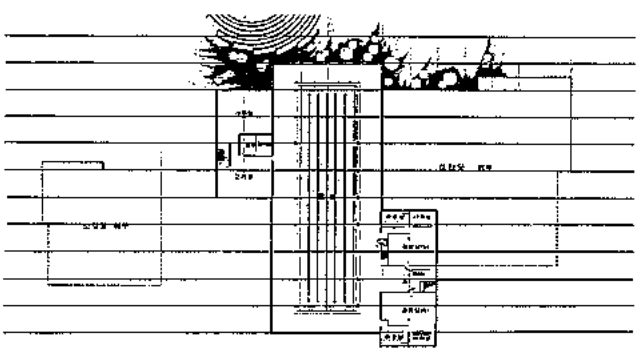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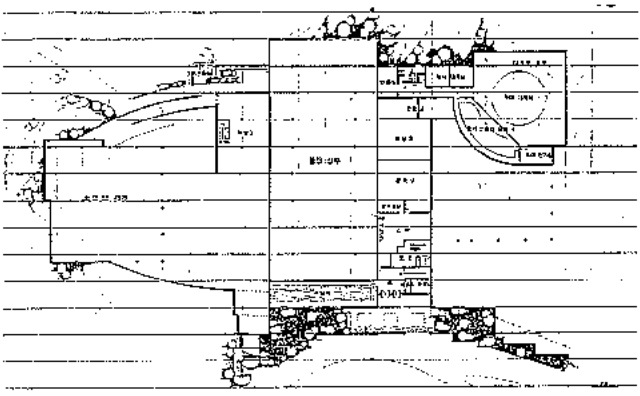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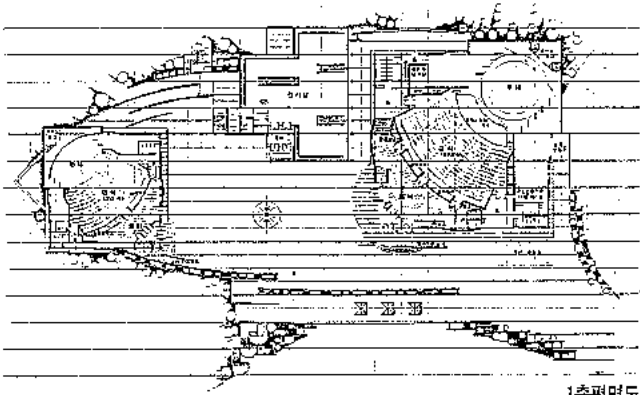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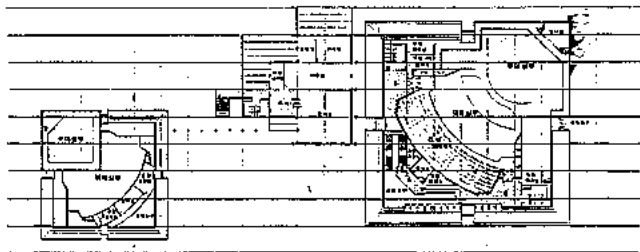
- oach 유도
- 시민회화와 문화예술 계승발전의 터전
- 동선의 간략화
- 보차 분리
- 축을 중심으로 한 원활한 Circulation
- 기능성
- 다목적 공간 제공
- 공간배치에 의한 합리적 관리 동선
- Deck 설치로 광장 확보
- 상징성
- 외장재료는 한려수도의 색채 이미지 수용
- 항구도시 충무에서 유추한 배의 형태적 상징성 창조
- 주변경관과의 조화
- 지형에 순응하는 Sky Line
- Level차를 극복한 진입 도로로 시각적 개방감, 상승감 유도

■ 구조개념

- 건축디자인과 유기적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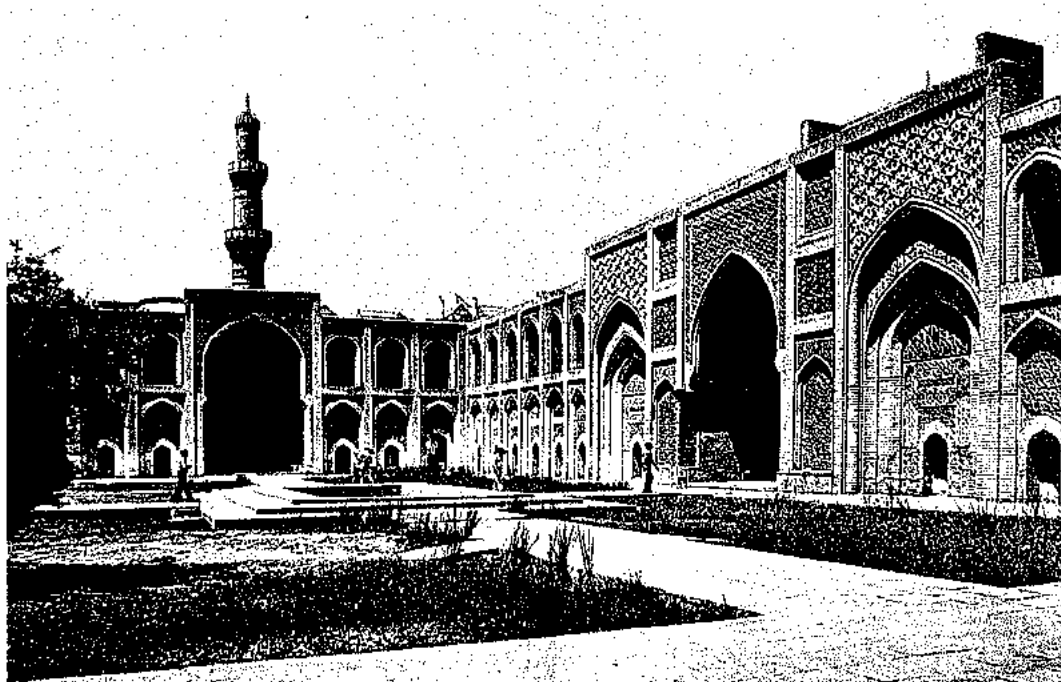
형식을 채택, 구조적 합리성에 입각한 구조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차원높은 경제성을 모색하였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충분히 디자인 할 수 있는 국내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기간 단축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기하였다.
- 구조계획과 시공상의 편의를 위해 기본 Span(6m)통일과 규격화를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공사관리의 편리 및 공기 단축을 도모하였다.
- 대강당, 소강당 등 장 Span이 요구되는 부분을 난 Span 부분의 상부에 배치하여 구조적인 합리성을 기하였다.
-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 철근구조로 불가능한 부분만 철골구조로 해결하여 이질적 구조형식에서 파생되는 결함을 최대한으로 없애도록 계획하였다.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7)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세계 최초의 대학 MUSTAN SIRIYA

세계 최초의 大學이 현재 Baghdad 市內에
현존하고 있는 Mustansiriya이다.

Mustansiriya의 주위 환경은 특이하다. 바그다드
시내에 오래된 전통적인 시장과 맞붙어 시장 속에
위치하고 있다.

복잡한 시장 가운데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특이한 환경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전형적인 대학의 Site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大學이
시대의 기현상으로 최근 수도원처럼 산중으로 도피
배치되고 있는 것과 비교될 때 특이한 배치로 생각
되겠지만, 지금도 각국의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이
시내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듯이, 세계최초의
대학이 시내, 그것도 복잡한 시장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특이한 위치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이 Mustansiriya 건물의 배치는 한쪽면은 티그리스
강변에 면하고 반대쪽면은 전통적인 시장과 맞붙어
있다.

이 Mustansiriya대학건물의 외벽과 인접하여 마주
면하고 있는 밀집된 지역에는 현재 골동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으며 그 안쪽 골목안으로는 끝없는
미로인 듯한 재래의 전통적인 시장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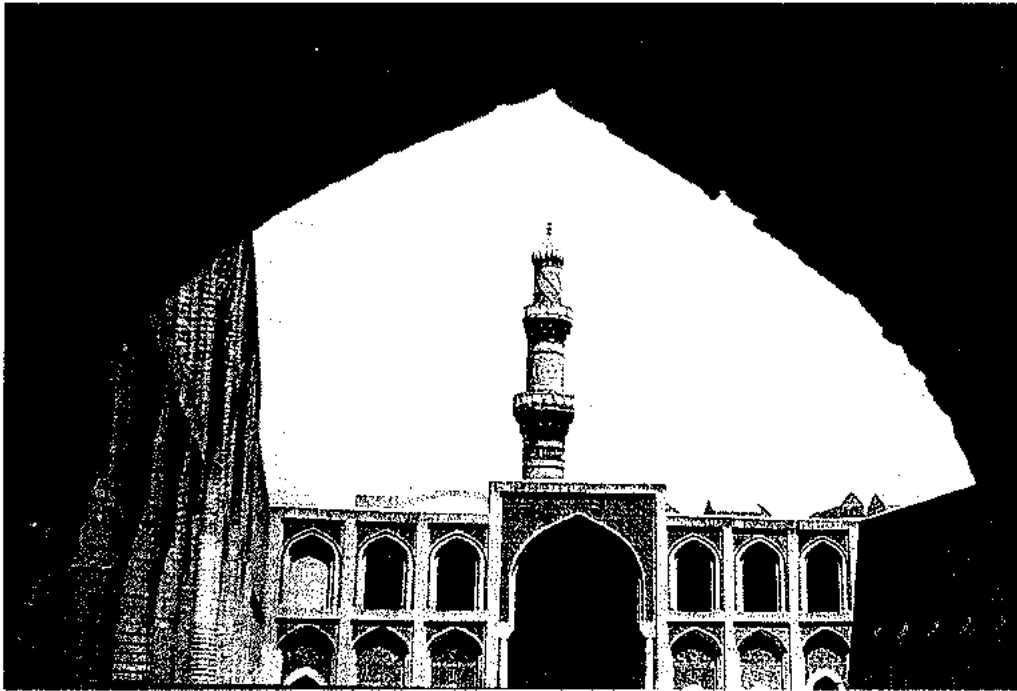
이 전통적인 시장건물도 무척이나 오래된듯이 낮은
벽돌 조적조로 되어있고 시장통로 지붕구조는 Vaults
구법으로 통로의 지붕도 순 벽돌로서 지어져 있으며
각 Vaults들의 최상부에는 Sky Light 가 되게 지어진
이라크 특유의 시장이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미로의 시장골목은 붐비고 있는데 눈길을 끈다.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세계최초의 대학이 건립된
것이다.

裴元泰

構美 건축구조연구소

by Bae, Wan-Tae



2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에서 이 Mustansiriya의 문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한적한 중정의 공간에 서게 된다.

이것은 건물의 외벽이 無窓의 두터운 벽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Mustansiriya대학 건물의 형태는 길쭉한 '□'자 형태로서 가운데 Inner Court Yard가 있고 건물의 외벽이 바로 담장과 같은 벽이며 건물의 정문이 대학의 정문이며 정문으로 들어서면 정문안에는 Vault로 된 공간을 거쳐 중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Mustansiriya의 건설연대는 압바스왕조의 37대 Al-Mustansir 왕때인 A. D 1226~1242년 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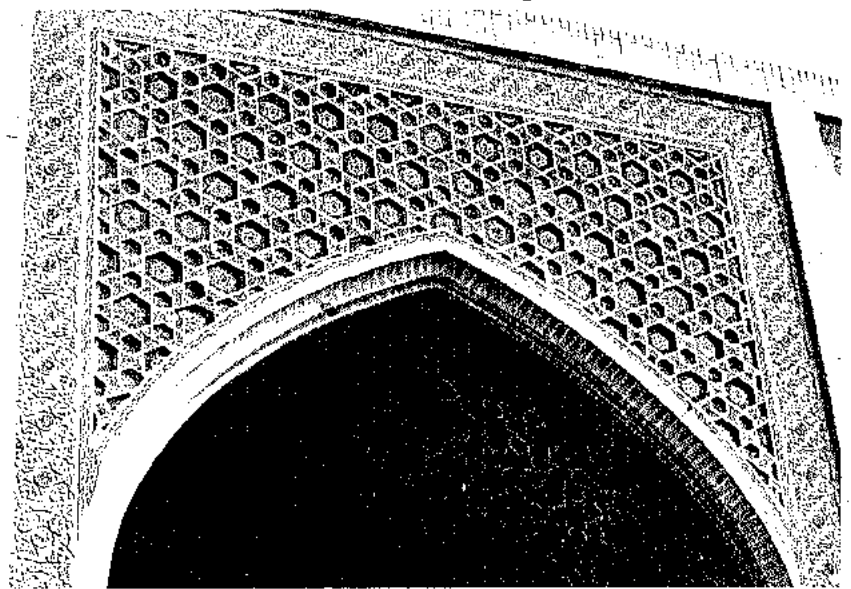
이 Mustansiriya의 교과목은 아랍의 종교학(Koran), 천문학, 수학, 약학 및 의학이었다.

건물의 크기는 104.8m의 길이에 북쪽쪽은 44.2m, 남쪽쪽은 44.2m 크기의 평면이며 중정(Inner Court)의 크기는 205×87 Feet 이다.

이 건물은 바닥, 벽, 기둥, 바닥스라브, 지붕 등 건물의 모든 부분이 순전히 흙벽돌 만으로 지어진 조적조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중정으로 면하여 사람키 높이의 작은 문들은 각각의 작은 교실의 문이며 2층은 열주 Arcade로 형성된 복도를 따라 각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이 2층에는 학생들의 기숙사 용도의 방과 공부와 강의 용도의 방으로 되어 있다.

1층의 중정으로 면한 동서남북 각면의 중앙에는 중정쪽으로 트인 큰 Vaults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정에 면한 4면의 입면은 아치(ewans)로 개구부와



3

Vaults들로 구성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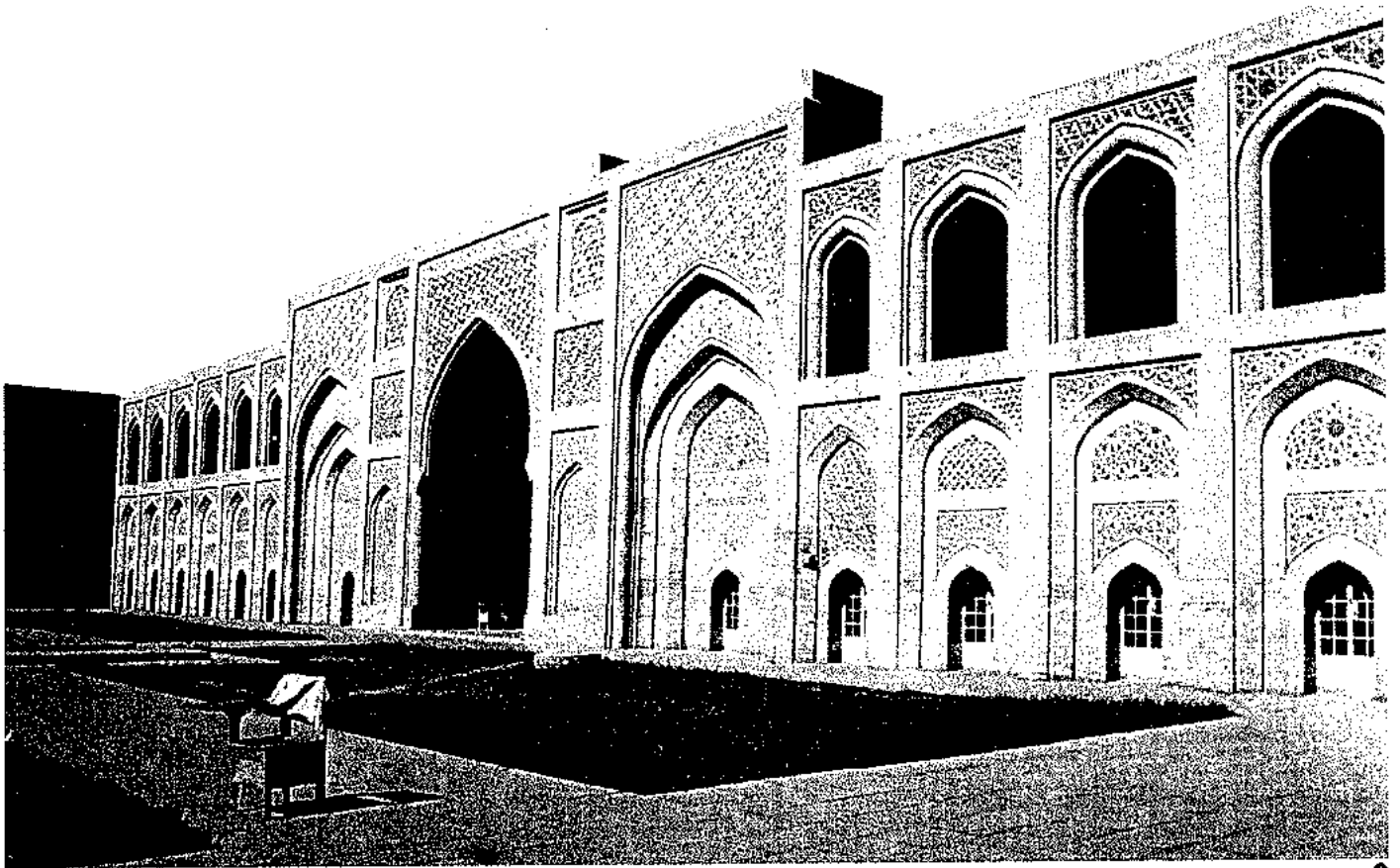
이 건물은 관심있는 건축Designer에게는 흥미있는 많은 연구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 관심있는 한 예로 벽면의 문양이다. 이 문양은 Arabic Pattern Design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일찌기 발달된 기하학적인 무수한 형태의 Arabic Desig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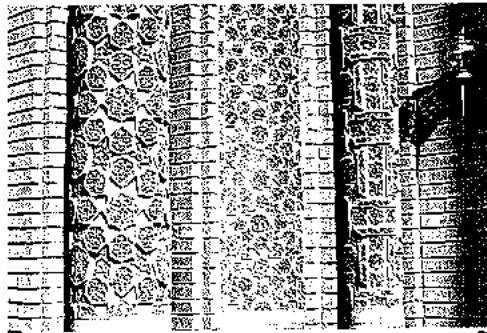
이 Pattern Design은 동양과 서양의 문양에도 시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의 벽면에만 해도 각 Pattern의 벽면마다 그 문양이 다르다.

- ① 세계 최초의 대학 무스탄 시리아
- ② 동근 아치를 통해 본 무스탄 시리아
- ③ 상부 아치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아치 형태는 독특하다. 아치의 폭과 높이에 조화되는 아름다운 아치의 작도법 추적은 연구할 만한 과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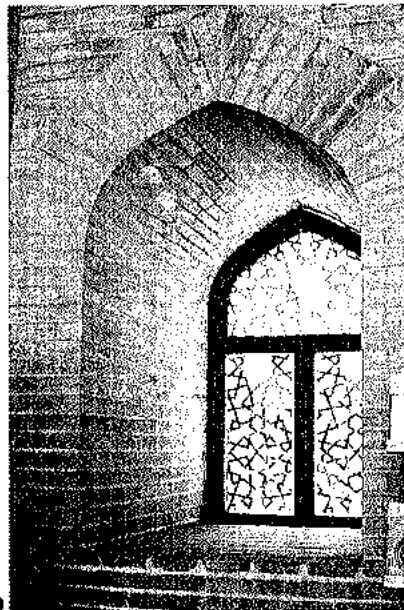


4



5

- ④ 중정 쪽으로 향한 건물 입면
- ⑤ 벽돌기둥에 새겨진 문양
이 Arabic 문양도 벽돌 제작시 벽돌 자체에 부각된 문양이다.
- ⑥ 시장에 면한 반대쪽인 티그리스 강변에 면한 쪽에 나있는 창 조적조 벽체의 두께가 나타나고 Arabic Design의 창살이 보인다.



6

이 Pattern Design의 문양자료는 필자가 수집한 별도의 자료를 갖고 있으나 Arabic Pattern Design에 대한 사항은 지면관계로 생략키로 하며, 특기 할만한 것은 이 벽면에 조각된 화려한 Pattern Design은 벽돌 위에 별도로 조각이나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별도의 문양을 새겨 붙였다면 오랜 세월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며, 그 제작 노력은 장식만을 위한 의미로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벽돌 제작에 벽돌자체에 부각된 문양인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시 바그다드의 박물관에 가서 다음 사진을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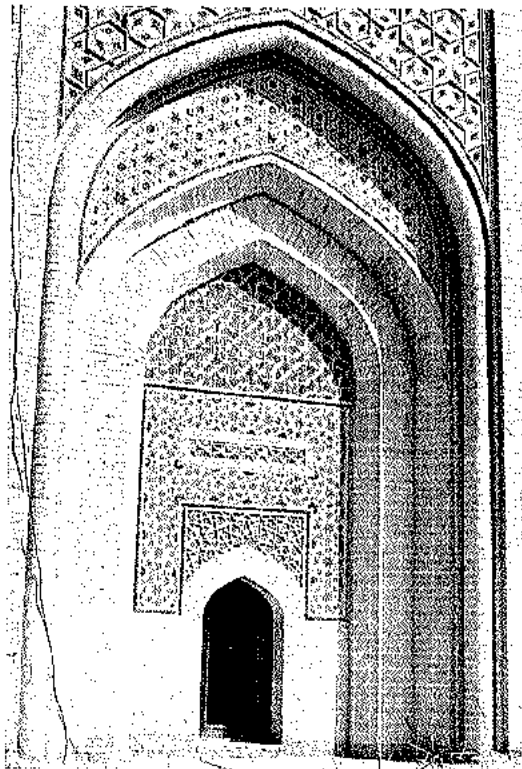
이 사진은 벽돌 벽면이 잘린 단면이 보이는 것으로 표면의 복잡한 요철의 문양은 벽돌제작때 벽돌과 함께 벽돌표면 자체의 문양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아치의 형태이다.

아치의 종류는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아름다운 아치는 비길데 없이 특이하게 아름답다.

아치의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특유의 독특한 아치이다.

6년전 당시 이곳의 대규모 설계 Project관계로 우리 설계팀은 이 특유의 아치를 작도하기 위해 그 작도법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곳의 조사를 하고 연구 노력하였으나 그 작도 추적의 근처에는



접근하였으나 완전한 작도의 정확한 추적은 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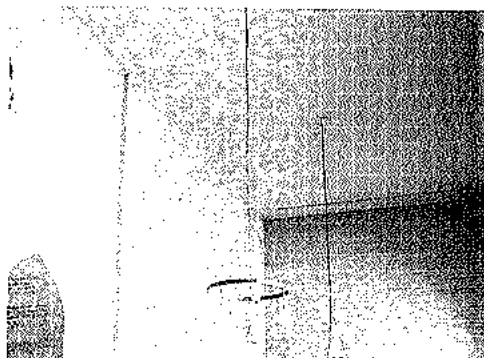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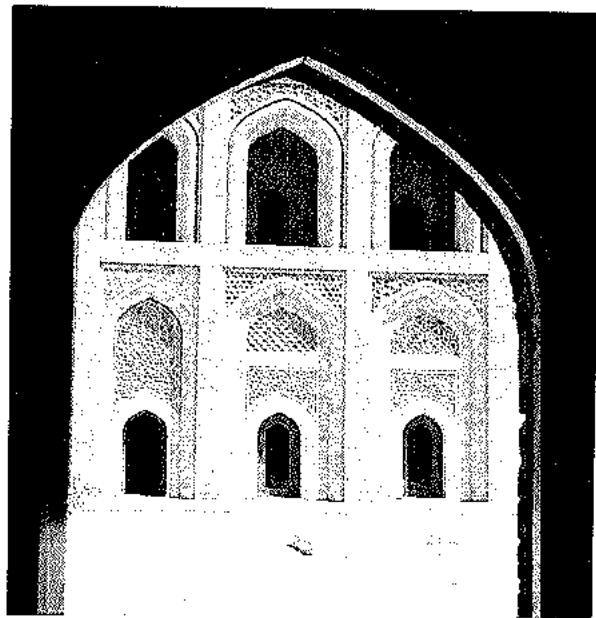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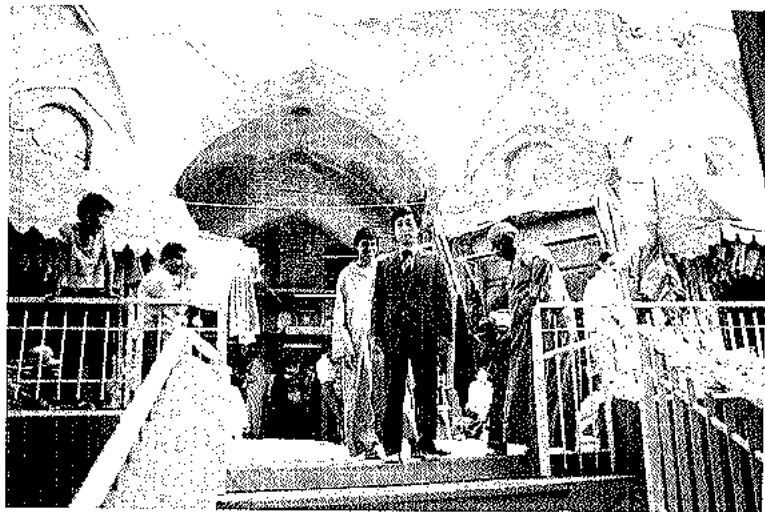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작도에 의해서 찾아낸 어느선까지의 추적외의 의문 사항은 아치의 폭과 높이에 비례하는 자유곡선의 조화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순 흙벽돌로만 지어진 건물의 벽면과 모서리 처리는 아치의 선이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서리 처리의 Detail로 각각 개성있는 아름다운 아치를 이루고 있다.

각 아치의 모서리의 선을 이루는 기법이 각기 변화있게 독특한 것으로서 아치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것, 둔각으로 된 것, 둥글게 Moulding이 된 선, 이것은 Heavy Twist Moulding으로 유명하다.

평평한 아치, 샤프한 아치, 통통한 아치, 풍만한 아치, 날씬한 아치 등의 감각은 대범한 자유곡선에서부터 엄격한 벽돌 한장 한장의 Detail에 이르기까지, 더우거나 벽돌 한 장은 그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각종문양에까지, 그리고 그 한장 한장의 벽돌은 전체를 이루어 전체의 Pattern Design에 이르기까지 엄밀히 계획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무언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12세기의 흙벽돌 건물의 화려하고 정교하고 튼튼한 세계최초의 대학건물에 감탄할 뿐이다.



- ⑦ 무스탄 시리아의 화려하고 정교한 벽면의 입체
이 문양은 새겨서 붙인 것이 아니고 벽돌 제작시 벽돌면 자체에 부각된 문양이다.
- ⑧ 정문에서 바깥쪽으로 본 전경
정문 바깥쪽을 복잡한 시장이 인접하고 있다.
- ⑨ 교실 안쪽에서 본 중정
맞은편 모습
- ⑩ 내부 상세

인텔리전트 빌딩 設計에 관한 一般事項

A Basic Study for Intelligent Building

1.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

「인텔리전트(Intelligent)」란 영한사전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이해력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 빌딩에서의 「인텔리전트」는 그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高度情報化 對應建物」 또는, 줄여서 「情報化建物」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인텔리전트 빌딩은 오피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놓은 빌딩으로 BA(빌딩 오토메이션), OA(오피스 오토메이션), 통신기능, 오피스 서비스의 조건이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가동하면서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 건물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정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은 1981년 미국의 UTBS(United Technology Building System) 사에 의하여 제창되어 1983년 12월 코네티컷트 하트포드에 건설된 City Place가 그 효시이며, 그 후 미국, 일본에서 줄이어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최신건물에 그 초보적인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빌딩, 포항제철 「Posco-21」의 신축계획에서는 본격적인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 인텔리전트 빌딩이 아닌 스마트(Smart)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전자제조업체와 자동제어 시스템 업체가 자사의 새로운 제품을 기존의 제품과 구별하여 최첨단이며 고도의 지능집성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찾다가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일본에 도입되면서 인텔리전트

본 研究論文은 本協會 설비분과위원회의 '90년도 연구사업으로 실시된 「인텔리전트빌딩과 클린룸에 대한 조사연구」의 結果報告物로 그동안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소외되어온 분야에 대해 일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실재적인 면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클린룸에 대한 연구성과는 本誌 9101號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연구결과는 一般事項이 本誌부터 게재되고, 계속하여 電氣設備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編輯者 註—

本協會 設備分科委員會
(연구진행 : 孫章烈)

빌딩으로 명명되고, 일본의 발달된 전자기술, 값비싼 부동산 가격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2. 인텔리전트 빌딩의 機能

인텔리전트 빌딩의 기능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그림 1〉과 같이 건축공간, 건축설비, 정보통신, 오피스서비스의 4가지로 함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空間

사무실환경중 溫濕度에 관한 사항으로는 OA기기의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특히 OA기기의 존을 설정할 경우는 국부적인 부하의 대응을 시스템, 용량·운전제어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빛에 관한 사항으로는 VDT(Video Display Terminal)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그 면에 불필요한 빛이 비치지 않도록 조명계획에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外光에 대한 기기의 배치, 인공조명으로는 루마 부착형을 사용하거나 전등효율「lm/watt」이 좋은 高輝度램프를 앰비언트 조명(Ambient Lighting, 간접적인 전반조명)에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구조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으로 배선시스템에는 ① 플로어 덕트, ② 정방형 타일카페트+플래트 케이블, ③ ②와 같은 방식으로 40~50mm의 높이에 배선하는 이른바 OA타일카페트, ④ 종래부터 전선실 등에 이용되고 있는 프리엑세스

플로어, ⑤ 천장내 배선 등이 있으며, 폴과 패널을 조립한 오버헤드 시스템 등의 방법이 있다. 배선시스템의 평가요소로는 거주성, 경제성, 시공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사무실배치에서는 사무공간의 질과 양이 문제가 된다. 워크 스테이션과 파일링·케비네트의 배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쾌적성, 효율 등을 추구하여 사무공간에 최적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워크 스테이션이란 통신이나 OA기기를 기능적으로 갖춘 책상을 의미한다.

창조적 시설로는 OA단말기를 장시간 사용하므로 야기되는 소외감과 같은 OA증후군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신적으로는 "휴식", "정서(안정)"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는 "피트니스(fitness)"가 있어야 한다.

2) 建築設備

건축설비에서 에너지절약방법의 3대원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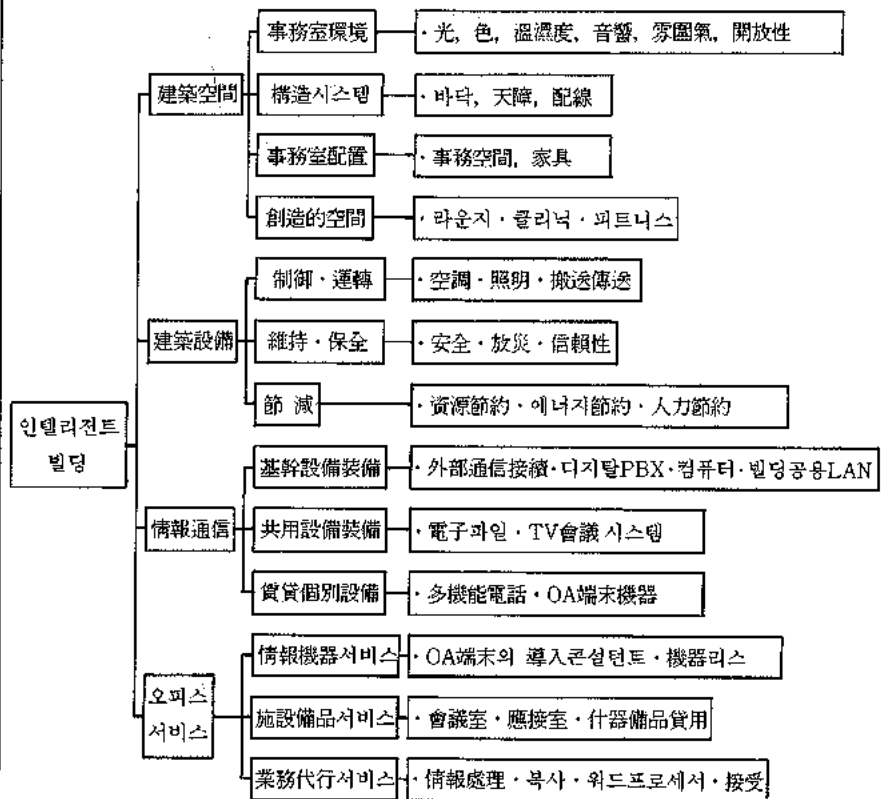
① 건물의 에너지소비 최소화, ② 에너지의 고효율 이용, ③ 잉여에너지와 자연에너지의 유효이용이다. 이것에는 하드웨어의 대응과 운전, 보수관리의 운용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유지보전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중 컴퓨터시스템에 관련되는 재해에는 지진등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으며 그 안전대책으로는 물리적인 면, 관리적인 면, 시스템기술적인 면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축적으로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은 구조, 배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운전은 환경의 향상,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시스템의 운용으로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편리하고, 운전관리자에게도 편리한 자동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세밀한 환경제어를 위해서는 공기조화나 조명 등 각각의 설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방화·방범을 포함한 각종설비를 건물전체에 통합하여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토털 컨트롤이 가능한 중앙감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자교환기나 대형컴퓨터를 빌딩관리용 컴퓨터와 연계하여 정보통신시스템과 빌딩 오토메이션 기능을 합친 네트워크의 구성도 필요하다.

3) 情報通信 시스템

사무실업무를 기계화, 전산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OA기기를 설치하고 LAN(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여 기업내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빌딩의 모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인텔리전트 빌딩의 기능

정보통신의 기간설비인 외부에서의 통신은 유선系와 무선系로 나눌 수 있다. 유선系에는 공중전기통신망과 CATV망이 있으며 전송로는 금속케이블과 광파이버케이블이 사용된다. CATV망은 일반적으로 디지털로서 고속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나 서면전송 등에 이용된다. 무선계는 공중전기통신망과 방송망이 있으며, 이것은 지상계와 위성계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전자교환기는 음성(전화계)과 컴퓨터통신으로 대표되는 기계간의 부호에 의한 통신(비전화계)을 양호하게 접속하는 장치이다. 종래의 교환기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것이지만 디지털전자교환기는 고속의 CPU(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에 의하여 전자화된 하드웨어와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동작하는 것이다.

빌딩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설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 각종 OA기기, 여러가지의 데이터베이스, 먼거리의 2곳을 서로 연결한 TV회의시스템과 같이 임대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오피스 서비스는 빌딩내 정보서비스, 시설 비품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등에 관련된 기능으로써 종래에는 없었던 것이었지만 인텔리전트 빌딩의 출현으로 가능하게 됐다.

4) 오피스 서비스

시설비품서비스중 회의실은 VTR 등의 전자화된 장비를 갖춘다.

인텔리전트 빌딩이 종래의 빌딩과 다른 점은 이상에서 서술한 4가지 기능이 각각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구성된 빌딩에 사용자가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표 1)에 인텔리전트 빌딩의 4가지 기능과 그것을 지원하는 운용서비스를 나타낸다.

3. 建築的 對應

건물이 인텔리전트화 됨에 따라 건축물에는 LAN, 디지털 전자교환기, 컴퓨터 등 각종 OA기기가 대량으로 도입되고 이에 따른 전원, 배선, 열처리, 조명, 공기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건축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인텔리전트빌딩에 필요한 건축적 대응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基本的 檢討事項

무질서한 OA용 정보처리기기의 도입은 스페이스의

협소화나 소음의 발생 또는 기기발열에 의한 실내온도의 상승을 초래하여 오피스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업무-루틴한 일은 OA기기가 처리하고 오피스 근무자는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므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①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흐름의 파악
- ② 스페이스-커뮤니케이션 양, 보관데이터 양, 인간의 생활환경에의 대응
- ③ 정보관리-유효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
- ④ 환경-인간의 작업효율과 피로방지

2) 構造的 要素

(1) 單位空間

종래의 오피스공간은 대체로 좁은 공간이므로 대부분의 오피스 근무자들은 보다 넓은 공간을 바라고 있다. OA기기의 도입에 따라 필연적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1인당 근무공간의 중대나 휴게실의 확충에 따라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1인당 필요면적이 종래에는 4.5~7㎡ 정도인데 비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에는 10~13㎡이다.

〈표 1〉 인텔리전트 빌딩의 機能과 運用서비스

	시 스템	
	概 念	運 用 서 비 스
建 築 空 間	• 인간성을 추구한 공간구성 • 쾌적하고 대응성이 우수한 공조, 조명 • 기기 배치에 적합한 배선시스템 • 기기하중·내진대책	• 오피스공간의 연출 (오피스 배치, 장식등의 자문) • 건축공간, 외부환경의 유지보전 (예방보전, 청소·정원수 관리) • 개수에 대한 대응 (칸막이 변경, 용도변경, 갱신)
建 築 設 備	• 환경향상을 위한 운전제어 •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인력절약시스템 • 인명, 재산, 기능, 기밀의 보전 • 예방보전에 중점을 둔 설비의 유지관리	• 시스템 운전 (쾌적성,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운전) • 시스템 유지관리 (예방보전, 고장예의 대응) • 개수에 대한 대응 (오피스의 변경, 갱신)
情 報 · 通 信	• 정확하고 효율적인 외부통신의 수신 • 첨단기술의 기간설비 장비 •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설비 • 편리하고, 효과적인 단말기기	• 시스템 지원과 운전 (시스템 자문, 기간설비·고용설비의 관리) • OA기의 임대서비스 (각종 기기의 리스, 임대) • 유지관리 (예방보전, 고장대응)
오 피 스 서 비 스	•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서비스 • 편리한 임대 회의실 등의 제공 •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집기비품의 임대 •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업무대행	• 빌딩내 정보의 서비스 (프라이빗·비디오텍스와 외부데이터 베이스의 서비스) • 시설 비품 임대 (회의실, 응접실의 운용, 설치비품의 대여) • 업무대행 (인쇄, 접수, 계산업무의 대행)

(2) 조닝

OA기기가 집중된 오퍼레이션 공간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음, 열 및 기기의 보수관리, 기밀유지를 위해서 일반 집무공간이나 공용 서비스공간으로 부터 분리된 조닝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집무공간에서도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등이 많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선설비, 공조설비, 조명설비를 갖춘 부분을 OA존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조닝의 일례를 나타내면 옆 도표와 같다.

(3) 天障

현대건축의 천장은 조명기구와 방재설비(스프링클러, 배연밸러리, 감지기, 스피커 등)에 의해 시스템화 되고 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OA시스템에 대응하여 천장 속에 분전반 2차측 배관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기둥과 벽을 매체로 하여 각 단말 또는 워크스테이션으로 정보, 전력, 전화 등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작업의 전문화와 OA기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적인 조명시스템으로서 간접조명+Tasklighting이 고려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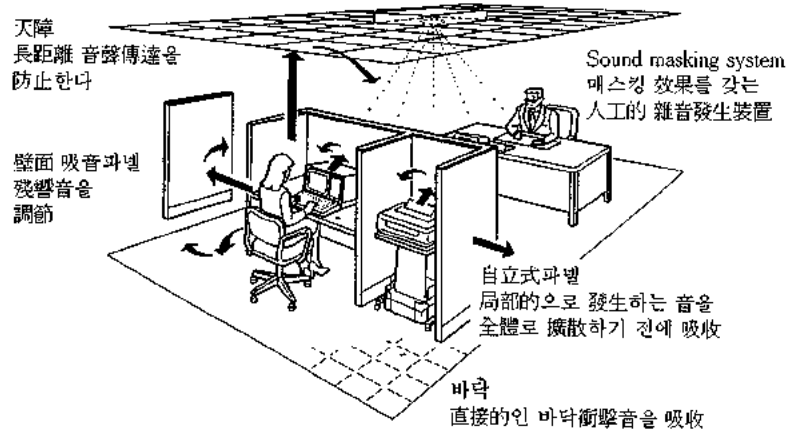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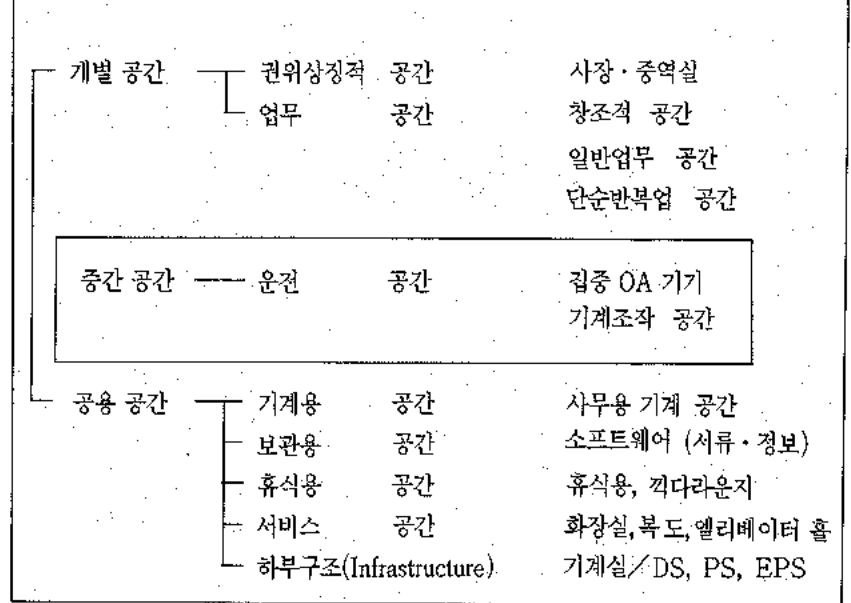
(4) 壁

벽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OA빌딩에 대해서는 장치벽의 개발을 들 수 있다. 60~100mm의 두께의 벽속에 정보 및 전력전송선을 넣고, 동시에 플렉시블한 파티션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피스의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파티션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높이를 선택할 수 있고, OA기기, 전화, 음성 또는 다른 소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흡음처리된 표면으로 되어 있으며 때로는 공용의 사인보드로 이용되기도 하여 개인 또는 소수 크립에게 조용한 집무공간을 제공한다.

(5) 바닥

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대응성이 있는 실내 환경이 요구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천장, 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바닥도 중요한 정보배치의 요소가 된다. 특히 주배관, 幹線에서 각층에 배분되는 枝配管 배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조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몇가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서 각광을 받는 하나가 플레이트케이블 위에 카페트를 덮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弱電, 전화, OA단말기통신선이 한 장의 얇은 판 형상으로 되어 있어 바닥의 레벨차가 카페트로써 감추어지며, 카페트의 제거, 설치가 용이하므로 유지관리에도 유리하다. 또한 카페트의 장점은 사무공간의 소음성능, 단열성능, 물건의 파손방지 등이 있으며,

《조닝의 예》



[그림 2] 事務室의 騒音對策

위생환경, 피로도의 회복촉진에 의하여 작업능률의 향상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6) 컬러 콘디셔닝

실내의 색채계획은 조명, 내장재, 가구, 집기 등의 색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평범한 중간색 계통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유의할 사항은 피로감을 주는 색상을 (높거나 낮은 조도나 채도, 보색관계색) 피하는 것이다.

(7) 가구 및 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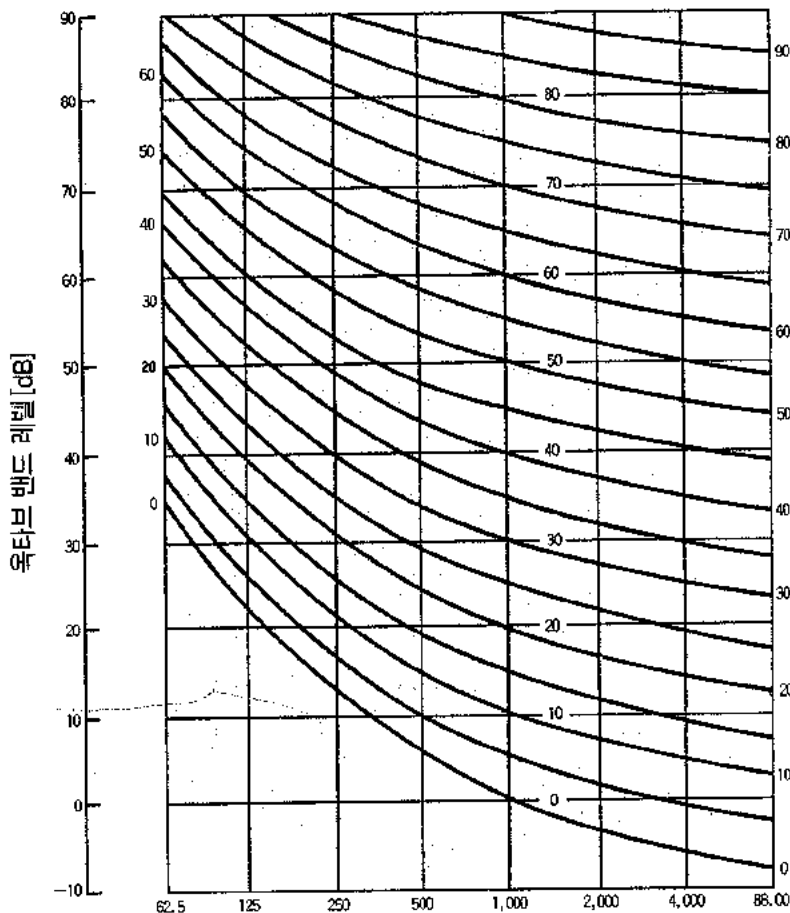
가구 및 비품은 오피스공간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며, 인간의 행위, 동작, 정보의 수납, 검색을 도와준다. 이것은 인간 활동범위 및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크기 및 시스템이 결정된다. OA기기의 조작자에 알맞게 상하조절이 가능한 의자, 다기능 책상에 의하여 작업공간의 조절, 환경의 정리, 이동가능한 캐비넷 시스템으로 사무공간의 효율화를 시도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 간다.

(8) 騒音

빌딩의 OA화에 따라 사무실내에 각종OA기기가 증가하여 소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무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소음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소음 발생원의 억제를 위하여 낮은 소음레벨의 기기를 선정한다.



[그림 3] 실내의 허용소음레벨(NR곡선)

- ② 소음의 전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高 소음원은 사무공간에서 가급적 먼 곳에 설치하고, 부득이 사무공간내에 설치할 때에는 소음챔버로 덮개를 씌운다.

- ③ 실내의 흡음성을 높인다. 예로서 바닥은 기기의 발생음을 흡수하고 보행음을 작게 하는 데 유효한 카펫트를 깔고 이때 발생할 지 모르는 정전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충분한 검토를 한다.

천장재로는 소음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소음이 요구되는 OA기기실 등에는 특별히 흡음율이 높은 천장材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의 벽면재는 흡음율이 높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치에서도 소음원이 벽면으로부터 직접 사무공간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이나 사무실의 가구를 이용하여 소음이나 소음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무실의 소음대책을 예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사무공간내에서의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NR數(Noise Rating Number)와 NC수(Noise Criteria Number)가 사용되고 있다. NR數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制定한 「騒音의 程度와 心理的인 影響의 許容度」의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은 곡선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 NR수와 적용예, 소음레벨 dB(A)과의 관계를 (표 2)에 나타낸다.

騒音레벨 dB(A)	NR 數	適用例
90	90~90	
80	70~80	
70	60~70	作業場
60	50~60	타자室
50	40~50	大事務室, 製圖室
40	30~40	住宅, 事務室
30	20~30	病院, 重役室
20	10~20	放送스튜디오
10	0~10	

〈표 2〉 室内의 許容騒音레벨 適用例

NC수도 NR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L. L. Beranek가 會話妨害程度를 조사하여 基準화 한 것으로 NR수보다 먼저 제안되었다.

4. 設備의 對應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건축설비에 관련된

기능으로는 오피스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제어, 안전대책, 에너지 절감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을 빌딩관리시스템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환경제어를 위해서는 공조나 조명등 각각의 설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재, 방범을 포함한 각종 설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재, 방범을 포함한 각종 설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재, 방범을 포함한 각종 설비를 네트워크화하여 건물 전체의 토탈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감시장치에 전자교환기, 대형 컴퓨터와 빌딩 관리용 컴퓨터를 접속하고, 정보통신 시스템과 빌딩 오토메이션 기능의 복합 네트워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같은 기능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빌딩관리시스템은 결국 빌딩오토메이션화를 추구하게 된다.

오피스빌딩에 전자기기가 대량으로 도입되면서 설비개획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조명과 공기조화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명

(1) 照度

건축공간의 조도기준은 사무실 750~1,500Lx, 또는 300~750Lx, 전자계산기실 300~750Lx이며, OA기기가 갖추어진 사무실에서는 750Lx 정도가 적절하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평면조도에 대한 기준이므로 빛의 방향, 그림자 glare(Glare) 등 빛의 질에 대하여서는 따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의 질을 고려한 정량적 표시로는 ESI조도(Equivalent Sphere Illumination, 等價球內照度, Lx)가 있다. 이것은 균등한 빛을 내는 구체의 중심, 즉 모든 방향으로 같은 빛이 입사되어 반사glare가 생기지 않는 이상적인 조명상태를 표준으로 하고 실제의 조명상태를 이것에 비교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2) 對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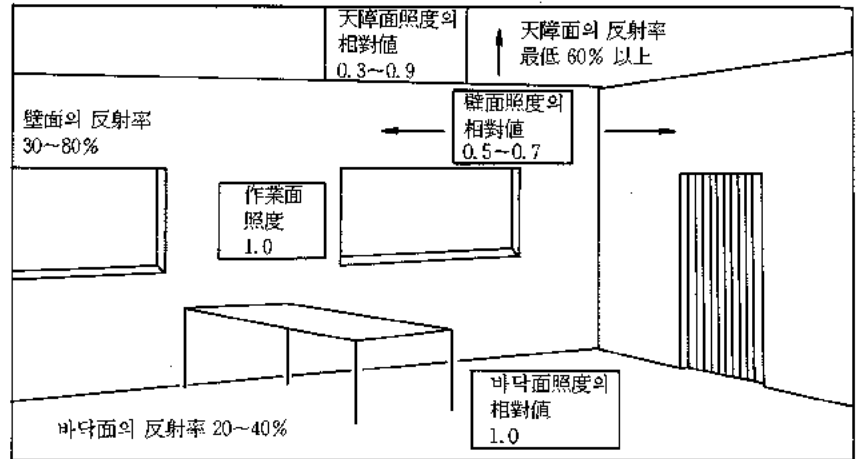
오피스공간의 휘도대비는 작업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사율의 권장치로는 천장의 경우는 60%이상, 벽면 30~80%, 바닥면 20~40%로 윗쪽을 밝게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공간 주변의 휘도비는 3:1 정도, 떨어진 장소는 5:1 이내가 바람직하다. 특히 창부근에서는 태양광과 외부의 휘도가 크므로 브라인드, 커튼 등에 의한 휘도비의 조절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실내의 반사율 및 조도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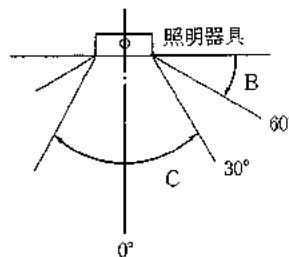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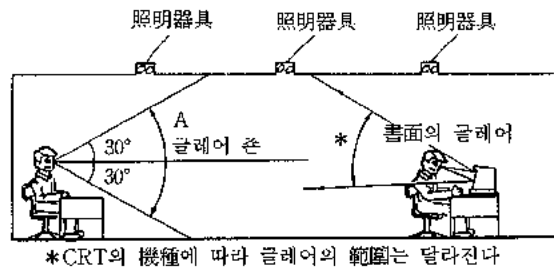
(3) 글레어(Glare)

글레어는 눈부신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대상을 잘 볼 수 없는 감응글레어와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가 있다. 사무공간은 일반적으로 천장고가 낮고 창이 크므로 깊이가 긴 실에서는 자연조명에 의한 경우 실의 깊은 쪽의 조도가 떨어지고 휘도대비가 현저하여 진다. 따라서 인공조명을 사용하여 조도부족과 그림의 자연조명에서 생기는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글레어는 광원과 기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5)의 A는 정상자세에서 글레어를 느끼는 범위이다. B는 광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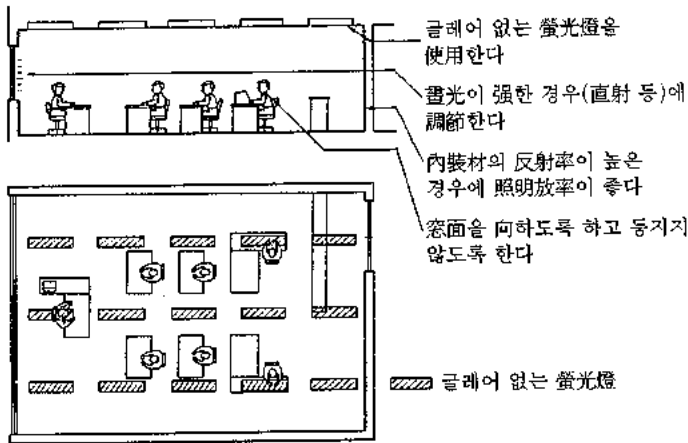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건축설비에 관련된 기능으로는 오피스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전제어, 안전대책, 에너지 절감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을 빌딩관리시스템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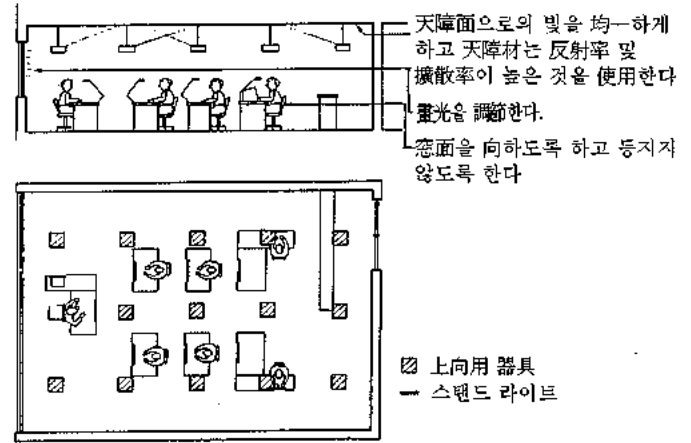
[그림 4] 실내의 반사율 및 조도



[그림 5] 글레어의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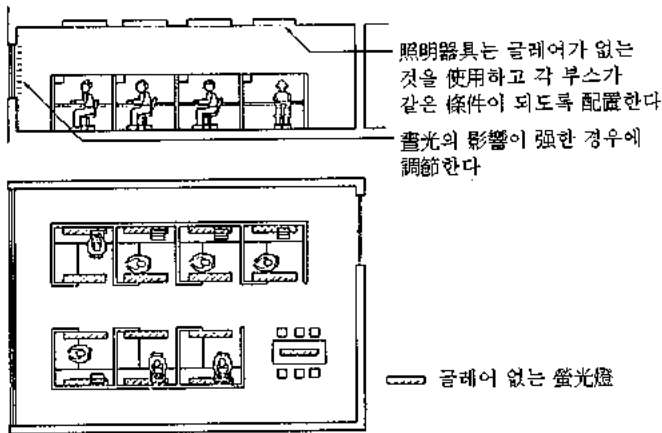


(a) 天障照明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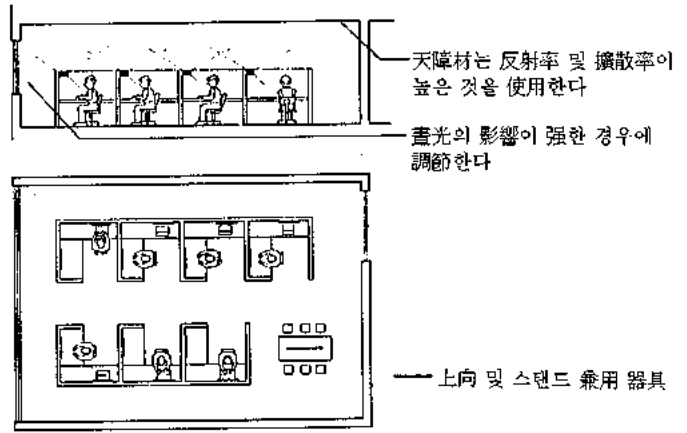


(b) 스탠드 앤드 앰비언트(Stand and Ambient)方式

(그림 6) 照明計劃例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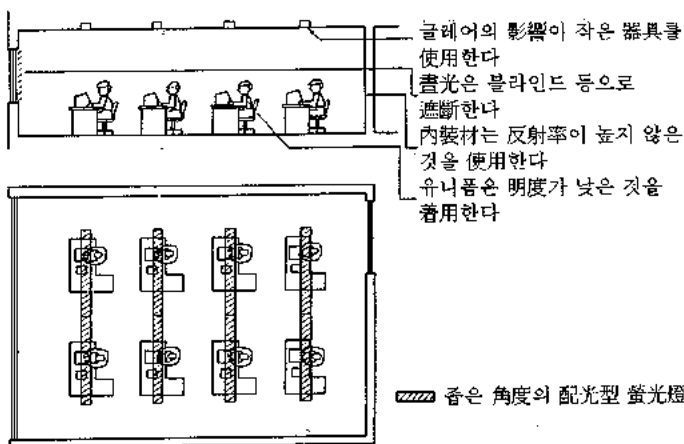


(a) 天障照明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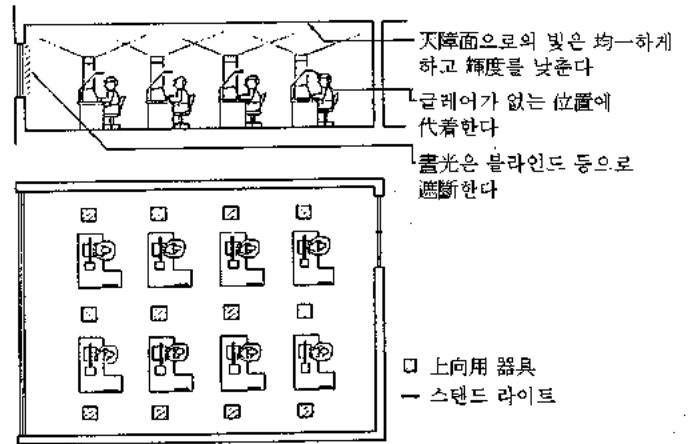


(b) 스탠드 앤드 앰비언트(Stand and Ambient)方式

(그림 7) 照明計劃例 - 2



(a) 天障照明方式



(b) 스탠드 앤드 앰비언트(Stand and Ambient)方式

(그림 8) 照明計劃例 - 3

기구의 글레이어가 기구에서 생기는 범위를 나타내며 쾌적한 조명공간을 위하여서는 이 부분의 글레이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4) 光源

광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형광등과 백열등이 사용되고 있다. 형광등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며 선광원으로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고, 백열등은 어둡거림이 거의 없고, 기구가 콤팩트하게 되어 있어 스탠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5) 照明計劃例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같은 사무실에서 조명계획의 3가지 예를 나타내며 (a)는 천장조명방식, (b)는 스탠드 앤드 앰비언트(Stand and Ambient) 방식이다.

2) 空氣調和

일반사무건물에서는 OA화에 따라 특정한 실에서 특수한 실내온습도 조건이 요구되며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이 채용되고 있으며, 기기의 발열에 따른 냉방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조시에 플렉시블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OA기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의 냉방부하는 현재의 사무실 공간부하에 비하여 1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조에서는 기기스페이스, 덕트, 배관스페이스 등 비교적 큰 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적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무실의 OA화에 대응한 공조조건이 일반적인 종래의 사무실과는 다른 점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溫度條件

OA기기의 제원으로 부터 하한은 10~15℃, 상한은 32~35℃로 한다. 여기의 상한은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의 실온을 기초로 한 수치이므로 장치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의 여유가 있다.

자기디스크 장치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어 헤드가 손상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통의 공조설비라면 공조개시후 30분이내에 정해진 범위에 도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잔업시간 등 공조를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온도조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2) 溫度條件

OA기기의 제원으로 부터 하한 45%, 상한 70%로

한다. 특히 하한치가 문제가 되며 저습도가 되면 정전기의 발생이 쉽고 방전현상이 일어나 디스크 에러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프린터의 리본, 플로터의 펜 끝등이 건조될 수도 있다. 상한치에서는 結露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内部發熱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일반건물과는 다른 형태의 내부발열이 나타난다.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OA기기의 발열이 크고 비공조시에도 발열하는 기기가 있다. 특히 OA기기의 CRT화면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명을 많이 하게 되므로 조명발열이 매우 늘어나게 된다. 한편 OA기기의 설치에 따라 재실인원의 밀도는 작아지므로 인체발열은 감소한다.

OA기기의 도입조건에 따라 내부발열량이 좌우되고 사무실 배치가 달라지므로 확실한 계획하에 발열량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일반사무건물에서는 OA화에 따라 특정한 실에서 특수한 실내온습도 조건이 요구되며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이 채용되고 있으며, 기기의 발열에 따른 냉방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조시에 플렉시블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OA기기가 설치된 사무실에서의 냉방부하는 현재의 사무실 공간부하에 비하여 1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조에서는 기기스페이스, 덕트, 배관스페이스 등 비교적 큰 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적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空調시스템

OA대응 사무실의 공조시스템계획시 가장 중요한 점은 내부발열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OA기기의 발열량이 크게 됨에 따라 냉방용량이 난방용량에 비하여 크게 되므로 냉난방 겸용 열원용량(냉온수발생기 등)에서는 바란스의 평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冬期에도 냉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기간이 길게 되어 복열원을 가동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냉각에 따른 제습에 의하여 실내습도가 낮아지므로 냉각과 가습의 동시가동을 고려하든가 습열제거에 적당한 시스템의 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내에 OA기기가 균일하게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부발열량의 변동이 심하고 편재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선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예비배관, 예비덕트, 예비발원 등을 계획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착공·완공과 관계없이 허가기간 경과시 만료되며,
주요 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인 경우 신축에 해당하므로 戒告處分은 省略한다.

원고 김○○은 '85년 10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으로부터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85년10월25일부터 86년10월24일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를 승인받았으나 이 사건 대지상에서 화원을 경영하던 김△△을 상대로 온실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느라고 1988년4월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이것이 수리되자 공사에 착수한 사실, 위 건축공사 도중 철근을 사용하여 시공중임을 알게 된 관할구청에서 88년5월 당초 신고대로 블록구조로 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미 시공한 부분을 자진철거한 후 88년6월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마침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가로환경 순찰에 나선 관할구청의 공무원으로부터 빨리 공사를 끝내라는 독려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가 88년6월11일에는 건축 중인 위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을 안 피고로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88년6월16일에는 건축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88년6월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88년7월경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피고가 승인한 내용과는 달리 그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의 계고처분이 있는 후에도 88년8월21일경까지 사이에 유리부착 등의 마무리 작업과 슬레이트지붕을 슬래브 지붕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등 총공사비 1,500여만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사실, 피고가 89년9월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옷가게를 경영하는 지○○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89년9월25일부터 91년9월24일까지 네온광고물을 시설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 이 사건 대지 일대가 지금도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지역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85년10월10일에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86년10월24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관할구청인 피고가 위 존치기간이 지난후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건축물 구조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하

였다 하여 그로 인해 위 존치기간이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완공 후 1년간으로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된 86년8월21일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1년이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물도 그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건축도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어느모로 보나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한편 원고는 건축 도중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라는 단속과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를 완공하였고 위 건축물이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건축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건축될 수 있는 것인데도 무허가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처리규정(부산직할시 훈령 제776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초 존치기간을 3번이나 연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그 연장된 존치기간조차 다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존치기간이 지난 후 피고가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시정명령을 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건축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허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 관할구청인 피고가 지○○에게 광고물 설치허가를 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철거시정명령이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할구청인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1990.12.11. 대법원 제1부 판결 90누 5672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참조조문□

건축법 제47조(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李鶴洙 회원

博士學位 취득

서울 지부 李鶴洙 회원이 「鐵骨 鐵筋 콘크리트 기둥 보 接合部の 彈塑性 舉動에 관한 實驗的 研究」로 중앙대 대학원에서 博士 학위를 취득하였다.

鐵骨 鐵筋 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로 접합된 골조의 耐力, 變形 性能, 塑性 變形率, 破壞 性狀 및 彈塑性 舉動을 분석한 본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李鶴洙 회원은 '49년 서울 출신으로 仁荷大 建築학과와 延世大 産業 大學院을卒業하고, '81년 建築士 免許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에 근무하며 인하대학교와 중앙대학교 建築工學科에 출강중이다.

박사 학위 취득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鶴洙회원

「鐵骨 鐵筋 콘크리트 構造 기둥 보 接合部の 彈塑性 舉動에 관한 實驗的 研究」

본 연구는 鐵骨 鐵筋 콘크리트 기둥과 鐵骨 보로 接合된 單位 骨組의 實驗을 實施하고 이러한 骨組의 耐力 및 變形性能을 明確히 把握하고 鐵骨 鐵筋콘크리트 構造에 대한 設計 資料를 提示하기 위하여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로 接合된 單位骨組를 對象으로 接合部 패널의 充填 및 비充填에 관한 實驗體를 製作하였고,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의 띠鐵筋 間隔에 대해서도 0.22%, 0.19%, 0.15%의 實驗體를 製作하여 反復荷重을 가하였다. 實驗結果 내력, 변형성능, 소성변형율, 파괴성상 및 탄소성 거동을 把握하였으며, 또한 施工時의 不規則한 荷重의 原因인 타워 크레인 作動荷重을 選定하여 工事중 接合部 充填 및 비充填에 대한 變形과 風荷重에 대한 骨組의 變形을 算定하였다. 이상의 算定結果와 實驗値를 比較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의 單位骨組에 있어서 기둥의 전단 補强 間隔에 의한 降伏荷重은 띠鐵筋比가 0.15%인 實驗體(FL-10-6-150)를 基準으로 하여 0.19%인 實驗體는 5% 크게 나타났고, 0.22%인 實驗體는 10% 크게 나타났고, 充填形과 비充填形에 의한 항복하중의 差異는 充填形인 實驗體를 基準으로 할때 비充填形인 實驗體가 약 10%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實驗의 경우 비充填形의 實驗體에 의한 항복하중은 理論 해석치에서는 鐵骨 기둥보의 경우와 거의 같은 結果를 나타냈다.

2. 띠鐵筋比와 소성 변형률에 관하여는 띠철근비가 0.15%인 實驗體의 소성 變形率은 $\mu=7.0$ 이며 띠철근비가 0.19%인 實驗體의 소성 變形率은 $\mu=7.3$ 으로 거의 동일하며, 띠철근비가 0.22%인 實驗體(FL-10-6-100)의 소성 變形率은 $\mu=4.5$ 로 띠철근비가 0.15%인 實驗體보다 작게 나타났다. 또한 비充填形인 實驗體의 소성 變形率은 $\mu=9.2$ 로 크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기둥 띠鐵筋의 지나친 補强은 塑性 變形率을 低下시킨다.

3. 층간변위에 관하여는 實驗體 接合部 패널의 龜裂은 層間變位가 약 1/100이며 4배의 許容 層間變位 (1/400)에서 發生했다.

또한 본 論文에서 檢討한 타워 크레인 作動時의 層間變位는 1/500으로 나타났다.

4. 骨組 變形에 관한 理論 해석치의 結果는 鐵骨 기둥 보 單位骨組의 全體 變形인 경우 $\delta=3.17\text{cm}$ 이고 이를 基準으로 할 때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의 全體 變形은 $\delta=1.89\text{cm}$ 로 약 40% 작게 나타났고, 鐵骨 鐵筋 콘크리트 기둥보의 全體變形은 $\delta=1.02\text{cm}$ 로 약 70% 작게 나타났다. 實驗體의 實驗 結果는 平均 全體 變形은 $\delta=3.20\text{cm}$ 로 理論解析値의 鐵骨 기둥보의 結果와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接合部 패널 콘크리트의 龜裂 發生으로 항복전에 變形이 進展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기둥의 콘크리트 耐力 分擔 解析에 있어서 設計 條件에 의한 水平力에 따른 骨組의 變形은 接合部가 充填形인 骨組를 基準으로 할 때 接合部가 비充填形인 骨組의 變形이 33% 크게 나타났다. 이 增加 要因에 의한 骨組 變形의 影響을 줄이기 위해서는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에서 콘크리트의 分擔 내력비가 약 25% 이하로 設計됨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된다.

이상을 綜合하여 볼 때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의 變形은 鐵骨기둥 보로 解析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며, 耐力는 充填形의 경우는 鐵骨 鐵筋콘크리트 기둥과 鐵骨보의 이력 성상으로 나타나며, 비充填形인 경우는 鐵骨 기둥 보의 이력 성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鐵骨 鐵筋콘크리트기둥과 鐵骨보의 接合部 패널 周圍의 콘크리트 補强에 따른 履歴 性狀에 관한 研究및 "H"形鋼 기둥의 弱軸에 따른 充填 비充填 骨組의 履歴性狀 및 骨組 變形에 관하여 持續的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91년도 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2월분 9백69만8천7백90㎡보다 87.10%(8백44만8천68㎡) 증가한 1천 8백14만6천8백58㎡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분 합계 1천5백72만7천5백21㎡보다 63.07%(9백91만9천 46㎡) 증가한 2천5백64만6천5백67㎡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1월분 7백49만9천7백9㎡보다 141.97%(1천6백47만1백49㎡) 증가한 1천 8백14만6천8백58㎡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2,210,938	3,143,211	932,273	42.17%
	대구지부	499,033	1,890,808	1,391,775	278.89%
	광주지부	262,401	304,268	41,867	15.96%
	대전지부	199,153	602,553	403,400	202.56%
	경기지부	1,801,397	4,416,796	2,615,399	145.19%
	충북지부	289,079	449,127	160,048	55.36%
	충남지부	311,987	537,504	225,517	72.28%
	전북지부	180,113	957,203	777,090	431.45%
	전남지부	272,463	612,306	339,843	124.73%
	경북지부	407,387	1,292,432	885,045	217.25%
	경남지부	839,642	2,111,569	1,271,927	151.48%
	제주지부	78,022	371,251	293,229	375.83%
감소지역	부산지부	1,374,021	769,948	(604,073)	-43.96%
	인천지부	477,248	425,009	(52,239)	-10.95%
	강원지부	495,906	262,873	(233,033)	-46.99%
합	계	9,698,790	18,146,858	8,448,068	87.10%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1 월 분	2 월 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765,239	2,396,871	1,631,632	213.22%
다 세 대 주 택	510,125	1,398,206	888,081	174.09%
연 립 주 택	149,924	298,590	148,666	99.16%
아 파 트	1,920,970	6,475,573	4,554,603	237.10%
근린생활시설	1,475,767	3,569,391	2,093,624	141.87%
종 교 시 설	55,861	129,414	73,553	131.67%
의 료 시 설	92,637	72,224	(20,413)	22.04%
교육연구시설	82,953	267,521	184,568	222.50%
업 무 시 설	625,189	841,822	216,633	34.65%
숙 박 시 설	81,185	152,113	70,928	87.37%
공 장	976,999	1,716,879	739,880	75.73%
기 타	762,860	828,254	65,394	8.57%
계	7,499,709	18,146,858	10,647,149	141.9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2月分)

구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6,995	7,163	3,055,218	85	93	87,993	0	0	0	7,080	7,256	3,143,211
부산지부	1,360	1,698	692,881	179	268	51,665	32	33	25,402	1,571	1,999	769,948
대구지부	2,223	2,578	1,743,840	250	269	134,445	23	25	12,523	2,496	2,872	1,890,808
인천지부	360	444	412,514	12	12	4,111	7	7	8,384	379	463	425,009
광주지부	592	616	258,950	88	102	44,541	5	5	777	685	723	304,268
대전지부	383	523	575,538	29	29	15,887	40	44	11,128	452	596	602,553
경기지부	4,919	5,570	4,273,167	202	223	99,749	52	52	43,880	5,173	5,845	4,416,796
강원지부	375	470	241,541	72	79	16,207	8	8	5,125	455	557	262,873
충북지부	591	716	415,450	82	91	28,759	22	22	4,918	695	829	449,127
충남지부	917	949	473,202	128	129	61,682	13	13	2,620	1,058	1,091	537,504
전북지부	748	912	847,644	139	148	105,856	16	16	3,703	903	1,076	957,203
전남지부	934	1,066	576,385	118	133	27,844	29	33	8,077	1,081	1,232	612,306
경북지부	1,357	1,711	1,084,471	257	320	200,139	16	16	7,822	1,630	2,047	1,292,432
경남지부	2,437	2,722	1,987,442	342	395	108,716	36	36	15,411	2,815	3,153	2,111,569
제주지부	766	919	347,648	126	127	23,603	0	0	0	892	1,046	371,251
합 계	24,957	28,057	16,985,891	2,109	2,418	1,011,197	299	310	149,770	27,365	30,785	18,146,858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9,518	9,733	4,315,852	137	149	106,057	0	0	0	9,655	9,882	4,421,909
부산지부	2,320	2,883	1,450,941	301	410	95,837	73	75	38,122	2,694	3,368	1,584,900
대구지부	2,706	3,095	2,158,112	582	623	152,147	49	51	21,310	3,337	3,769	2,331,569
인천지부	883	1,112	1,247,926	28	42	52,156	22	23	13,332	933	1,177	1,313,414
광주지부	814	860	448,856	128	143	72,650	14	14	2,113	956	1,017	523,619
대전지부	618	792	902,742	51	51	27,194	97	106	23,992	766	949	953,928
경기지부	6,364	7,196	5,342,260	293	324	141,140	128	128	186,415	6,805	7,648	5,669,815
강원지부	595	725	347,208	112	123	37,299	17	17	7,355	724	865	391,862
충북지부	895	1,086	651,305	124	174	81,150	49	49	10,344	1,068	1,309	742,799
충남지부	1,143	1,192	638,600	174	175	78,816	34	34	4,758	1,351	1,401	722,174
전북지부	877	1,071	954,937	173	190	119,634	48	50	10,840	1,098	1,311	1,085,411
전남지부	1,305	1,505	735,177	219	257	97,548	57	62	14,020	1,581	1,824	846,745
경북지부	1,755	2,179	1,390,447	353	447	308,861	30	30	28,749	2,138	2,656	1,728,057
경남지부	3,380	3,860	2,700,685	479	566	153,908	60	62	21,534	3,919	4,488	2,876,127
제주지부	925	1,108	424,734	179	180	29,504	0	0	0	1,104	1,288	454,238
합 계	34,118	38,397	23,709,782	3,333	3,854	1,553,901	678	701	382,884	38,129	42,952	25,646,56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2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2,604	12,976	2,317,752	898	939	77,483	23	23	1,636	13,525	13,938	2,396,871
다세대주택	2,831	3,069	1,392,593	33	34	5,126	3	3	487	2,867	3,106	1,398,206
연립주택	148	190	298,041	3	3	549	0	0	0	151	193	298,590
아파트	341	1,573	6,450,699	8	8	23,216	3	7	1,658	352	1,588	6,475,573
근린생활시설	6,750	6,941	3,294,633	449	461	212,919	163	166	61,839	7,362	7,568	3,569,391
종교시설	153	171	104,091	51	69	25,205	1	1	118	205	241	129,414
의료시설	11	27	51,038	12	12	18,644	5	5	2,542	28	44	72,224
교육연구시설	46	75	178,161	48	73	80,971	15	15	8,389	109	163	267,521
업무시설	208	224	802,154	38	39	22,603	11	11	17,065	257	274	841,822
숙박시설	65	76	138,164	13	14	9,678	4	4	4,271	82	94	152,113
공장	856	1,454	1,291,962	310	467	400,705	31	35	24,212	1,197	1,956	1,716,879
기타	944	1,281	666,603	246	299	134,098	40	40	27,553	1,230	1,620	828,254
합 계	24,957	28,057	16,985,891	2,109	2,418	1,011,197	299	310	149,770	27,365	30,785	18,146,858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1~2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6,690	17,132	3,055,806	1,360	1,422	101,121	69	69	5,183	18,119	18,623	3,162,110
다세대주택	3,834	4,183	1,898,616	59	60	7,956	12	17	1,759	3,905	4,260	1,908,331
연립주택	231	324	446,354	5	5	1,324	2	2	836	238	331	448,514
아파트	470	2,037	8,315,539	19	25	77,238	7	11	3,766	496	2,073	8,396,543
근린생활시설	9,449	9,743	4,649,536	726	752	272,865	367	371	122,757	10,542	10,866	5,045,158
종교시설	201	235	154,394	72	93	30,092	6	8	789	279	336	185,275
의료시설	18	36	137,642	14	14	24,490	6	6	2,729	38	56	164,861
교육연구시설	68	104	238,754	64	93	98,027	36	36	13,693	168	233	350,474
업무시설	319	350	1,401,673	66	70	44,798	16	16	20,540	401	436	1,467,011
숙박시설	80	94	171,154	26	47	37,284	13	13	24,860	119	154	233,298
공장	1,317	2,210	2,003,156	511	782	639,782	72	78	50,940	1,900	3,070	2,693,878
기타	1,441	1,949	1,237,158	411	491	218,924	72	74	135,032	1,924	2,514	1,591,114
합 계	34,118	38,397	23,709,782	3,333	3,854	1,553,901	678	701	382,884	38,129	42,952	25,646,567

신 입 회 원



金龍基(52年)
한국방통대 농학
거성건축
전북 전주 덕진 1314-200
254-1880



朴榮奎(58年)
경남대 건축
대건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62-5
466-9328



李重喆(60年)
원광대 건축공
가나건축
전북 이리 남중 65-39
858-0094~5



金昌洙(52年)
경주공고 건축
유일건축
경북 포항 죽도 613-7
82-0506



安相勳(54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탐·동아·신화·한림(종합)
인천 남동 구월 1123-5
429-2020~3



鄭泰鎬(62年)
조선대 건축공
해인·영일·평화건축(종합)
광주 서구 월산 1053-5



林光鐵(60年)
조선대 건축공
해인·영일·평화건축(종합)
광주 서구 월산 1053-5



崔吉鎬(57年)
인덕공전 건축
다반건축
서울 서초 방배 450-15
584-3482



申仁湜(59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신우·구일건축
서울 강남 논현 124
547-6784~5



金珍弘(61年)
경기개방대 건축
효진·효원건축(종합)
서울 판악 남현 1062-15
584-4579



千鴻大(54年)
고려대 건축
서흥건축
서울 서초 서초 1357-73
553-9529



尹秀鉉(53年)
부산대 건축공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 종로 계동 140-2
746-7832



李 懋(60年)
부산대 건축공
부산공간·목우·전인(종합)
부산 서구 동대신 428-7
241-6361



宋榮變(59年)
서일공전 건축
진도건축
인천 남구 주안 468-4
83-1233



鄭尙憲(58年)
인천공고 건축
장인·삼원·예성건축(종합)
인천 서구 가정 5-53
577-2525



鄭龍婁(60年)
인천전문대 건축
장인·삼원·예성건축(종합)
인천 서구 가정 5-53
577-4468



崔容默(59年)
고려대 건축, 동대학원
(주)슈퍼텍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833-2
583-7872



文東燮(57年)
홍익대 건축공
유창·장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779-7
569-3543



金光熙(52年)
성균관대 건축공
(주)무영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204-4
569-1376



安相俊(57年)
홍익대 건축
성진·도시건축
서울 서대문 연희 133-1
323-4106~8



朴熙星(54年)
중앙대 건축공
예·지·원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24-12
584-9599



白彰欽(57年)
중앙대 건축
예·지·원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24-12
584-9599



李張熙(50年)
동신실전 건축
수도건축
전북 전주 인후 650-9
253-6715~6



鄭承德(56年)
홍익대 건축
근정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5-8
558-4483~5



崔義子(45年)
홍익대 건축공
(주)대건축(종합)
인천 남구 구월 1111-10
424-1115



鄭哲永(53年)
청주대 건축공
수복건축(종합)
충북 청주 북문로 87-4
52-7025



安相九(54年)
동아대 토목
근정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5-8
558-4483~5



趙顯洪(59年)
대구공고 건축
성우건축
경북 포항 죽도 718-1
82-5821~2



孫吉鶴(56年)
증평공고 건축
손길학건축
충북 청주 북문로 107-6
221-9797~8



辛鍾權(57年)
건국대 건축공
예전건축(종합)
서울 강남 청담 31-10
574-4277~8



金鍾祐(57年)
영남대 건축
대우건축
경북 포항 죽도 677-14
77-4555



沈相正(48年)
충남대 건축공
신건축(종합)
대전 중구 대흥 211
255-1453



林英浩(60年)
경희대 건축
피아건축(종합)
서울 성북 동소문 44
741-1064



朴貞潤(61年)
단국대 건축
기인건축
수원 권선 인계 1034-1
38-2230~1



方秉晚(60年)
울산공대 건축
부산공간·목우·전인(종합)
부산 서구 동대신 428-7
241-6361~2



劉錫文(56年)
동의전문대 건축
금와건축
부산 동래 명륜 344-1
557-5006~7



申東岸(60年)
충북대 건축
선건축(종합)
충북 청주 영도 50-2
56-9430



崔常哲(57年)
동의공전 건축
우양건축
부산 북구 구포 1186-3
338-0778~9



尹錫煥(59年)
경남전문대 건축
예민건축
부산 중구 중앙 78-18
465-8221~2



李哲雨(54年)
유한공고 건축
상민건축
충북 음성 음성 620-19
72-8927~8



崔相炫(61年)
부산대 건축공, 同대학원
부산공간·목우·전인(종합)
부산 서구 동대신 428-7
241-6361~2



申沆澈(58年)
경기공전 건축
신건축
강원 춘천 중앙로 77-2
56-7991



李成澤(60年)
인하대, 서울시립대학원
영진·대한건축(종합)
충북 청주 북문로 116-140
52-3383



鄭哲英(57年)
동의대 건축공
부산공간·목우·전인(종합)
부산 서구 동대신 428-7
241-6361~2



李在春(56年)
건국대 건축공
이재춘건축
강원 원주 일산 193-59
731-3997



卞蓮洙(62年)
충북대 건축공
도시건축(종합)
충북 청주 북문로 116-168
52-9750



李賢燮(52年)
서울대 건축
현건축
서울 용산 청파 2-94
706-1557



金敎一(58年)
목포공고 건축
명건축
전남 목포 산정 1040-264
77-5571



盧正鎬(54年)
청주대 건축공
수복·동구건축(종합)
충북 청주 북문로 87-4
57-2001



金基喆(56年)
동아대 건축공
무진·기정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54-3
462-8787

開 會 辭

오늘 本協會의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全國의 代議員 여러분과 본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代議員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들의 커다란 聲援에 힘입어 大韓建築士協會의 第18代會長에 就任하여 重責을 맡게 된지도 어느덧 3個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本人나름대로 會長으로의 在任期間동안 우리의 協會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現況을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지내 왔습니다.

本人은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莫重한 所任을 사명감을 가지고 誠實하게 遂行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의 聲援과 期待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總會에는 지난해에 집행했던 各會計別決算問題를 비롯하여 定款改正(案)과 建築士年金規程改正(案)등이 案件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本協會 運營上에 있어서 基本的이고 根幹이 되는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定款은 건축사법의 개정이 先行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改正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 支部와 分所의 名稱을 變更하는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必要한 部分만을 골라 개정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建築士法이 조속히 改正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傾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案件들을 中心으로 한 代議員 여러분들의 폭넓은 意見 교환속에서 協會發展을 위한 좋은 結論을 도출해 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最近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걸프전을 통하여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등 국제시장개방 압력 또한 더욱 거세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國內으로는 地自制實施를 위한 基礎議會議員選舉등 民主化를 向하여 착실히 前進하고 있는 가운데 本協會 會員들도 15名이 當選된 기쁨을 안고 있으며 廣域議會에도 상당수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와 관련하여 가급적 보다 많은 會員들이 출마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權益을 保護하며 社會的인 地位向上을 위해 앞장서는 등 그 役割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991年度 을 한해는 本協會로서도 그 어느 해에 못지않게 重要하기만한 한해라고 생각하면서 그중 本協會가 안고있는 몇가지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本協會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建築法改正案이 政府案으로 확정되어져서 현재 國會의 관련 委員會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總17個 條文으로 되어진 이 法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建築許可에서부터 竣工檢査에 이르기까지의 建築行政業務를 本協會가 代行하게 되어질 것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本協會 自體의 組織과 運營上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關聯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보완작업도 함께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建築士法の 改正問題에 對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건설부와도 상당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시험관리운영의 협의위임, 모든 건축물에 대한 조사·검사 업무의 대행등이 새롭게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연구 되어온 단독·종합 등 건축사사무소의 구분등록제 폐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중으로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폭넓은 改正作業을 積極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全國建築士大會와 建築士研修問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年度에 이어서 작년에 2번째의 全國建築士大會를 開催하고 內的으로는 團합을 꾀하면서 對外的으로 우리의 團合된 힘을 과시해 왔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3月中에 全國建築士大會를 開催하기 위하여 大會執行委員會를 構成하고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등 準備에 들어갔었습니다만 도중에 걸프전과 地自制選舉등 國內의 적인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10月 本協會創立記念日을 前後하여 開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건축행정건실화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建築士研修를 더욱 강화하여 별도의 研修를 計劃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本協會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유익한 研修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全國建築士大會와 研修를 함께 병행하는 改善案을 가지고 關係當局과 協議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本協會가 안고있는 일들은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해결을 위하여 各委員會를 활성화하면서 任職員이 모두 하나가 되어 誠實하게 業務를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代議員 여러분!

本人은 이렇듯 重要한 時期에 무엇보다도 全國 3千5百餘 會員들과 15個 市·道支部가 本協會를 中心으로 하나가 되어 和合하는 길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고 판단하여 和合하는 協會구현에 역점을 두면서 協會의 發展과 會員을 위한 일이라면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에 最善을 다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代議員 여러분을 비롯한 全國 會員 모두가 맡은바 任務에 充實하면서 協會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主人意識을 갖고 協會發展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同參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來賓 여러분과 代議員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앞날에 幸運이 충만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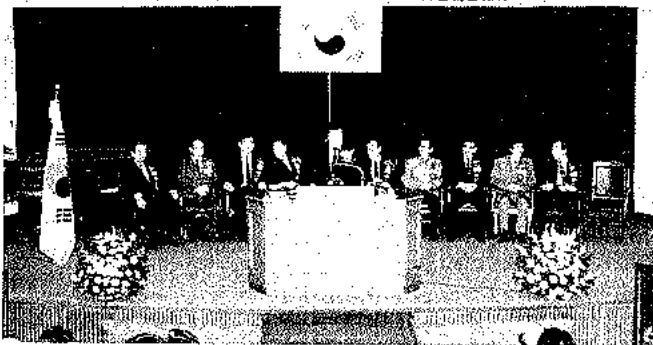
1991. 3. 28.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91년도 제1회 臨時總會 개최

1991年度第1回 臨時總會 및 새秩序, 새生活實踐決意大會

大邱建設士協會



'90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처리와 정관개정 등을 위한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28일(木) 본協會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대의원 3백74명중 2백88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새질서·새생활 실천결의대회와 병행,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의 부의안건 처리에 있어서 '9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 하였으며,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일부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는 원안을 승인 통과시켰으나,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질의답변과 토론중 추후 속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고 정회하였다. 속개총회는 오는 29일(月) 오후2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서울지부 임시총회를 마지막으로 '90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처리를 위한 각 시도지부별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주요부의안건을 처리 하였다.

각 시도지부별 임시총회 주요 안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特別市支部

- *일시 : 3월12일(화)
- *장소 : 협회 강당
- '90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대의원 보선
- 지부회장에 위임키로 함

▶釜山直轄市支部

- *일시 : 2월27일(수)
- *장소 :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
- 대의원 선출
-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

▶大邱直轄市支部

- *일시 : 2월27일(수)
- *장소 : 대구 파크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仁川直轄市支部

- *일시 : 1월27일(수)
- *장소 : 지부 회의실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光州直轄市支部

- *일시 : 2월22일(금)
- *장소 : 지부 회의실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 결정 -현행 1%를 0.5%로 하향 조정키로 함.

▶大田直轄市支部

- *일시 : 2월26일(화)
- *장소 : 프린스관광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京畿道支部

- *일시 : 3월6(수)
- *장소 : 수원 부라운관광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회관건립 추진계획(안) 승인

▶江原道支部

- *일시 : 2월8일(금)
- *장소 : 장산 속초관광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 감사선출
- 김명렬감사의 사임에 따라 이 병일회원을 감사로 선출

▶忠淸北道支部

- *일시 : 2월26일(화)
- *장소 : 지부 회의실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忠淸南道支部

- *일시 : 2월27일(수)
- *장소 : 온양 무학장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全羅南道支部

- *일시 : 2월27일(수)
- *장소 : 대전 신협 중앙연수원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全羅北道支部

- *일시 : 2월27일(수)
- *장소 : 추산회관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 결정 -현행 1%를 0.5%로 하향 조정키로 함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 일부 항목 조정후 승인
- 대의원선출
- 회원 증가에 따라 최상채의원을 추가 선출함.

▶慶尙北道支部

- *일시 : 3월6일(수)
- *장소 : 경주 콩코드호텔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 불요불급한 일부 항목을 수정 조정하여 승인

▶慶尙南道支部

- *일시 : 2월26일(화)
- *장소 : 지부 회의실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 대의원선출
- 박문성, 고보석회원을 선출.

▶濟州道支部

- *일시 : 3월8일(금)
- *장소 : 제주 파라다이스회관
- '90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91년도 추경예산(안) 승인

'91韓國建築展 開幕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 및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91韓國建築展이 유상열 건설부 차관보를 비롯한 조경희 예술의전당 이사장, 윤도근 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관계 인사 및 본부와 각 시도지부 임직원,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10일간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성대히 그 막을 열었다.

27일 開幕式을 겸한 시상식에서 吳雲東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의 作品展이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支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어온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韓國建築展'은 平面의 개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제사회에 우리의 건축을 자리매김하는 空間概念의 확대와 한국 建築史의 場을 기록하는 시간개념을 종합하는 立體的인 전시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91韓國建築展의 개막의의를 토론하

였으며 건설부장관을 대신하여 치사를 한 유상열 차관보는 「한국건축전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선구자적 행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축계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축하하였으며, 윤도근 건축가협회장 역시 전 건축인의 축제의 場이 될 것이라며 기뻐해 마지않았다.

또한,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의 축하화환이 담긴 가운데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축하를 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시작된 서울지역 전시에서는 하루평균 2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예술의전당 개관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2만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한국건축계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91韓國建築展의 지방전시는 오는 5월12일부터 부산지역에서 있을 예정이다.



개막식 테이블서



건설부장관상 시상



신인부분 최우수상을 시상하는 본협회장



仁川支部 獎學金 전달

仁川지부(회장 李秉武)는 지난달 15일 지부회의실에서 관내 모범 건축학도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인하대 건축공학과 김용묵 학생 등 관내 각급학교로부터 추천

된 12명의 학생에게 지급된 이번 장학금은 대학재학생 4명(각 50만원), 전문대 재학생 4명(각 30만원), 고교 재학생 4명(각 20만원)에게 총 4백만원이 전달되었다.

光州 建築業務간담회

光州지부(회장 徐延珉)는 지난 29일 건축관계 공무원과 지부 임직원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파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행정 발전

을 위한 광주 직할시의 보고를 듣는 한편,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건축사보의 업무처리 능력배양과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慶南支部 회원친선 바둑 대회

경남지부(회장 崔鳳亨)는 지난 2월25일 회원 및 지역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1회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바둑대회에서 1위는 울산분소의 이 동일 회원이 차지하였으며, 입상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은 26일 지부 '91제1회 임시총회석상에서 있었다.



인천지부 장학금 전달식



광주지부 건축업무간담회

當選을 축하드립니다.

地自制 기초의회에 本協會 회원 15人 진출

지난 26일 30여년만에 부활된 地方自治制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서울지부 광재만위원(서대문구 북가좌동)등 본 협회회원 15명이 선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一役을 담당하게 되었다.

4반세기의 年輪 속에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온 本協會는 이번 기초의회 구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協會 位像의 高揚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선도役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광역의회 구성에도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에 따라 本協會은 사회적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진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 광재만(재흥건축사사무소-서대문구 북가좌동)
- 최창영(최창영건축사사무소-강서구 화곡동)
- 박정철(동보건축사사무소-동대문구 신설동)
- 전우대(삼원건축사사무소-은평구 녹번동)
- 손정호(온하건축사사무소-강남구 반포동)

*부산지부

- 김진철(향토건축사사무소-동래구 북산동)
- 박원갑(신진건축사사무소-사하구 당리동)
- 강신철(로알종합건축사사무소-북구 만석2동)
- 김현태(아신건축사사무소-영도구 청학2동)
- 박명수(아세아종합건축사사무소-북구 구포2동)
- 황대성(황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남구 용호1동)
- 이태훈(중합건축사사무소-삼안-남구 감만2동)

*충북지부

- 이충철(청주건축사사무소-청주시 북문로1가, 남문로2가)

*전남지부

- 김광호(김광호건축사사무소-해남군 읍내리)

*경북지부

- 이우상(봉화건축사사무소-봉화군 봉화읍)

※다음 호에 상세히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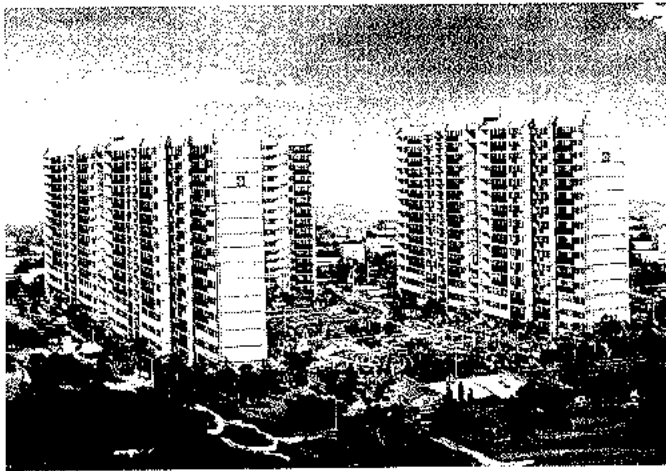
3대동거형 공동주택 설계안 당선작 발표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한 3대동거형 공동주택 현상공모 당선작이 4월 15일 발표되었다.

경노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전승하기 위하여 노부모를 모시고 3대가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여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4개 자구에 1천2백여호를 건설, 공급코자 실시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총

18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심사결과 토문종합건축(최두호외4인)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청종합건축(김종화외 1인), 종합건축 환경동인(신현호외 4인)안이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토문종합건축안을 게재하며, 공모지침은 다음과 같다.



당선작 투시도

■설계공모 지침

1. 계획범위

- 고층(15층 기준)공동주택의 단위주호계획 및 주동계획안
- 난방방식 : 중앙난방

2. 계획조건

가.대상가족 및 생활유형

- 대상가족

〈양친 또는 편친+부부+손자녀〉를 기본으로하여 보편적인 3대 가족형 및 가족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

- 생활유형

단위주호내 3대가 동거하는 형

나. 단위주호 계획

- 단위주호는 전용면적 25.7 평(84.99㎡) 이하로서 3대 가족형

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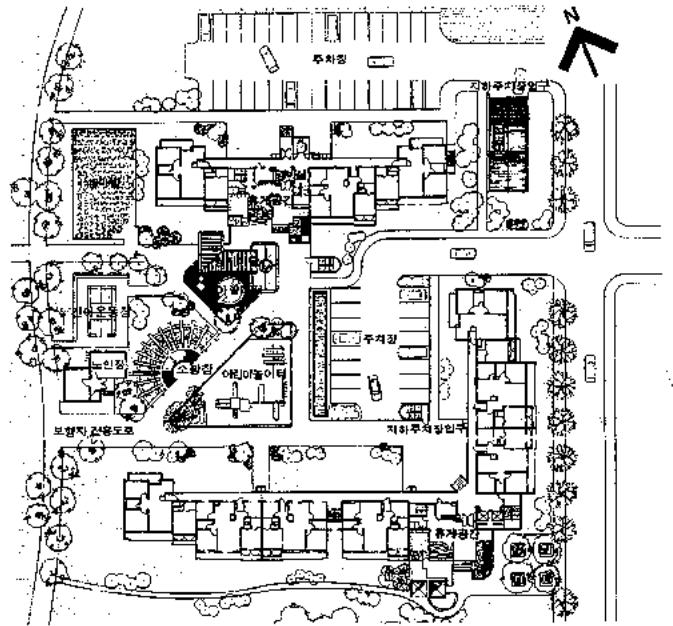
- 단위주호 계획은 조합을 고려 4 LDK형과 3 LDK 형으로 한다.

• 주동계획은 상기 단위주호를 적절히 조합할 것.

다. 주동계획

- 단위주동형식은 특정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3대 가족형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독창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할 것.

• 다양한 부지여건에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주호↔주동↔주동군의 구성체계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심사에 참작할 수 있음.



배치예시도

당선작/토문종합건축(대표 최두호)案

■설계방향

- 가족변화와 다양한 수요요구에 대응토록 융통성있는 평면구성
- 가족간의 잦은 접촉과 가족구성원 마다의 개인생활보장
- 노인계층의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안정 보장
- 고유의 생활방식이 수용되는 공간과 소재 도입
- 공동체생활 정착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단위주호설계

-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대응토록 3LDK와 4LDK형 혼합배치
- 노인방과 부부방의 규모와 위치를 대응하게 하여 방배분의 불편해소
- 수요자요구에 따라 가변성 있는 실구획이 가능토록 선택성 부여
- 뒷마루 설치로 노인생활의 정서성 고양

- 간이주방과 화장실의 별도설치로 노인방의 독립성과 편리성 도모

- 거실로 노인방과 부부방을 이격하여 개별생활 보장

■주동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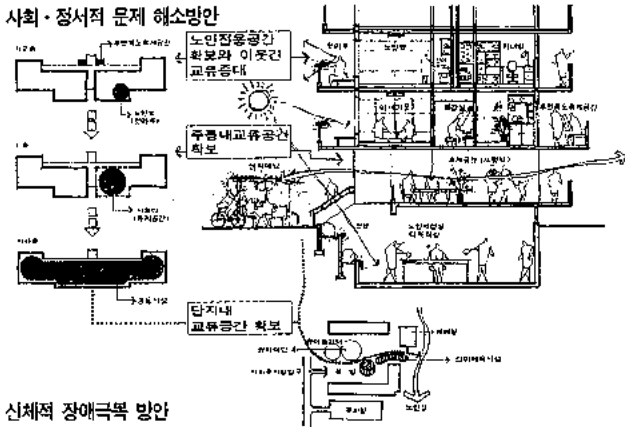
- 행사, 이웃간의 친교등이 가능토록 지하에 공동시설설치 특히, 노인들의 운동, 교제를 위한 공간 별도 마련
- 다양한 부지여건에 융통성있게 대응하는 주호조합
- 저층부의 프라이버시와 입면변화를 위해 발코니 난간형태 조정
- 고밀주거지의 폐쇄성저감과 지하층 출입의 편리 및 채광을 위한 피로티 설치
- 1층 피로티 부분에 육내휴게공간(사랑방) 설치

■단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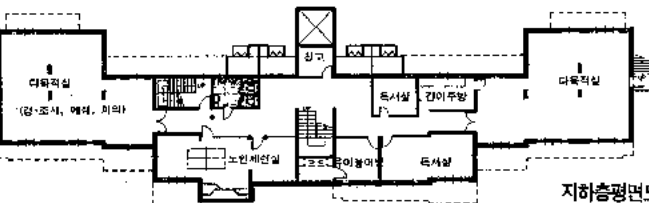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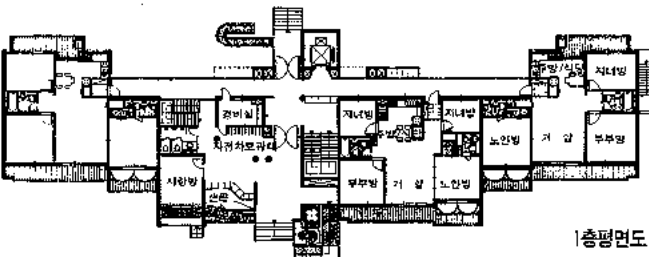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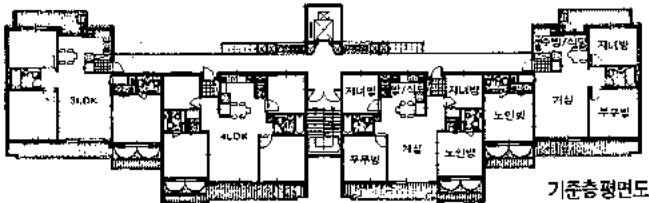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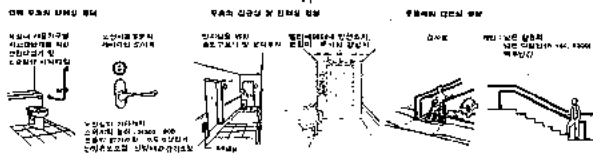
- 밝은햇빛과 따듯한 햇볕을 향

노인을 위한 설계 개념도

사회·정서적 문제 해소방안



신체적 장애극복 방안



유토록 놀이터와 썬치마냥 조성
• 옥내공동시설과 옥외공동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피로티와 통로설치
• 내정의 차량출입배제로 쾌적성과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쓰레기수거, 이사등의 편리가 보장되도록 포장공간 조성

• 노인의 소일거리와 단지경관 관리가 가능토록 채마밭, 꽃밭 조성
• 노인과 손자녀의 공동생활이 가능토록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연계설치
•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할수 있도록 보행자전용로 조성

제1회 도시환경문화상 수상작 발표

韓國經濟新聞社와 文化部가 '아름다운 도시, 밝은 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제정한 「도시환경문화상」의 첫 수상작품이 발표되었다.

도시의 건축물과 그 환경조형물 및 시설물등이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문화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환경문화상의 제1회 수상작은 환경조형부문에 대한 주택공사의 「울지로2가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설계: 구윤희, 최병천, 김중업)이, 환경시설부문에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파라다이스 서귀포 호텔」(설계: 김 호)이 각각 선정되었다.

윤도근교수(홍익대 환경대학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단체로부터 추천된 19개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도시환경문화상 심사에서 환경조형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울지로2가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은 7개로 분할된 단위사업을 1개로 통합하여 종합개발을 함으로써 각 건축물간의 조화와 도심공원의 확보로 밝은 도시조성에 기여한 점이 큰 주목을 끌었으며 「파라다이스 서귀포 호텔」은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건축미와 서양의 건축양식을 이질감없게 동화시킴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지닌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문화환경진단위원회 구성

문화부는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정부청사·역·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환경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환경진단을 담당할 「문화환경진단위원회」를 구성했다.

문화환경진단 지도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한도룡(환경), 이범재(건축), 최만린(조각가), 오가수(건축·인테리어), 이영혜(실내 디자인), 안상수(그래픽디자인), 권명관(그래픽디자인), 박영규(산업디자인), 강찬균(미술), 예용해(민속), 이중인(문화 발전연구소장)

新建築 주택설계경기 1991

일본 新建築社は "철과 유리를 소재로 한 건축물의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위해 「Another Glass House」는 주제로 설계경기를 실시한다.

총 상금 1백50만엔이 시상될 이 설계 경기의 작품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로 JIS 규격 A1용지 2장(패널화하지 않은 것)에 설계의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묘사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필립폰스와 안도 다다오가 맡게되며 입상작 발표는 계간 「JA」1992년 1월호 게재 예정으로 작품접수처는 日本國 東京都 文京區 湯島 2-31-2(〒113) 新建築 編輯部

'91年度 各委員會 委員 名單

■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임회장)	장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	강명구	금목건축사사무소
〃	강봉진	건축사사무소 국보건축
〃	한창진	(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규복	신성건축사사무소
〃	김만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동건·미도원·삼한
〃	김두섭	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건축
〃	구윤희	(주)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지태	삼아건축사사무소
〃	오웅석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안기태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화·진성·대건·천지
〃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신재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규태	향도종합건축사사무소
	류근열	중도종합건축사사무소
	윤기병	비미건축사사무소
	황창구	평해건축사사무소
	김창섭	건설부 법무담당관
	이재인	변호사 이재인 법률사무소

■ 홍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의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창건사
• 홍보		
부위원장	정정치	건축사사무소 합정
위원	민경민	에그린건축사사무소
	홍문유	건축사사무소 세경건축
	김주철	KBS 보도본부 제작위원
	김광백	MBC 사회부장
• 편찬		
부위원장	서천식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건축
위원	강철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김한기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산·동양건축
	최영집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오원근	상자·필종합건축사사무소

■ 법제위원회

위원장	한규봉	(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최광수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이종엽	건축사사무소 우일
	최관영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최태용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최재남	건축사사무소 삼양건축
	한진택	한진건축사사무소
	김무현	(주)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만	녹야·현익·호성종합건축사사무소

• 특별전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춘배	종합건축사사무소 성미·박·신풍
부위원장	김형배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간사위원	김기완	김기완건축사사무소
위원	정진민	건축사사무소 이천건축
	김진식	원당 건축사사무소
	이연섭	동남 건축사사무소
	백운학	동양 건축사사무소
	한상건	한상건 건축사사무소

■ 건축1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종합건.사 경신·구성·합성·고려건축
• 설계감리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종합건축사사무소 상협·석림
위원	정한주	삼부건축사사무소
	이상표	세화·벽산·예전종합건축사사무소
	민경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곽재환	종합건축사사무소 맥
	강성엽	공진건축사사무소
	안정환	삼풍종합건축사사무소

• 구조시공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용하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위원	이창남	센구조건축사사무소
	정재철	국민대학교 건축과
	오창희	한양대학교 건축과
	김갑중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권오식	건축사사무소 상목·구조
	김기두	대영건축건축사사무소

•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	권태정	태한·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황일인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정해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최의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웅

이철호 승창건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태희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남
조성룡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 건축2위원회

위 원 장 우남용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 에너지설비분과위원회

위 원 장 김진성 삼광건축사사무소
위 원 이명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이남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대양에너지연구원
이종관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손장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영민 건축사사무소 다울
이영수 세한설계콘솔파트

•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위 원 장 강우식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위 원 장순용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이응목 건축사사무소 새한
김두현 문화부 총무과
주남철 고려대학교 건축과
김상식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민경민 에그린건축사사무소

• 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위 원 장 송양식 한미건축사사무소
위 원 박돈서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광옥 (주)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윤익상 종합건축사사무소 류·세관·윤
이규창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정 소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
유경철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문감리위원회

위 원 장 김영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위 원 김무현 (주)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원 (주)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윤용우 (주)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성삼 (주)슈퍼텍종합건축사사무소
장연철 (주)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
최경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장중규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장

■ 연수위원회

위 원 장 이경남 건축사사무소 이이건축
위 원 김택성 홍인·공신·거한 피에이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변종환 공간조형 건축사사무소
정명옥 상지 종합건축사사무소
최희태 정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장무웅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국제위원회

위 원 장 김지덕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이정근 종합건축사사무소 용·우리계획·주건
위 원 전봉수 전우구조 건축사사무소
김종복 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규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오성·한도·영풍
송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원·티에스씨
조인숙 종합건축사사무소 다리·하우

■ 세무위원회

위 원 장 조상호 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
위 원 윤진우 윤건축사사무소
김영석 극동·영건축사사무소
이정구 대건건축사사무소
최수오 최수오 세무사사무소

■ 재건축심의위원회

위 원 장 장상진 건축사사무소 삼호건축
위 원 정성교 건축사사무소 신원
장동찬 신세기건축사사무소
김형걸 (주)태·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형인 세한건축사사무소
김봉훈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신
김평곤 건축사사무소 향림건축

■ 건축전산위원회

위 원 장 안영준 삼예건축사사무소
위 원 김창선 업지건축사사무소
김정식 양우·동우·모던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태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일
구준건 성도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연금위원회

위원장 회장

부위원장 부회장

위원 본 협회 이사, 각 시·도지부회장

• 연금연구위원회

위원장 강기세 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위원 이춘상 신양건축사사무소

편기봉 기인·삼덕·세안·소망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대식 대도종합건축사사무소

오수영 (주)교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한근 한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기두 대영건축건축사사무소

김 린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김순명 신라건축사사무소

윤승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이병무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도·유석·현대

이종만 녹야·현익·호성종합건축사사무소

장기웅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대동·협동

정 소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

•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강기세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정식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 호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민경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오수영 (주)교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문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이용학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성훈섭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도성·공간

• 진행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국동명건축사사무소

위원 강철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김기완 김기완건축사사무소

김기철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상목

김무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서정민 건축사사무소 동양·신도시

엄기철 경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일윤 한림건축사사무소

정정치 건축사사무소 합정

■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새한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조상호 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

위원 이의구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사

송양석 한미건축사사무소

김영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이문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박창호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5

이춘상 신양건축사사무소

김 린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만 녹야·현익·호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관 종합건축사사무소 은성·대우·한국

성훈섭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도성·공간

변경렬 동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장기수 동인건축사사무소

장기웅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대동·협동

이동근 동진 건축사사무소

이병무 신도·유석·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고창영 인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정민 건축사사무소 동양·신도시

조춘원 대원건축사사무소

송승호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원

이영순 영건축사사무소

이일윤 한림건축사사무소

윤영재 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이종훈 삼두 건축사사무소

홍영배 (합)종합건축사사무소 부광

김길창 김길창건축사사무소

이용철 청주건축사사무소

최용목 동서건축사사무소

이갑준 갑진건축사사무소

신기현 신기현건축사사무소

유철갑 종합건축사사무소 원건축

엄주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부민·공간

김광호 김광호 건축사사무소

김인모 김인모 건축사사무소

최종배 최종배 건축사사무소

김성중 신영건축사사무소

최봉형 시민·현대·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박문성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우 우신건축사사무소

김유봉 삼정건축사사무소